

개정판

다시 쓰는 제주 100년의 역사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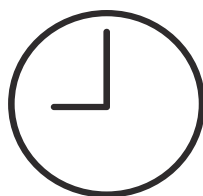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JEJU DARK TOURS
The Unforgettable Past

제주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보고서



목 차

1.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 총론	- 3
2. 제주시 동지역	- 10
관덕정 광장, 4·3해원방사탑, 미 CIC 방첩단 옛터, 박성내, 서북청년단 제주도본부 옛터, 오라국민학교 옛터, 월평마을 4·3성터, 제주경찰감찰청 옛터, 제주농업학교 옛터, 제주도립병원 옛터, 제주시민회관, 제주신보사 옛터, 조일구락부 옛터, 주정공장 옛터, 도령마루, 제주비행장, 관음사, 박진경 연대장 추모비, 어승생악 동굴진지, 곤을동 옛터, 삼양지서 옛터	
3. 제주시 조천읍	- 95
조천중학원, 조천지서 옛터, 조천지서 앞밭, 조천민간인수용소 옛터, 너븐송이 4·3기념관, 애기무덤, 순이삼촌 문학비, 옴팡밭,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제주4·3 북촌 주민 참사의 현장, 정지폭낭, 당팻, 9연대/2연대 대대본부 (함덕국민학교) 옛터, 선흘리 4·3 희생자 위령비, 불카분낭, 목시물굴, 도틀굴, 낙선동 4·3성, 와흘리 4·3사건희생자위령탑, 와흘굴, 남매상봉기념비, 교래복받친밭(이덕구산전)	
4. 제주시 구좌읍	- 184
금봉사, 낸시빌레, 다랑쉬굴, 세화리 주재소 옛터/세화지서 옛터, 연두망동산, 큰곶검흘굴 (대림동굴), 행원리 4·3희생자 위령탑	
5. 제주시 애월읍	- 213
납읍리 4·3성담(북문성), 비학동산, 빌레못굴, 영모원, 육시우영, 자리왓, 하귀중학원 옛터	

6. 제주시 한림읍 - 239

진아영 할머니 삶터, 한림항 어업조합창고 옛터, 다케나카 통조림공장 옛터, 명월리 고림동(상동) 4·3 성담, 만벵디 공동장지, 월대 옛터 (벵디가름), 웃동네, 생이뭇, 오소록이 마을

7. 서귀포시 동지역 - 267

시오름 주둔소, 영남동, 정방폭포 및 소남머리, 단추공장 옛터, 법환리 4·3성터, 중문신사터, 중문지서 옛터, 중문리 서북청년단 사무실 옛터, 삼면원혼제단

8. 서귀포시 남원읍/표선면 - 302

의귀국민학교, 현의합장묘(신묘역), 현의합장묘 옛터(구묘역), 남원읍 충혼묘지, 송령이골, 버들뭇, 한모살

9. 서귀포시 성산읍 - 334

우뭇개동산, 성산지서(성산포경찰서) 옛터, 터진목, 제주4·3 성산읍희생자 추모공원, 서북청년단 특별중대(성산동국민학교) 옛터백조일손지묘

10. 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 - 357

알뜨르비행장, 셋알오름 고사포진지,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송악산 일제진지동굴, 셋알오름, 백조일손지묘, 모슬포지서 옛터,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강병대) 정문, 무등이왓, 삼밭구석(삼밭구석), 큰넓궤, 임문숙 가족 헛묘, 구억국민학교 옛터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 총론

1. 조사 배경

(사)제주다크투어는 2020년 7월부터 약 3개월 간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이하 유적지) 안내판 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다크투어’(다크투어리즘, Dark Tourism)는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의미한다. 제주에는 일제군사시설(제주도 내 일제 진지동굴과 알뜨르비행장 일대 군사유적), 한국전쟁 관련 군사시설(육군 제1훈련소 정문 등 대정읍 일대), 제주4·3 유적지 등 다크투어 유적지들이 있다.

(사)제주다크투어는 2017년 12월 출범 이후 제주4·3 역사의 현장을 중심으로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제주 주민들의 삶은 제주4·3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가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억의 전승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4·3을 비롯한 제주 역사 유적지에 대한 기록과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번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는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기억의 전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개정판 조사 배경] (사)제주다크투어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조사보고서> 내에 수록한 일부 유적지를 찾아 답사를 진행했다. 일부 유적지의 경우 안내판이 새롭게 설치된 곳(터진목, 정방폭포)이 있었고, 안내판 정비가 이뤄진 유적지(당팃, 정지폭낭 등)도 있었다. 이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을 새롭게 발간한다. 그외에 오탈자, 유적지 소재지 오류 등을 잡았다. 표현이 어색한 어휘도 다듬었다.

다음은 사진 교체 및 추가 등 내용을 보강한 유적지이다.

해원방사탑(14쪽), 박성내(20쪽), 제주경찰감찰청 옛터(37쪽), 독립병원 옛터(43쪽), 주정공장 옛터(52쪽) 도령마루(58쪽), 관음사(67쪽), 삼양지서 옛터(92쪽), 애기무덤(113쪽), 순이삼촌 문학비(117쪽), 옴팡밭(121쪽), 정지폭낭(135쪽), 당팃(138쪽), 남매상봉기념비(177쪽), 낸시빌레(188쪽), 영모원(224쪽), 육시우영(231쪽), 만벵디 공동장지(249쪽), 생이뭇(259쪽), 정방폭포 및 소낭머리(273쪽), 의귀국민학교(302쪽), 터진목(339쪽), 백조일손지묘(393쪽)

2.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거나 관련된 제주도 내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소의 역사성, 보존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다크투어의 개념에 부합되는 조사 대상 유적지 100곳을 선정했다. 1932년 벌어진 구좌 해녀항일 운동, 1930년대 알뜨르비행장 건설과 그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강제노역,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의 발포사건으로 시작되는 제주4·3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직접적으로 벌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기억 공간 또한 이번 조사에 포함했다.

2) 조사 방법

다음과 같은 주요 문헌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유적지의 위치와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마을 향토지, 유적지 관련 책자 등을 참고했다.

보고서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제주4·3평화재단, 2019
- 『제주4·3 유적 I (제주시)』(개정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연구소, 2018
- 『제주4·3 유적 II (서귀포시)』(개정증보판),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연구소, 2019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연구소, 2019

단행본

- 『4·3은 말한다』 제1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 『4·3은 말한다』 제2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 『4·3은 말한다』 제3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5
- 『4·3은 말한다』 제4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7
- 『4·3은 말한다』 제5권, 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현장조사에서는 유적지 안내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유적지 및 안내판의 위치(위도, 경도, 주소)를 확인했다. 보고서 본문에는 위성지도와 결합한 지적도를 기재했다. 지적도는 토지를 세분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은 것인데 이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사 당시 토지(유적 장소)의 용도를 기록함과 동시에 사유지의 경우에는 매입 필요 토지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 본 조사에서는 지적도를 사용했다.

유적지 안내판이 있는 경우, 유적지 안내판의 내용을 기록했다. 유적지에 오탈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기록하여 사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했다. 또한 제주4·3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했는지,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안내판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고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점검했다.

-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 코드가 있는가?
-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제주4·3 등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 안내판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

-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유적지 주소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를 확인하고 향후 도나 민간 차원에서 이를 매입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했다.

3. 조사 결과

100곳의 유적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7개로 유형화했다. 대다수의 유적지들이 관리 주체나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내용의 오류,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수 없었다.

1) 유적지 안내판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

현재 다크투어 유적지로 알려진 곳 가운데 안내판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는 다수 발견되었다. (사)제주다크투어가 조사한 100곳의 유적지 중 28곳에는 유적지 안내판이 부재했다. 대표적으로 제주4·3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발표사건이 일어난 관덕정에는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 당시 관덕정의 건축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4·3 당시 대표적 학살터인 제주국제공항에도 4·3에 대해 알리는 안내판이 없다. 공항 안쪽에 유해 발굴 당시 만든 표석이 있기는 하나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내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구분	유적지 수(비율)	비고
안내판 있음	73	
안내판 없음	27	<p>제주시 동지역 제주시민회관 미CIC방첩단 옛터 제주도립병원 옛터 제주경찰감찰청 옛터 서북청년단 본부 옛터 제주비행장 제주신보사 옛터 조일구락부 옛터 선홍 불카분당 삼양지서 옛터</p> <p>제주시 한림읍 한림어업창고 옛터 다케나카 통조림공장 옛터</p> <p>제주시 조천읍 조천중학원 옛터 조천지서 앞밭 조천 민간인수용소 옛터</p> <p>제주시 애월읍 하귀중학원 옛터 비학동산(현 학원동민회관) 육시우영</p> <p>서귀포시 성산읍 우뭇개동산 서청특별중대 옛터(성산국민학교 옛 건물)</p> <p>서귀포시 동지역 중문서북청년단 사무실 옛터 중문지서 옛터 시오름주둔소 단추공장 옛터 법환리 4·3성터</p> <p>서귀포시 표선면 버들못</p> <p>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지서 옛터</p>
합계	100	

2) 역사적 사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재한 안내판도 있었다.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유적인 알뜨르비행장 안내판에는 “1926년부터 10년 동안 건설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알뜨르비행장은 1931년부터 건설되었다.

또 성산지서 옛터의 경우 경찰서로 승격된 시기는 1949년 1월이나 안내판에는 1948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역사적 장소가 항일 운동과 4·3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곳(연두망동산, 세화리 주재소 옛터 등)에는 항일 운동과 관련된 내용의 안내판은 있으나 4·3과 관련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와흘굴이나 큰곶검혈굴의 경우에도 해당 굴이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설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주 역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폭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안내판도 있었다. (옛 지서 터에 세워진 비석 등) 이러한 안내판에는 군경토벌대가 주민들을 감금, 취조, 학살한 국가폭력의 역사는 기술되지 않았다. 사전적 의미의 ‘폭도’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제주4·3의 성격을 ‘폭동’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국가 보고서에 맞춰 안내판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3) 오탈자 및 번역 오류가 있는 경우

유적지 안내판에 단순 오탈자는 물론, 번역 오류도 적지 않았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생이뭇의 경우, 한글 안내는 제대로 되어 있으나 영문 안내는 다른 유적지(오소록이 마을)의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임문숙 일가 헛묘(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경우 헛묘를 ‘Fake Tomb’라고 번역하여 표현했다. Fake는 ‘가짜의, 거짓된’이라는 뜻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헛묘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번역이다. 이외에도 영어 철자 오류, 문법 오류를 비롯해 한국어 비문도 다수 발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영어 안내판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안내판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주의 역사를 더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판도 설치되어야 한다.

4) 인권·젠더·평화 감수성이 부재한 경우

인권·젠더·평화 감수성이 부재한 안내판도 찾아볼 수 있었다. 금악리 오소록이 마을의 경우 토벌대에 쫓기는 주민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젓먹이를 안은 19세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사건의 비극성을 극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하지만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성(젠더)을 부각하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방문객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5) 유적지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유적지 안내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내판의 기능을 상실한 곳도 있었다. 제주도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초록색 4·3 안내판의 경우 시간이 지나자 안내판 필름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안내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보존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유적지 관리 주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6) 유적지 안내판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유적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세워져 해당 유적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구좌읍 동북리 낸시빌레의 경우 실제 유적지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140여 미터가 떨어져 있고 안내판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표기하지 않아서 안내판만 보고는 유적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빌레못굴이나 큰곶검혈굴, 교래 북반친발 등의 경우 큰 길가에서 유적지까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처음 유적지를 찾는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7) 관광약자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이동약자의 정보 접근권이 고려되지 않은 유적지 안내판이 절대다수였다. 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노약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유적지 안내판 앞에 진입로(경사로)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유적지도 많아 이동약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유적지 특성상 따로 진입로를 만들기 어렵다면 이동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유적지 사진과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관광약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제언

이번 유적지 안내판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유적지 및 유적지 관리체계 개선

첫째, 관련 부서의 유적지 및 유적지 안내판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4·3유적지보존위원회심의위원회(소관부서 4·3지원과)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보존이 필요한 주요 유적지 선정 등 계획 수립에 국한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적지 안내판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도 수립해 유적지 안내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도민들로부터 안내판 오류, 관리 상태 등을 제보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도민참여형 다크투어 유적지 안내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유적지 안내판 설치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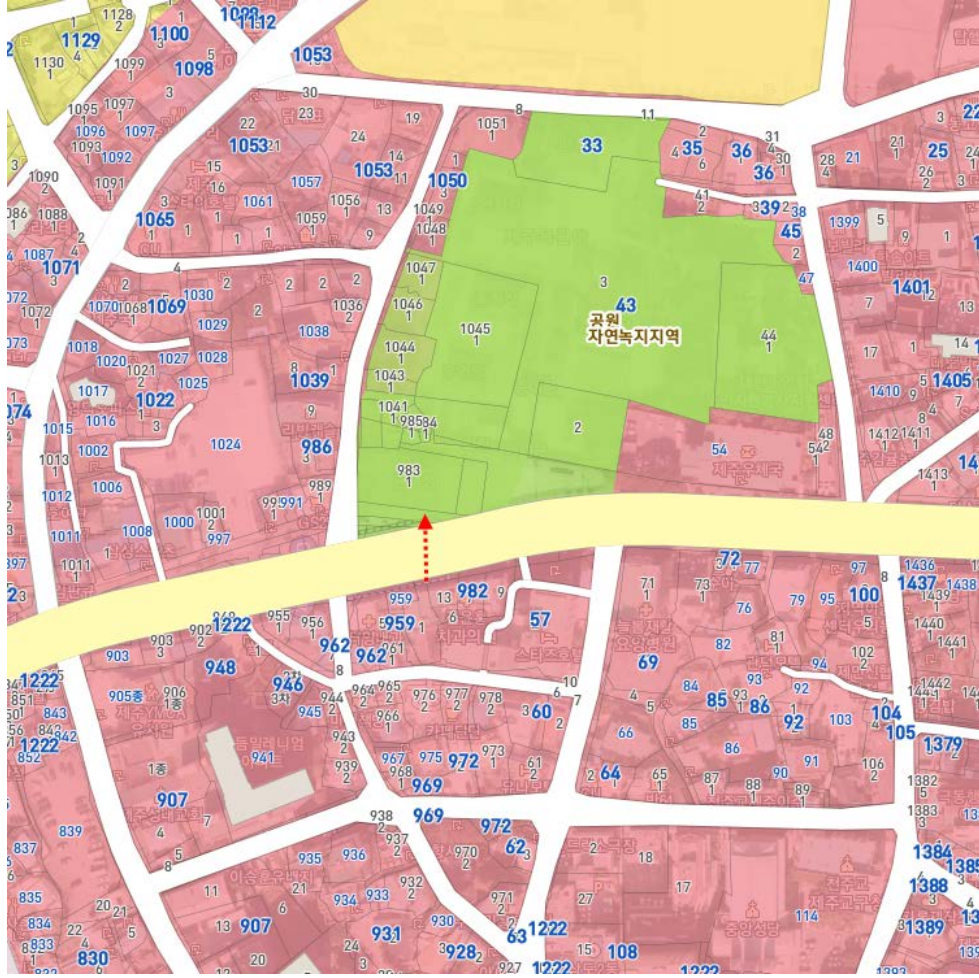
도에서 세우는 안내판의 경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인권·평화·젠더 감수성 및 관광약자 정보 접근권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적지 안내판을 심의하는 위원회에는 역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권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설치되었는지,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었는지,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오류는 없는지,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을 갖춘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역사적 사실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적지 및 유적지 안내판 공유 방안 마련

제주도 내 다크투어 유적지와 유적지 안내판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2020년 들어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록된 제주의 인문사회, 역사적 자원들을 개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지석, 물리적 안내판과 같은 기존의 방식뿐만 아니라 웹지도, e-book, 증강현실 안내판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제주시 동지역

관덕정 광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9(삼도이동)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136572, 126.521839</p> 
조사일	2020. 9. 29. (화)
유적지 개요	<p>1947년 3월 1일 3·1 발포사건이 있었던 현장. 이날 북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참가자들이 동서로 나뉘어 시위를 전개했음. 서쪽 행렬이 관덕정 앞을 빠져나갈 즈음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치였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림. 이에 격분한 군중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그 결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사상 초유의 3.10 민관총파업이 일어났고 이는 4·3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음.</p> <p>관덕정은 1448년(세종 30년) 목사 신숙청 때 군사훈련 목적으로 세워졌음. 이후 관민이 함께 공사를 의논하거나 때로는 죄인을 다스리는 곳으로 쓰여졌음. 1947년 3·1절 기념대회 때는 이곳에 제주경찰감찰청 제1구경찰서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과 세무서도 있었음.</p>
유적지 안내판	[한글]

설명1

관덕정(Gwandeokjeong Pavilion)

보물 제322호, 소재지 : 제주시 삼도2동

관덕정은 조선 세종 때인 1448년 안무사 신숙청이 병사들을 훈련 시키기 위해 세운 제주도의 대표적 건물로서, 제주목 관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건립 이후 그 원형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수리되어 오던 중 일제강점기인 1924년 일본인이 수리하면서 지붕처마가 2척 정도 잘려 변형되었으나 2006년 보수를 통해 원래의 모습을 다시 찾았다.

‘관덕’이란 명칭은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라는 예기(禮記)의 내용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평소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쌓는다.’는 뜻이며 문무(文武)의 올바른 정신을 본받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영문]

Gwandeokjeong Pavilion

Treasure No.322, Location : Samdo-2-dong, Jeju-si

Gwandeokjeong Pavilion was built in 1448 under the leadership of the local officer Sin Suk-ch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pavilion was part of the Jeju administrative complex and used as a military facility from which commanders gave orders. Its original form had been maintained until 1924, At the time the Japanese deformed the structure by shortening the eaves by two ft. during their repair work. But the pavilion was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us in 2006.

The word Gwandeok comes from a Chinese classic on rites. The name emphasizes that you should try to train your body and mind every day in order to obtain virtue. It reflects our ancestors' endeavors to live a righteous live by upholding both the physical and mental virtues.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 평화, 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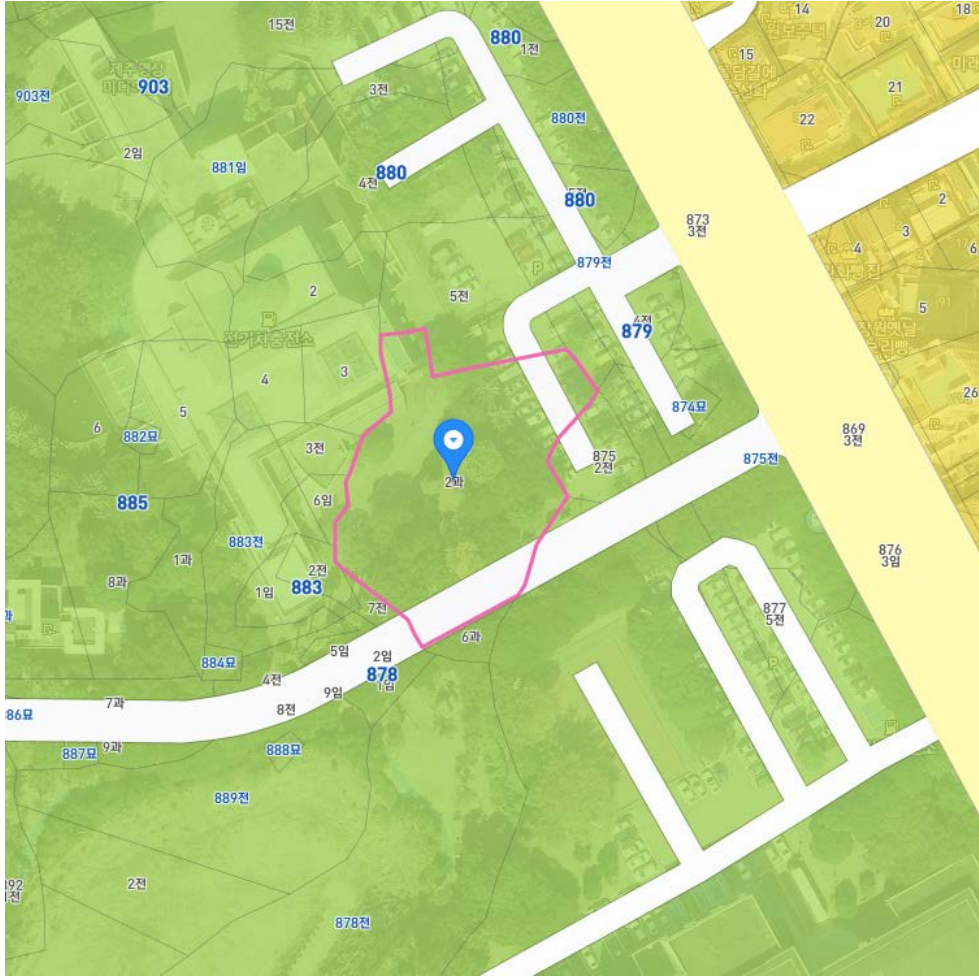
2) 문제점

- 관덕정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만큼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임. 관덕정 일대에서 4·3의 도화선이 되었던 3·1 발포사건이 벌어졌고,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 청년동맹이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음. 그러나 관덕정 안내판에서 4·3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 유적지 안내판(표지석)의 상태가 양호하지만 설립 주체,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후 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이를 알릴 방법이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안내판에 접근하기 위한 휠체어용 경사로가 마련되지 않아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움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2019.12)도 중요한 유적지로 선정하고 표석, 안내판 조성을 지적하고 있음. 제주4·3 당시 관덕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보강된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당시 관덕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같이 전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임.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4·3 관련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마련하거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4·3해원방사탑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879-2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05401, 126.534483</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1998년 4월 3일 4·3 50주년을 맞아 ‘제50주년 제주4·3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한 탑. 4·3과 같은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뜻을 모아 세워짐. 탑에 들어간 돌은 시민사회단체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다짐하며 제주섬 곳곳에서 하나씩 모은 것이라고 함.</p>

유적지 안내판
설명

[한글]
4·3 해원 방사탑을 쌓으며
예로부터 제주에는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방사탑을 쌓아 나쁜 기운을
막는 풍습이 있어 왔다. 이에 우리는 4·3 50주년을 맞아 부정을 막고, 원혼을
위무하며,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4·3 해원 방사탑을 세운다.
이 탑이 이 고장 제주도에 다시는 죽임의 광풍이 불지 않게 하는 방사의 탑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조상의 한을 풀어주는 해원의 탑으로 더불어 살며 평화의
미래를 가꾸는 상생의 탑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원하며 4월 3일 돌을 쌓기 시작하여
4월 18일 탑을 완성하다.
1998년 4월 18일
제50주년 제주 4·3학술 문화사업 추진위원회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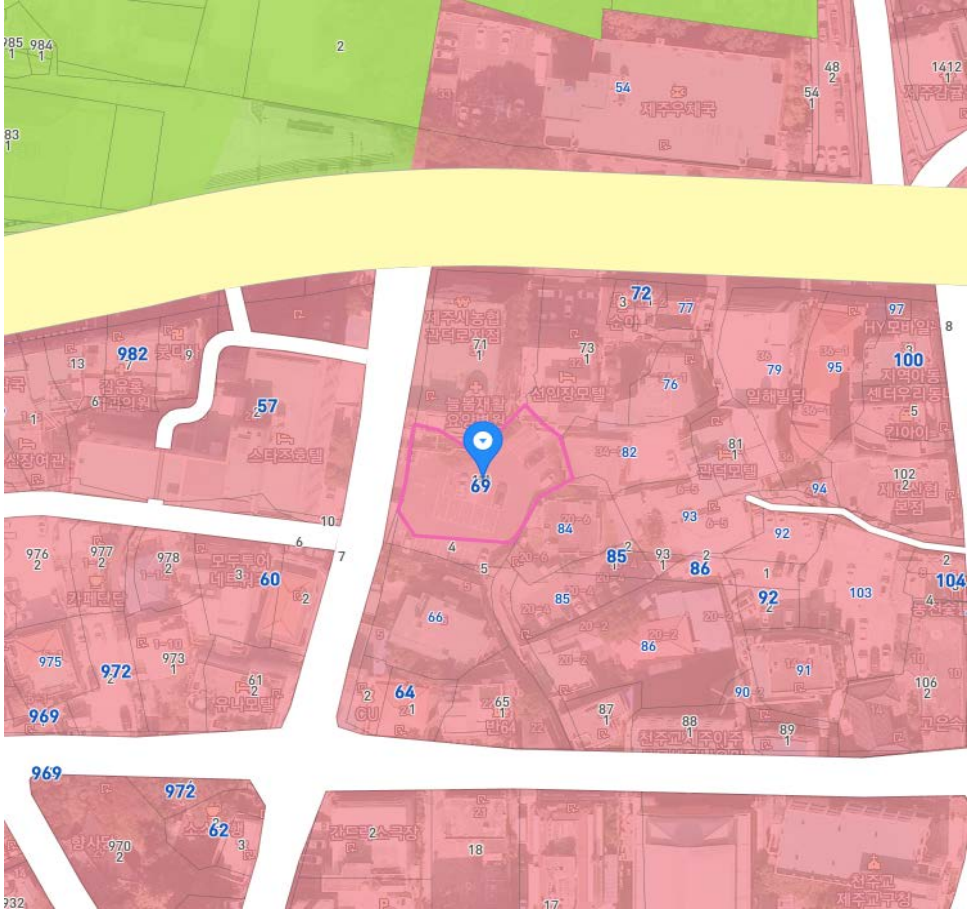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방사탑의 의미와 취지는 표지석에 잘드러나 있으나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세워진 이 방사탑을 통해 시민사회가 벌인 진상규명의 노력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미CIC방첩단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69-1
위치(위경도)	<p>33.512688, 126.522404</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1947년 3월 중순부터 미 육군 CIC(방첩대 Counter Intelligence Corps) 제주사무소가 있었던 곳. CIC는 주한미군 전투부대인 24군단에 소속된 정보기관으로 첩보, 정보 수집, 정치 지도자와 미국인에 대한 사찰을 하는 기관이었음. 남한에는 1947년 5월 당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9개소에 지구대가 설치됨. 당시 정치단체의 움직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정보보고서를 보면 단순한 사건 분석 보고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도와 역학까지 분석하며 상황에 따라 개입해 온 사실이 드러남. 현재는 인근 숙박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주식회사모두 투어네트워크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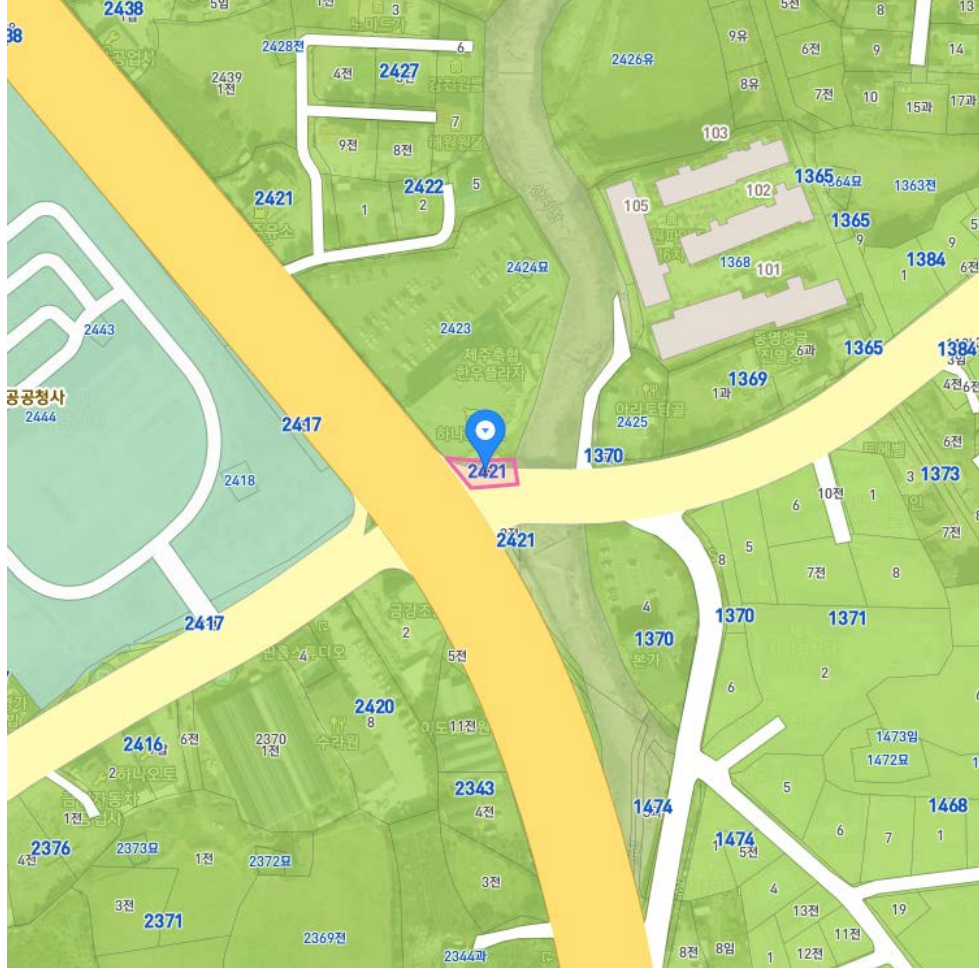
2) 문제점

- 미CIC(방첩단)는 조천지서 김용철 고문치사 부검 등 제주4·3의 주요 사건에 개입했을 정도로 제주도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기관임. 현재는 빈터만 남아있고 안내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CIC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제주4·3에 있어 미국의 책임을 묻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미CIC 방첩단 옛터를 제주시 원도심지역의 주요한 유적지로서 인지하고 해당 유적지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박성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2동 2421-3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85650, 126.543033</p> 
조사일	2020.9. 29(화)
유적지 개요	<p>초토화 작전(1948년 11월 이후) 시기 제9연대는 조천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수공작'을 펼침. 토벌대는 "자수하면 살려주지만 나중에 발각되면 총살을 면하지 못한다. 이미 '관련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민들을 협박했음. 이 작전으로 군부대나 경찰에 자수 형식으로 출두한 청년들은 함덕리 부대본부인 국민학교의 교실이나 운동장 천막에 수감됨. 그리고 이 중 100여 명은 제주 농업학교에 이송됐다가 박성내에서 집단 총살되었음. 안내판은 제주여자고등학교 입구에서 아라중학교 방향으로 들어서는 하천에 있는 '박석교'라는 다리 위에 설치.</p>
안내판 설명1	<p>[한글] 4·3 유적지 박성내 소재지 : 제주시 아라2동 2425번지 일대 박성내는 4·3 당시 토벌부대인 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일상적인 학살터였다. 토벌대는 1948년 11월 이후 이곳에서 주민들은 자주 처형했다. 그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2월 21일 조천면 일대 주민 100여 명이 집단 학살된 이른바 '자수사건'이었다.</p>

1948년 11월 이후 제주도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토벌대에 의해 불탔다. 이때 산으로 피신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해변마을로 내려가라는 토벌대의 명령에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다. 1948년 12월 중순, 토벌대가 조천면의 해변마을을 돌며 “좁쌀 한 줌이라도 산에 올린 사람은 자수하라, 그러면 양민증을 발급할 것이다!”라고 선전했다. 이에 중산간 마을에서 피난 온 주민은 물론 해변마을에 거주하던 젊은 남자들이 너도 나도 자수대열에 합류했다. 조천면 일대는 무장대의 세력이 비교적 강하여, 자의든 타의든 조금씩의 협조를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2주일 뒤인 12월 21일 이곳에서 집단 총살당했다. 토벌대는 시신 위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질러버렸다. 박성내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으로 남아있는 곳이지만 현재 그 아픔을 증언하는 현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영문]

The April Third Uprising Historical Site

Bakseongnae

Location : 2425, Ara2-dong, Jeju City

Bakseongnae Stream was an often used site for executions by the 9th Regiment of Korean Constabulary, which was the security force during the April Third Uprising. The security force had often executed people here starting in November 1948. The most tragic incident was the 'Voluntary Surrender Incident' in which approximately 100 residents in Jocheon-myeon were killed on December 21, 1948.

Starting in November 1948, the security force had burned most of the mountain villages on Jeju Island. During that time, some villagers escaped to the mountain while others followed the command of the security force to come down to the coast villages. In mid-December 1948, the security circulated through the coast villages in Jocheon-myeon campaigning, "Surrender voluntarily even if you supplied a very small portion of rice to the guerrillas. Then, you will get the I.D. card proving innocent citizen." As a result, refugees from mountain villages, as well as young men in the coast villages, voluntarily surrendered. In Jocheon-myeon, the power of the armed guerrillas was relatively strong. So, they sometimes could not help collaborating with them. However, 2 weeks later, on December 21, the villagers were executed here. The security force burned the corpses,

Bakseongnae is still a nightmare to those who remember what happened here. However, there are no traces left of the tragic events, which would serve to bear witness to the pain.



박성내

소재지 : 제주시 아라2동 2425번지 일대

박성내는 4·3 당시 토벌부대인 국병경비대 제9연대의 일상적인 학살터였다. 토벌대는 1948년 11월 이후 이곳에서 주민들을 자주 처형했다. 그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2월 21일 조천면 일대 주민 100여 명이 집단 학살된 이른바 '저수사건'이었다.

1948년 11월 이후 제주도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토벌대에 의해 불탔다. 이때 산으로 피신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해변마을로 내려가려는 토벌대의 명령에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다. 1948년 12월 중순, 토벌대가 조천면의 해변마을을 둘러 '좁쌀 한 줌이라도 산에 올린 사람은 저수하라, 그러면 양민증을 발급할 것이다'라고 선전했다. 이에 중산간 마을에서 피난 온 주민은 물론 해변마을에 거주하던 젊은 남자들이 너도 나도 저수대에일에 합류했다. 조천면 일대는 무장대의 세력이 비교적 강하여, 자의든 타의든 조금씩의 협조를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2주일 뒤인 12월 21일 이곳에서 집단 총살당했다. 토벌대는 시신 위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질러버렸다.

박성내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으로 남아있는 곳이지만 현재 그 이름을 증언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4·3 유적지

The April Third Uprising Historical Site

Bakseongn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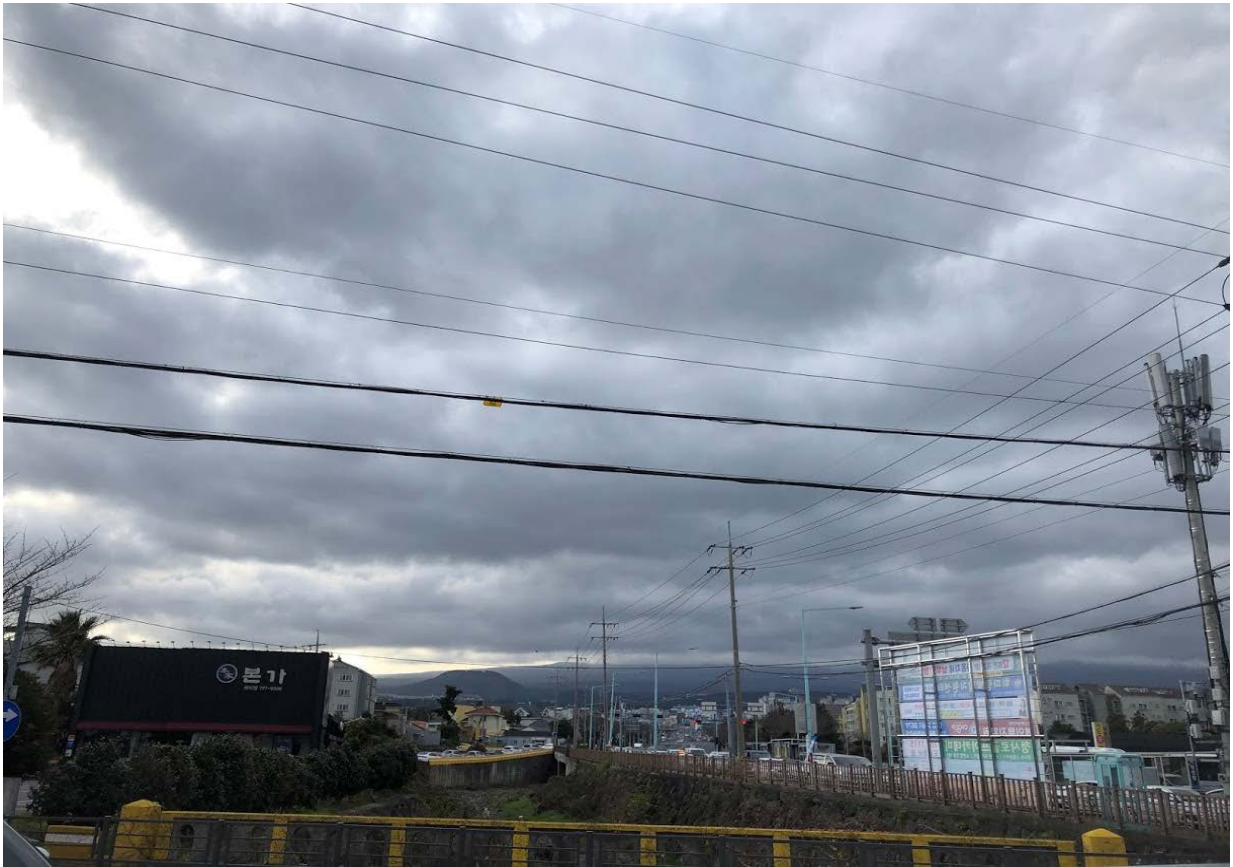
Location: 2425, Ara2-dong, Jeju City

Bakseongnae Stream was an often used site for executions by the 9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which was the security force during the April Third Uprising. The security force had often executed people here starting in November 1948. The most tragic incident was the 'Voluntary Surrender Incident' in which approximately 100 residents in Jocheon-myeon were killed on December 21, 1948.

Starting in November 1948, the security force had burned most of the mountain villages on Jeju Island. During that time, some villagers escaped to the mountain while others followed the command of the security force to come down to the coast villages. In mid-December 1948, the security force circulated through the coast villages in Jocheon-myeon campaigning, "Surrender voluntarily even if you supplied a very small portion of rice to the guerrillas. Then, you will get the I.D. card proving innocent citizen." As a result, refugees from mountain villages, as well as young men in the coast villages, voluntarily surrendered. In Jocheon-myeon, the power of the armed guerrillas was relatively strong. So, they sometimes could not help collaborating with them. However, 2 weeks later, on December 21, the villagers were executed here. The security force burned the corpses.

Bakseongnae is still a nightmare to those who remember what happened here. However, there are no traces left of the tragic events, which would serve to bear witness to the pain.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영문 오타자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가 부재함.
- 안내판 오타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안내판 설명에 한글 맞춤법, 영단어 철자 등의 오류가 있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영어 단어 철자오류는 다음과 같이 수정함.

기존안	수정안
Starting in November 1948, the securitye force had burned most of the mountain villages on Jeju Island.	Starting in November 1948, the security force had burned most of the mountain villages on Jeju Island.

서북청년단 제주도본부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48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14103, 126.524570</p> 
조사일	2020. 9. 29.(화)
유적지 개요	<p>서북청년단 제주도본부가 있던 곳. 1947년 3월 10일 총파업 이후 사퇴한 박경훈 제주도지사의 후임으로 유해진이 취임하며 그를 경호할 목적으로 10여 명이 입도한 것이 시작임. 총파업 이후 미군정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낙인찍은 후 서청단원들을 민간인 신분 혹은 군경토벌대 신분으로 제주로 보냄. 이들은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고 제주도민들의 재산을 탈취함. 1949년 2월에는 제주도의 유일한 언론 매체였던 제주신보도 빼앗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김*범, 고*정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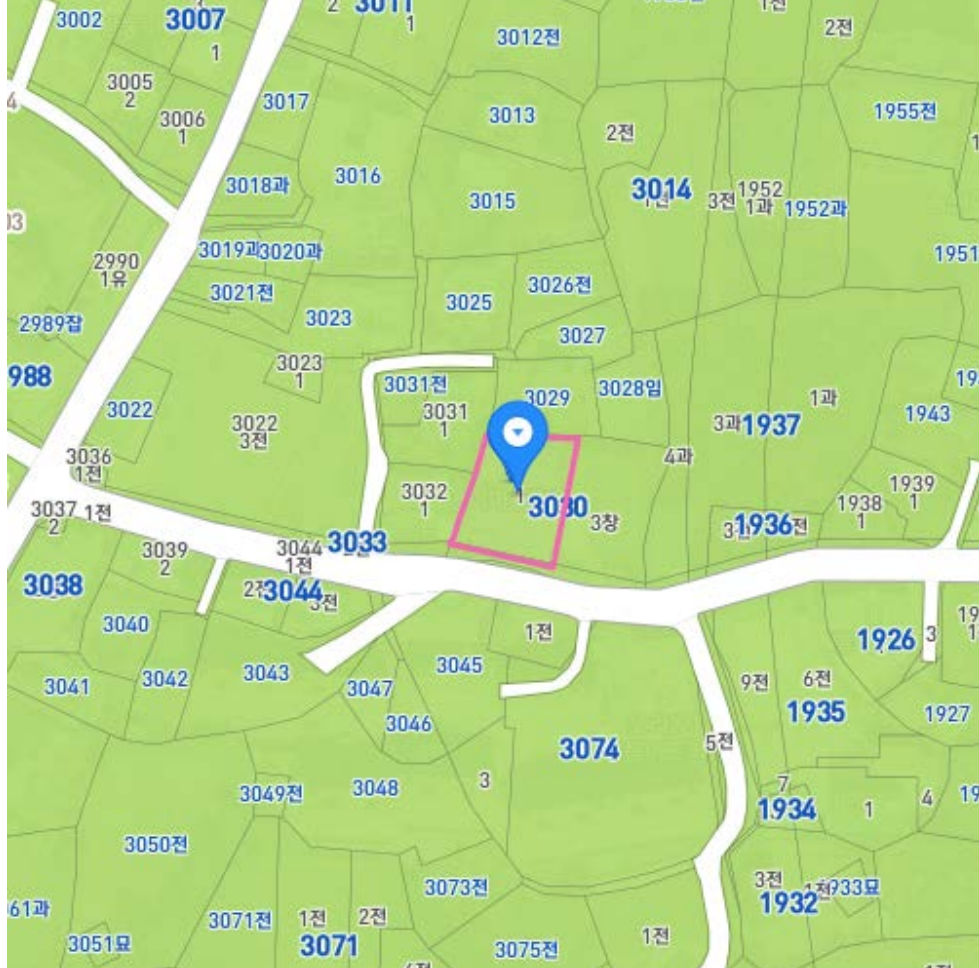
2) 문제점

- 서북청년단은 제주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한 집단으로, 미군정이 제주도민 탄압을 위해 이용한 ‘용병’이었음. 제주시내 원도심 지역에 주둔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집단의 흔적을 기록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서북청년단 제주도본부를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주요한 유적지로서 기록하고 해당 유적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오라국민학교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030-1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86699, 126.505402</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1946년 2월 1일 설립된 오라국민학교는 연미마을에서 일어난 제2차 방화사건¹ 때인 1949년 1월 21일 토벌대에 의해 전소됨. 이로 인해 교원 명부, 학생생활기록부 등이 소실됨. 학교는 4·3 당시 2000평 정도의 부지에 본관(4개 교실) 1동, 향사 건물(40평 정도) 1동 등 3개 동의 시설로 되어있었다고 함. 학교는 폐교되었다가 이후 현재 오라초등학교 위치에서 재개교됨. 한때 무장을 한 서북청년단이 학교에 주둔하기도 함.</p> <p>현재 이곳에는 연미마을회관이 들어섰으며, 4·3의 전개 방향의 큰 영향을 미친 ‘오라리 방화사건’에 대한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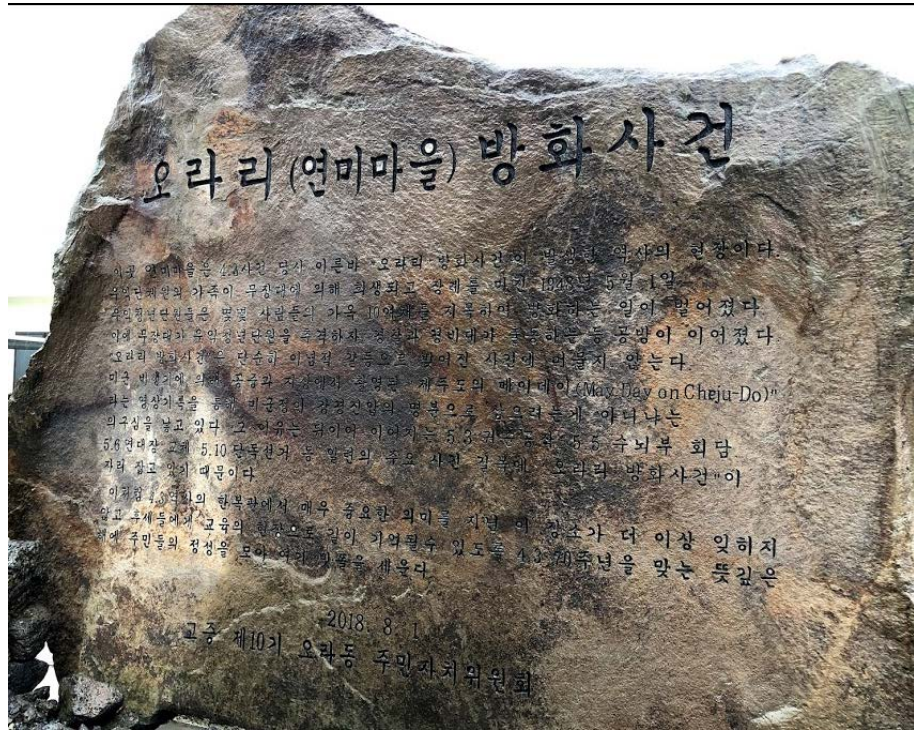
¹ 『4·3은 말한다』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미마을에서는 4·3 동안 최소 3차례의 방화가 있었음. 첫 방화는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불리는 1948년 5월 1일에 발생한 방화사건이며, 두번째는 토벌대에 의해 1948년 11월 9일 발생한 방화임. 마지막 세번째는 1949년 1월 21일 발생한 방화사건임. 『제주4·3 유적 1 제주시 개정증보판』에 인용된 「제주 4·3 교육계 피해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오라국민)학교는 마을의 2차 방화 때인 1948년 음력 12월 23일(양력 1949년 1월 21일)에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다고 나옴. 1차 방화사건이 1948년 5월 1일 방화인지, 1948년 11월 9일인지는 정확하지 않음.

	<p>한편 ‘오라리 방화사건’은 1948년 5월 1일 낮 시간대에 오라리 연미마을에 우익청년단원들이 들이닥쳐 민가 10여채를 태운 사건임. 당시 경찰은 이를 인민유격대의 행위라고 미군정에 거짓으로 보고했음. 이로 인해 국방경비대(지금의 군대) 제9연대와 무장대 사이에 진행 중이던 ‘4·28평화협정’이 결렬됐음. 이는 이후 미군정과 군.경 토벌대가 벌이는 강경진압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됨.</p>
<p>유적지 안내판 설명1</p>	<p>[한글] 옛 배움의 터전 (옛 오라공립국민학교 터) 오라동에 학교가 없어 배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배우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 마을 유지들이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1946년 2월 1일 이 곳에 “오라공립국민학교”를 개교하였다. 그러나 4·3 사건의 발발로 학교가 불타고 교직원이 순직하는 비운을 당하자 1948년 12월 6일 자진 폐교하게 되었으며 그 후 오라2동 1380번지(현 오라초등학교 부지)로 옮겨 “제주남국민학교오라분교” 인가 과정을 거친 후 1951년 9월 14일 “오라국민학교”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p> <p>[영문] 없음</p> 
<p>유적지 안내판 설명2</p>	<p>[한글] 오라리(연미마을) 방화사건 이곳 연미마을 4·3사건 당시 이른바 “오라리 방화사건이 발생한 역사의 현장이다. 우익단체원의 가족이 무장대에 의해 희생되고 장례를 마친 1948년 5월 1일 우익청년단원들은 몇몇 사람들의 가옥 10여채를 지목하여 방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무장대가 우익청년단원을 추격하자 경찰과 경비대가 출동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오라리 방화사건”은 단순히 이념적 갈등으로 빚어진 사건에 머물지 않는다. 미군 비행기에 의해 공중과 지상에서 촬영된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영상기록을 통해 미군정이 강경진압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그 이유는 뒤이어 이어지는 5.3귀순공작, 5.5수뇌부 회담, 5.6연대장 교체, 5.10단독선거 등 일련의 주요 사건 길목에 “오라리 방화사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4·3 역사의 한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장소가 더 이상 잊히지</p>

앞고 후세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4·3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여기 빗돌을 세운다.

2018. 8. 1
고증 제10기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3(앞면)

[한글] 오라동 4·3길
불탄옛집 오라동 방화현장 상황도
(그림)

4·3 무장봉기가 일어난 이후 무장대와 경찰로부터 각각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인명 희생 사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4월 29일에는 오라리 마을 대동청년단 부단장과 단원들이 납치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에는 동서간인 대청단원의 부인 2명이 납치됐는데, 두 여인 중 한 명은 맞아 죽고, 한 명은 가까스로 탈출해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오라리에서는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경 전날 무장대에게 살해된 여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부근에서 열렸던 장례식에는 3~4명의 경찰과 서청/대청 단원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끝나자 트럭은 경찰관을 태우고 떠났고, 청년단원들은 그대로 남아 집들을 찾아 다니며 12채의 민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익청년단원들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마을을 벗어난 오후 1시경, 무장대 20명 가량이 총과 죽창을 들고 청년들을 추격했습니다.

급히 피했던터라 청년단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각을 전후해 마을 어귀에서 이 마을 출신 경찰관의 어머니가 피살되었습니다.

4·3 봉기가 일어난 이후 진행중이던 평화협상은 이 방화사건으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이 강경진압작전을 전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만약에 오라동 방화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협상의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7년 7개월의 고통의 세월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오라리 방화사건은 '제주도 메이데이'라는 미국의 기록영화로 그 때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데요.
미군 촬영반에 의해서 입체적으로 촬영이 된 이 영화에서는 미군 비행기를 타고서 마을 공중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리로 진입하는 경찰기동대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4(뒷면)**

[한글] 제주 오라동 4.3길

(지도)

오라동은 제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천의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계곡, 드넓게 펼쳐진 대지에 열안지 오름과 민오름을 겨우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오라리는 4.3 초기부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 피해가 많았다. 1947년 관덕정 일대에서 발생한 '3.1발포사건'의 희생자 6명 중 2명이 오라리 출신이었으며 1948년 4월 한달 동안에 무장대와 경찰에 의한 주민 희생과 납치 등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후 4월 28일 국방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 회담을 갖고 '72시간내 전투 중지' 등 평화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5월 1일 발생한 '오라리 (연미마을) 방화사건'으로 인해 미군정은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미군 촬영반은 이 사건을 비행기와 지상에서 촬영했다.

이 영상은 '제주도의 메이데이'라는 제목으로 제주 4.3사건의 초기 상황을 다룬 유일한 영상기록으로 남아 있다.

오라동은 4.3의 전개 과정에서 주민 240여명이 희생되었으며 어우늘, 해산이, 고지레, 산달뱅디 마을 등은 복구되지 못한 채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오라동 4.3길을 둘러보면서 4.3 당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고통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마을에 새겼으면 한다.

[영문]

Ora-dong situated now at the center of the Jeju City administrative area boasts of natural environment, embracing the lush forests and beautiful valleys of Hancheon Stream, wide open fields, and Yeol-anji Oreum and Min Oreum.

Ora-ri suffered great loss from the onset of the April 3rd Incident. Two of the six shot dead during the March 1st Firing Incident that took place at Gwandeokjeong Pavilion in 1947 were from Ora-ri. Civilian deaths or abduction by armed civilian groups and the government police continued in April 1948. On April 28, Colonel Kim Ik-ryeol, commander of the 9th Regiment in charge of Jeju and Kim Dal-Sam, commander of the armed civilian groups, held a peace negotiation for termination of the battle within 72 hours. However,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turned to take a hard line approach with the “Ora-ri(Yeon-mi Village) arson incident” on May 1st. A US Army video recording team filmed the incident on the ground and from the air. This video, titles “May Day on Cheju-do,” is the only remaining video record showing the early days of the April 3rd Incident in Jeju.

More than 240 Ora-dong residents overall lost their lives during the Jeju April 3rd incident, and several villages including Eouneul, Haesani, Gojire and Seondal-baengdui were left in ruins. We hope that 4·3-gil built in Ora-dong will be an invaluable place for visitors to sympathize with the suffering of the villagers who stood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to remember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human rights.

오라동은 제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천의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계곡, 드넓게 펼쳐진 대지에 일안지 오름과 민오름을 끼안아 친혜의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오라리는 4·3 초기부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 피해가 많았다. 1947년 관덕정 일대에서 발생한 '3·1발포사건'의 희생자 6명 중 2명이 오라리 출신이었으며 1948년 4월 한달 동안에 무장대와 경찰에 의한 주민 희생과 납치 등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후 4월 28일 국방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이 회담을 갖고 '72시간내 전투 중지' 등 평화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5월 1일 발생한 '오라리(연미마을) 방화사건'으로 인해 미군정은 강경모드로 전환하였다.
 미군 촬영반은 이 사건을 비행기와 지상에서 촬영했다.
 이 영상은 '제주도의 메이데이'라는 제목으로 제주4·3사건의 초기 상황을 다룬 유일한 영상기록으로 남아 있다.
 오라동은 4·3의 전개 과정에서 주민 240여명이 희생 되었으며 어우늘, 해산이, 고지래, 선달병두 마을 등은 복구되지 못한 채 일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오라동 4·3길을 둘러보면서 4·3 당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고통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Ora-dong, situated now at the center of the Jeju City administrative area, boasts of natural environment, embracing the lush forests and beautiful valleys of Hancheon Stream, wide open fields, and Yeol-anji Oreum and Min Oreum.
 Ora-ri suffered great loss from the onset of the April 3rd Incident. Two of the six shot dead during the March 1st Firing Incident that took place at Gwandeokjeong Pavilion in 1947 were from Ora-ri. Civilian deaths or abduction by armed civilian groups and the government police continued in April 1948. On April 28, Colonel Kim Ik-ryeol, commander of the 9th Regiment in charge of Jeju and Kim Dal-Sam, commander of the armed civilian groups, held a peace negotiation for termination of the battle within 72 hours. However,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turned to take a hard line approach with the "Ora-ri (Yeon-mi Village) arson incident" on May 1st. A US Army video recording team filmed the incident on the ground and from the air. This video, titled "May Day on Cheju-do," is the only remaining video record showing the early days of the April 3rd Incident in Jeju.
 More than 240 Ora-dong residents overall lost their lives during the Jeju April 3rd incident, and several villages including Eouneul, Haesani, Gojire and Seondal-baengdui were left in ruins. We hope that 4·3-gil built in Ora-dong will be an invaluable place for visitors to sympathize with the suffering of the villagers who stood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to remember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human rights.

吾羅洞位于济州市中心，有汉川茂密的森林与风光美丽的溪谷，宽阔的土地上坐落着列厚官和敏岳，得天独厚的自然环抱景色宜人。吾羅里自4·3初期就发生了多起事件受害严重。1947年在观德亭一带发生的“3·1枪击事件”导致六人遇难，其中两人是吾羅里居民。1948年4月，武装队和警察的对峙引发了村民死伤及绑架等多起事件。此后，4月28日，国防警卫队第九联队长金益烈与武装队负责人金达三举行会谈，达成“72小时休战”等和平协议。但5月1日发生的“吾羅村(演味村)纵火事件”致使美军转变态度并采取强硬对策。美军摄影队分别在空中和地面上对这一事件进行了拍摄。这段以“济州岛的五月”为标题的录像，是济州4·3事件初期状况的唯一影像记录。吾羅洞在4·3事件中共有240余名居民遇难。原勿奴尔(首露)、海三莫(曹译)、高基基(曹译)及葛地伯面(曹译)等村至今未复原貌，成为被遗忘的村庄。漫步在吾羅洞4·3路上，回顾4·3当时村民站在生死歧路经历的那段举国哀痛的岁月，希望每个人都能铭记和平与人权的普遍价值。

吾羅洞は濟州市の中心部に位置する。漢川の生い茂る森や美しい溪谷、広い大地にはヨラソジ(列厚官)オウルム(オウルムは小規模の火山を意味する濟州の方言)とミンオウルムがあり、天恵の自然環境を得る。
 吾羅里では4·3事件の発生直後から様々な事件が起き、多くの被害が出た。1947年に観徳亭の周辺で発生した「3・1発砲事件」の犠牲者6人のうち2人が吾羅里の出身だった。1948年4月の一か月間に、武装隊と警察によって住民が拉致され、犠牲者が出るなどの被害が相次いだ。
 4月28日、国防警備隊の第9連隊長であった金益烈と武装隊の総責任者であった金達三が会談を持ち、「72時間以内に戦闘中止」などの平和交渉を進めた。5月1日に発生した「吾羅里(演味マウル)の放火事件」により、米軍は強硬な姿勢に転じた。米軍の撮影チームはこの事件を飛行機で空中から、また地上でも撮影した。この映像は「濟州島のメイデー」というタイトルで、濟州4·3事件の初期の状況を収めた唯一の映像記録として残されている。
 吾羅洞は4·3事件が展開する過程で240人余りの住民が犠牲になった。オウヌル、ヘサニ、コジレ、ソンドルベンディ村などは破壊されずに、失われた村になった。吾羅洞の4·3道を歩きながら、4·3事件当時、生死の狭間で苦しんだ住民の苦痛の歲月を振り返り、平和と人権に対する普遍的な価値を心に刻んでほしい。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일부 있음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연미마을회관에는 오라국민학교에 대한 설명은 물론, '오라리 방화사건' 등 4·3 당시 오라지역에서 일어난 내용이 안내판으로 정리되어 있음. 당시의 사진과 지도 등이 잘 전시되어 있어 사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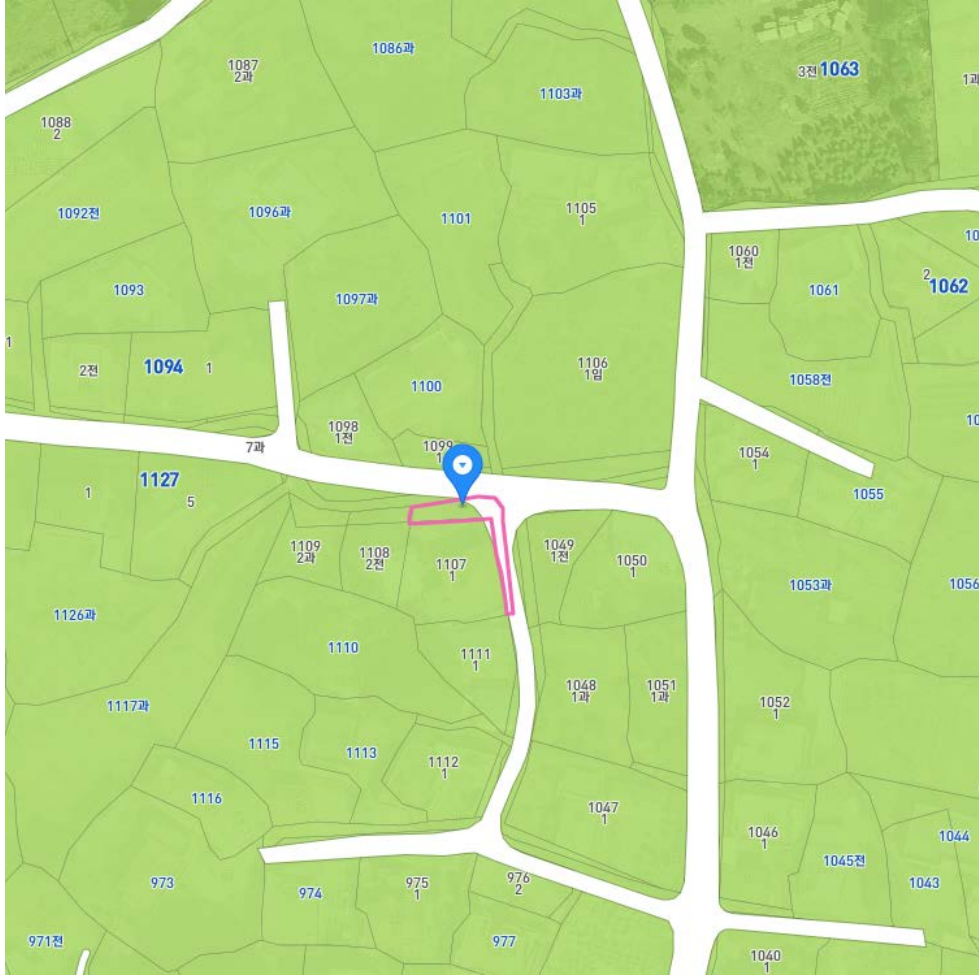
2) 문제점

- 유적지 안내판(표지석)의 상태가 양호하고 설립 주체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차후 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이를 알릴 연락처 등이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안내판 4번의 경우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있으나, 나머지 안내판 1, 2, 3번은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처의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월평마을 4·3성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1107-2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71101, 126.574354</p> 
조사일	2020. 9. 18(금)
유적지 개요	월평리는 1948년 11월 소개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피신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곳임. 다른 마을보다 늦은 1954년이 되어서야 재건이 이뤄짐.
유적지 안내판 설명	<p>[한글] 4·3유적지 월평마을 4·3성 이곳은 제주4·3사건 당시 사방에 흩어져 피신생활을 하던 월평리 주민들이 1945년 10월, 마을 재건을 위해 돌아온 후 산담과 밭담을 등짐으로 날라 성을 쌓은 눈물 아득한 고난의 현장이다. 주민들은 마을 중심부에 둘레 700m, 높이 3m, 폭1m의 성을 쌓아 집단 거주했는데, 축성 작업에는 화북 주민들까지 동원되었다. 남문과 북문 2곳의 출입문을 만들었으며 성담 주변은 시거리 나무를 쌓아 외부에서 접근이 힘들도록 방어망을 설치하기도 했다. 거주공간은 임시로 만든 움막형태의 함바집을 지어 월평리 주민들이 모여들어 함께 거주했다. 마을 재건 이후 주민들은 성을 쌓아 밤낮으로 경계를 서며 생활 했으나, 대부분의</p>

청년이 4·3으로 희생되고, 6·25 한국전쟁 발발로 입대해 버리자 노약자와
부녀자들이 축성과 경비를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고단한 삶을 영위했다.
월평리는 1948년 11월, 마을이 초토화 된 이후 동부8리 대토벌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인근 곳자왓 지대로 대거 피신했으나 토벌대에 발각되어 현장에서
희생되기도 했다. 1949년 봄, 토벌대에 귀순 하여 목숨을 부지한 사람도 있었으나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 불명 된 주민들도 많다.
현재 월평리 4·3성은 마을의 동쪽 끝에 50여m와 마을 안길 서쪽 지점에 5m 정도의
성담이 남아있다.
다시는 4·3사건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표석을 세운다
2014년 12월 일
제주시아라동장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
자문 : 제주4·3평화재단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제주경찰감찰청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20-8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14834, 126.523733</p> 
조사일	2020.9. 29(화)
유적지 개요	<p>제주지방경찰청의 전신인 제주경찰감찰청이 있었던 곳. 제주경찰감찰청은 4·3이 발발하자, 1948년 4월 5일 감찰청 내에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해 초기 진압을 담당했음. 이후 1952년 10월 13일, 인민유격대 소탕을 위해 제100전투경찰사령부(사령관 김원용)를 창설해 후기 진압작전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고*우	
기타			

2) 문제점

- 제주경찰감찰청은 1947년 3월 1일 3·1발포사건을 기점으로 제주도민들을 학살하도록 한 토벌대의 주요한 축임. 이곳에서 제주도민들을 인신구속해 고문 등을 자행하기도 했음. 이 역사적 책임에 대해 기록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제주경찰감찰청 옛터를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주요한 유적지로서 인지하고 해당 유적지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제주농업학교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305-8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04060, 126.522815</p>
조사일	2020.9. 29(화)
유적지 개요	<p>제주농업학교 옛터는 일제 패망 당시 제주도 주둔 일본군 병력 7만여 명에 대한 무장해제와 항복조인식이 이뤄졌던 곳임. 4·3 이후에는 9연대, 11연대, 2연대가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토벌대가 진압작전을 지휘했음. 1948년 7월 22일 9연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제주도민들을 잡아 가두는 천막수용소의 역할도 겸했음. 1948년 6월 18일에는 당시 11연대 총사령관이면서 제주도민들에 대해 강경한 토벌 작전을 벌였던 박진경 대령이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등에 의해 총살된 장소이기도 함.</p>
안내판 설명	<p>[한글] 제주농업고등학교 이전기념비 바로 이 자리는 구한말인 1910년 4월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67년간 내고장 내나라와 내 겨레를 위하여 몸바쳐 봉사한 유능하고 건설한 인재를 수없이 길러낸 제주농업고등학교의 옛터전이다. 제주농업고등학교는 1945년 내나라를 되찾을 때까지는 본도 오직 하나의 중등교육기관이었으며 6.25민족 상잔의 싸움이 한창이던 1951년까지는 또한 본도 오직 하나의 6년제 6학교였다.</p>

시대의 흐름과 나라의 부강은 더욱 넓은 터전 더욱 좋고 훌륭한 교육시설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을 요구하여 1974년 2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따라 제주농업고등학교는 1976년 3월 제주시 노형동 607번지의 10만평의 대지 위에 현대시설을 갖춰 옮겨졌다.

1978년 11월 1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2) 문제점

- 제주농업학교 옛터는 해방 이후 제주에서 한반도 지역과는 별개의 일제 항복조인식이 열렸고 학생들을 주축으로 양과자 반대운동을 벌였던 곳이며, 4·3 대학살의 시기에는 9연대가 주둔하며 제주도민들을 가뒀던 공간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안내판에는 제주4·3 당시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농업학교가 이전되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제주농업학교 옛터는 일제 패망부터 제주4·3까지 많은 이야기가 중첩된 중요한 유적지임. 일제강점기, 제주4·3 당시 제주농업학교의 역사와 역사적 사건 등이 종합적으로 기술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만큼 당시의 사진도 첨부하면 방문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제주도립병원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54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10834, 126.521998</p>
조사일	2020.9. 29(화)
유적지 개요	<p>이곳은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에서의 발포에 이어 2차 발포사건이 있었던 현장임. 관덕정 발포사건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실려온 곳이기도 함. 관덕정 앞에서 총상을 입은 사람 중 4명은 그 앞에서 즉사했고, 2명은 병원에 실려왔으나 끝내 숨졌음. 그 당시 이곳에는 부상당한 경찰이 입원해 있었는데, 관덕정 앞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주민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들어오자 입원해 있던 동료경찰을 경호 중이던 이문규 순경이 공포감을 느껴 발포를 해, 행인 2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짐.</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교육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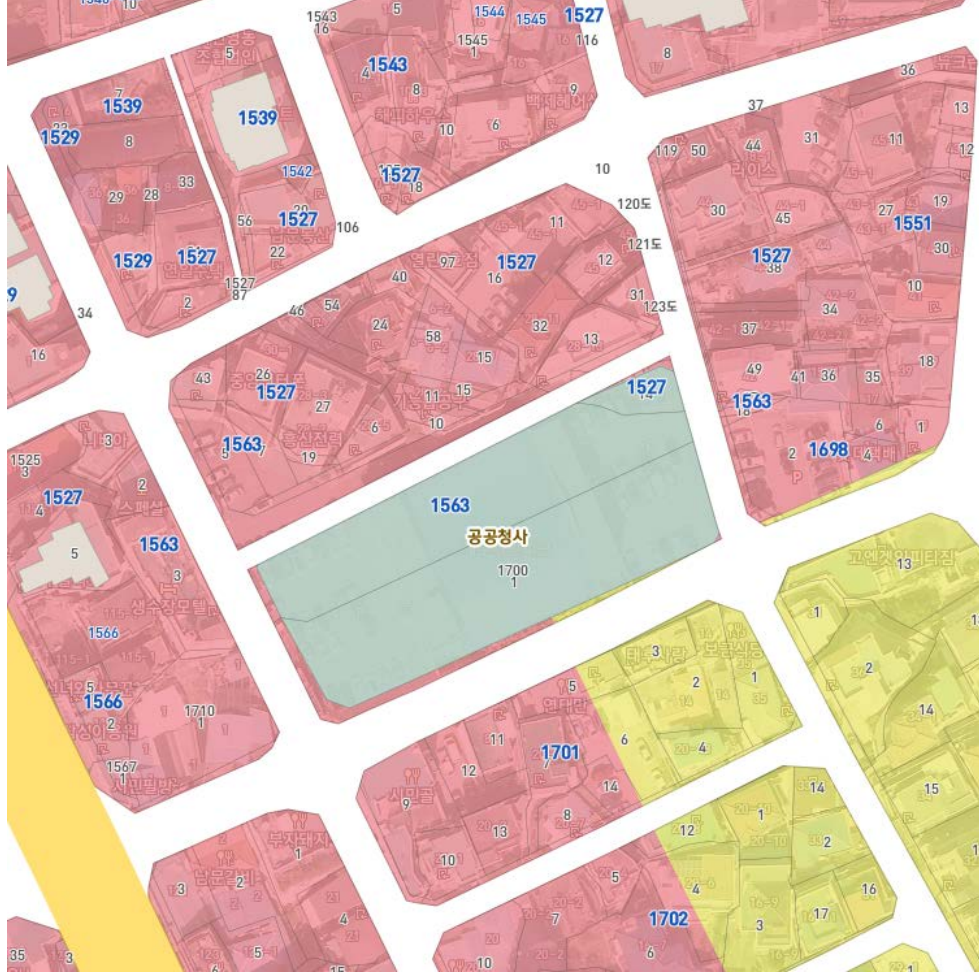
2) 문제점

- 제주도립병원 옛터는 1947년 3월 1일 3·1발포사건에서 총격을 당한 주민들이 실려온 곳이면서 2차 발포사건이 벌어진 장소임. 관덕정과 이어지는 이야기의 장소로 원도심 주요 유적지로 기억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해당 유적지 앞에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제주시민회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전길 26(이도이동 1700-1)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05401, 126.534483</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1989년 제주도 내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가 이곳에서 '제1회 4·3추모제'를 봉행하는 행사를 개최함. 과거 4·3은 반세기 넘도록 금기의 영역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행사조차 공개적으로 열기 어려웠음. 당시 사회분위기 속에서 4·3 추모제를 처음으로 개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O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2) 문제점

- 제주4·3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민사회, 학생운동 세력들은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음.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 후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4·3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음. 1회 4·3 추모제가 개최된 시민회관은 지난한 진상규명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임. 하지만 이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진상규명의 과정 또한 4·3의 역사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상규명 운동의 대표적 공간이었던 제주시민회관을 중요한 유적지로서 인지하고 유적지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제주신보사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379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13798, 126.524313</p>
조사일	2020.9. 29(화)
유적지 개요	<p>해방 이후 제주도의 유일한 언론매체였던 제주신보사가 있었던 곳. 제주신보는 해방 이후 제주도의 유일한 언론매체로 1945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지방에서 창간된 신문이었음. 이때부터 제주 지역의 유일한 언론으로서 제주도의 제반현황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제주신보의 당시 자료는 해방 이후 제주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1948년 4·3 발발 이후에는 토벌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들이 자주 당국에 잡혀가 고초를 겪었음. 그러던 중 제주읍내에 살포된 뼈라가 제주신보사에서 인쇄된 것이 발미가 되어 편집국장 김호진(金昊辰)이 군 수사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다가 1948년 10월 31일경 군부에 의해 처형됨. 또 제주신보는 4·3 당시 제주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서북청년단에 의해 장악되는 운명에 처하기도 했음. 1949년 2월경 제주신보사에 난입한 서청단원들은 저항하는 김석호(金錫浩) 사장과 김용수(金瑢洙) 편집국장 등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 쫓아낸 후 제주신보사를 강탈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	건물 골조 등 일부가 남아있음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배*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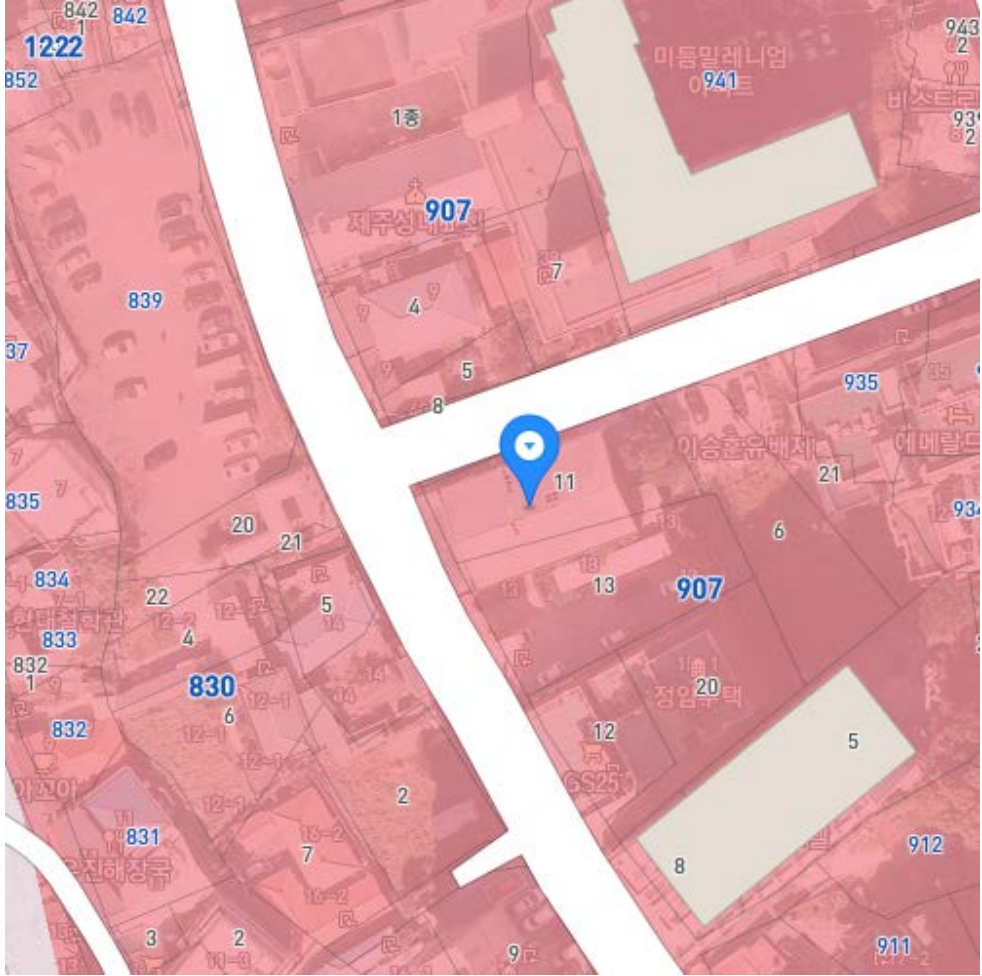
2) 문제점

- 제주신보사는 4·3 당시 제주도 내 유일한 언론매체였으며 3·1 발포사건 이후 피해 유가족 조의금 모금운동을 벌였고, 군경토벌대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이야기로 제주시 내 원도심 주요 유적지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해당 유적지 앞에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조일구락부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907-11
위치(위경도)	<p>33.511903, 126.520573</p> 
조사일	2020. 9. 29(화)
유적지 개요	<p>조일구락부는 해방 국면 제주에 있는 유일한 극장시설이었음. 1947년 2월 23일 이곳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됐음. 1947년 11월 2일에는 이곳에서 서북청년단 제주도본부가 결성되기도 함.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조직은 제주4·3 국면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p> <p>이곳은 중·개축을 하며 1980년대까지 제주극장, 현대극장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일반 사업체가 입주함. 2019년 건물이 철거됐음. 제주도정에서 해당 건물을 구입해 유지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아 개인에게 매각된 후 철거된 것임. 2020년 9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빈터만 남음.</p> <p>한편, 한국전쟁 예비검속 당시 민간인 피해를 막은 문형순 경찰서장이 경찰을 그만둔 이후 한때 이곳 극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일	
기타			

2) 문제점

- 조일구락부는 해방 이후 제주에서 벌어진 4·3 국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 장소임. 이곳에서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 제주도위원회와 서북청년단 제주도본부가 4·3 발발 및 전개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임.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당시 좌파 세력의 통일전선이라 할 수 있는데,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 준비를 주도했음. 서북청년단은 4·3 당시 민간인 학살의 주범 중 하나였음. 그러나 이를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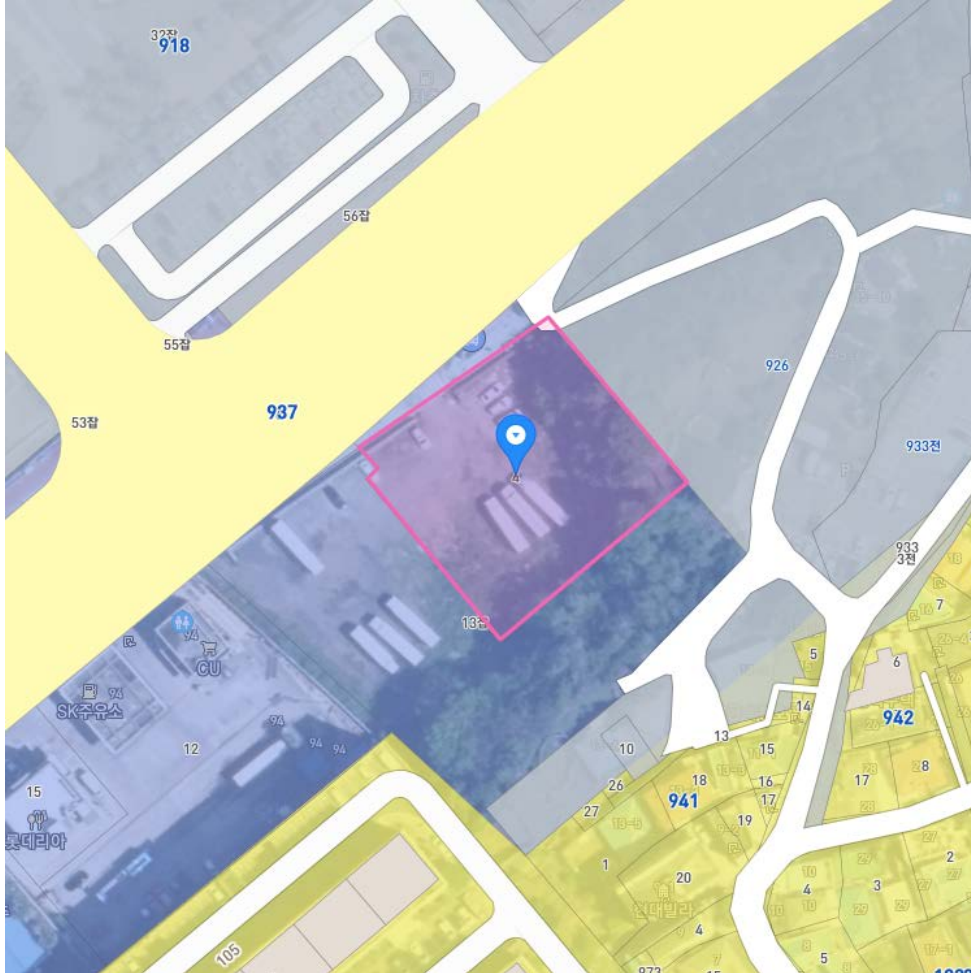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조일구락부 옛터를 제주시 원도심지역의 주요한 유적지로서 인지하고 해당 유적지 안내판을 세워야 함. 과거 건물이 철거되면서 예전 모습이 사라진만큼 예전 모습을 담은 사진(사진 첨부)도 안내판에 함께 넣어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안내판 내용을 구성.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옛 조일구락부 건물(©제주다크투어DB, 2018년 6월 17일 촬영)

주정공장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40-4
위치(위경도)	<p>33.5186038,126.5349051</p> 
조사일	2020.9. 29(화)
유적지 개요	<p>주정공장 창고는 4·3 당시 경찰, 군인들이 제주도민들을 감금하는 수용소로 활용되었음. 특히 1949년 봄이 되면서 한 겨울을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피난입산자 중 살아남은 주민 2,000여명이 이 대거 귀순하면서, 경찰지서나 군부대로부터 이곳으로 수용됨. 당시 이곳을 방문한 국제연합한국위원단의 시찰 보고(Transmitting Excerpt from UNCOK Report on Visit to Cheju Island, Despatch No. 358, June 17, 1949, American Embassy, Korea)에 따르면, 귀순자는 여성 수가 남성보다 대략 3배가 많았고 아기와 어린이도 많았음.</p> <p>주정공장 내에도 경찰 특별수사대가 상주하면서 귀순자들을 취조하기도 했음. 청년층은 대부분 재판에 회부되어 육지형무소로 이송됐고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전쟁 직후 육지에서 희생되어 행방불명되었음. 2020년 현재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았음.</p>
안내판 설명1	[한글]


제주주정공장 옛터
(4·3 당시 민간인 수용소)
해방 이후, 제주주정공장(1934년 설립)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원료로 주정을 생산하는 주요한 산업시설이었다.
이곳은 4·3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이용됐다. 특히 1949년 봄에는 피난 입산했다 귀순공작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대거 수용됐다.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수용자들은 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곳에 수용됐던 청장년층 대부분은 재판 후 타지방 형무소로 이송됐고, 이들중 다수는 한국전쟁 직후 집단학살됐다.
또한 예비검속됐다 이곳에 수용됐던 많은 사람들도 수장되거나 정뜨르비행장(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서 학살됐다.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2

[한글]
옛 주정공장 터 비문
이곳은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 당시 수많은 제주민중들이 끌려와 감금당한 채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모진 세월이 배어 있는 옛 주정공장 터이다. 4·3의 와중에 목숨 부지를 위해 한라산 일대에 피신했던 주민들은 혹한의 겨울을 야산에서 견디다가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군경 토벌대의 선무공작에 따라 대부분 순순히 귀순했다. 하지만 용공혐의를 뒤집어 씌워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문도 모른채 산지향을 통해 육지형무소로 끌려가야 했다. 또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자들 역시 집단 수용되었다가 행방을 모르는 등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천의 우리 부모형제들이 마지막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 남아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저 앞바다를 보라! 예나 지금이나 일렁이는 파도는 변함없이 제주해협을 오고 가지만 반세기를 훌쩍 넘긴 오늘날까지 어떤 기별도 한 줌 흔적도 추스르지 못한 슬픔을 가눌 길 없는 우리 유족들은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 빗돌을 세운다.
서기 2005년 4월 1일
제주도4·3사건희생자 유족회 근립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3</p>	<p>[한글] 제주주정공장 터 일제의 강제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1940년부터 설립한 대규모 주정공장(연간 14.940kl 생산)터다. 고구마를 원료로 주정을 생산, 일본 병참 본부에 항공연료로 납품하고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 자동차 연료로도 공급했다. 도민들은 이를 술로 만들어 음용하기도 했다. 2008. 2. 제주도 건입동 주민자치위원회 건립</p> <p>[영문] 없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 · 평화 · 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신설 조형물 사진 추가(2021년 5월 18일)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가 부재함.
- 진입로가 쇠사슬로 막혀 있어 이동약자들의 접근이 어려움.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수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이동약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도령마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1805(안내판1) / 용담2동 1760-1(안내판2)
위치(위경도)	<p>33.4968378, 126.491851(안내판1) / 33.497904, 126.496337(안내판2)</p> 
조사일	2020. 9. 29(화)
유적지 개요	<p>도령마루는 4·3 당시 용담리, 도두리, 연동리, 오라리의 접경지역이었음. 이곳에서 수시로 주민 학살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남아있음.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제주읍 지역 주민 76명임. 현기영의 소설 ‘도령마루의 까마귀’로 알려진 유적지이기도 함. 2019년 4월 6일, 4·3 당시 이곳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원혼을 위로하는 해원상생곳이 열리기도 함. 도령마루 건너편 공유지에 조성된 해원방사탑(높이 3m, 지름 2.5m)은 해원상생곳이 열리기 하루 전인 4월 5일 완성됨.</p>
안내판 설명1	<p>[한글] 4·3역사의 조난지 도령마루 이곳은 제주4·3의 역사는 물론 원래 지명조차 조난당한 도령마루이다. 더욱이 제주의 관문 공항 인근에 있으면서도 소나무 숲에 가려져 고립무원의 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곳이 4·3당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일찍이 현기영의 소설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 정면으로 다뤄졌음에도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건의 경위, 날짜, 희생규모, 시신수습 등의 역사의 실제적 진실은 아직까지도</p>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움이 많다.
 우리는 4·3 70주년을 맞아 역사의 상흔이 배여 있는 이곳 도령마루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기를 바라며 4·3의 정명 속에서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이 판을 세운다.
 2018.4
 (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탐라미술인협회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2

[한글]
 망각과 고립의 땅
 도령마루에
 생명과 평화의 염원 담아
 4·3방사탑을 세웁니다.
 4·3항쟁 71주년(2019) 4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 제주민예총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가 부재함.
- 이동약자를 위한 탐방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움.
- 차도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유적지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음.
- 안내판 2(용담2동 1760-1)의 경우 교통섬 안에 있고 횡단보도가 따로 없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함.
- 안내판 2의 경우 '4·3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화를 막는다'는 방사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설명이 불충분.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기 어려움.
- 최소 7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학살터에 대해 아직까지 실제적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4·3 당시 이 유적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판 혹은 음성변환코드가 설치되어야 함.
- 유적지 안내판 2의 방문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야 함. 또한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안내판을 추가 설치해야 함.
- 유적지가 차도로부터 숲쪽으로 들어간 외진 곳에 있어서 차도에서 식별 가능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유적지 안내판 2 인근에 제주4·3이 갖는 의미와 시대적 교훈에 대한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식 안내판이 세워져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최소한 규명 가능한 선에서 조사가 이뤄진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제주비행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용담2동)
위치(위경도)	<p>33.507007, 126.492953</p> 
조사일	2020.9. 29(화)
유적지 개요	<p>제주비행장과 그 인근은 수차례에 걸쳐 4·3 당시 집단학살이 이뤄진 장소임. 그러나 이곳에서 벌어진 학살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대표적으로 알려진 학살은 1949년 10월 2일 제2차 군법회의 사형수 249명 총살,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벌어진 예비검속자 총살 두 건임.</p> <p>특히 한국전쟁기 예비검속의 경우에는 제주경찰서와 주정공장에 있었던 주민들을 트럭에 싣고 이곳에 와서 총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증언에 따르면 당시 희생자는 500여 명으로 트럭 10대에 나눠 실려옴. 이들은 제주경찰서 관할지역인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지역의 예비검속자들임. 그리고 서귀포경찰서와 모슬포경찰서 관할지역 예비검속자들 중 일부 또한 이곳에서 총살돼 암매장됨.</p> <p>희생자들의 시신은 60여 년 동안 공항 활주로 부근에 매장됐다가 '집단 학살지 제주공항 내 2단계 2차(2008~2009) 유해 발굴 사업'으로 발굴됨. 당시 유해는 259구, 유류품 1311점이 발굴. 유전자 감식 후 현재까지 86구의 신원이 확인되었음. 2018년에도 공항 내 유해 발굴이 있었으나 공항 부지에서는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인근 도두동 발굴조사에서 4구의 유해가 발견됨. 1970년대 공항 확장공사에서 노출된 유해를 종이에 싸서 도두봉 근처에 매장했다는 증언에 따른 것임.</p>

안내판 설명 1

[한글]
 제주4·3 유해 발굴 터
 이곳은 제주4·3당시 최대 학살·암매장지 중의 하나였던 정뜨르비행장 부지이다.
 2007년 8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주4·3 유해 발굴 2단계 1차사업 결과
 60여년 동안 묻혀있었던 이곳의 실체가 드러났다. 길이 32m, 폭 1.2m~1.5m의
 구덩이 속에서 유해 123구, 탄피 등의 유류품 659점이 발견되었다.
 희생자들은 1950년 8월 예비검속 수감자들로 군인에 의해 총살되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은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어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에서 이 표석을
 세운다.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기타	유해 발굴과 관련된 안내판이 있기는 하나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안내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문제점

- 제주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은 제주4·3 당시 수차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장소이지만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항 내 부지(33.514306, 126.486778 인근)는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음. 4·3을 기억하고 있는 제주의 관문이라는 상징성, 4·3 당시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난 장소라는 역사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내용을 알리는 유적지 안내판이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설치가 필요함.

3) 개선방안

- 제주국제공항 인근, 공항 방문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이곳은 제주의 관문인 만큼 당시 정뜨르 비행장에서 일어난 일 뿐만 아니라 4·3 전반에 대해서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4·3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안내판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함.

관음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84(아라일동)
위치(위경도)	<p>33.425985, 126.557972</p> 
조사일	2020. 9. 18(금)
유적지 개요	<p>1909년 창건된 관음사는 인민유격대들의 근거지인 어승생악과 가까워 4·3 당시 여러 고초를 겪었음. 한때 관음사 주변지역은 토벌대들이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민유격대의 세력이 강했음. 관음사 내에는 이들이 은신했던 유적이 산재해 있음. 1949년 2월 12일에는 토벌대에 의해 대웅전, 향적전 등 8채의 건물이 전소되기도 했음. 이후 1968년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49년 3월부터 잔여 유격대 토벌을 위한 2연대의 작전이 강화되면서 관음사에는 2연대 2대대 병력이 주둔했음.</p>
안내판 설명1	<p>[한글] 관음사는 제주 4·3사건 당시 무장대 도당 사령부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1949년 1월 4일 토벌대는 한라산 공습을 실시하였고 이때부터 관음사 일대는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격전지가 되었다. 관음사를 접수한 토벌대는 1949년 2월 12일 관음사 대웅전을 비롯한 7채의 모든 전각에 불을 질러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주지 오이화 스님이 토벌대의 고문후유증으로 병사했다.</p> <p>[영문] 없음</p>



안내판 설명2

[한글]
관음사

Gwaneumsa temple

제주시 한라산 동북쪽 기슭 산천단(山川壇)에서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관음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의 본사로 도내 약 40여개의 종단내 사찰을 관장하고 있다.

제주도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시기는 한반도에 귀속되기 전인 탐라국 시대 해로를 통해 남방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음사는 불교전래 초기에 창건되어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바, 그 근거는 제주의 여러 가지 신화, 전설, 민담에 관음사를 고남절 (제주 방언으로 관음사), 개남절, 동고남절, 은중절이라고 민간에 유포되어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전에는 관음사가 고려 문종(1046-1083)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조선 숙종 1702년 억불정책으로 인해 제주의 사찰들이 완전히 폐사되었고

이로부터 200년간 제주에는 불교와 사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1908년 10월 비구니 해월스님이 현재의 위치에 옛 관음사를 복원함으로 제주불교가 다시 재건되었다.

현재 관음사는 제주의 중심, 한라산의 심장으로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기도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제주도의 중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문]

Located 650 meters above sea level on numinous and sacred Mt. Halla, Gwaneumsa-temple is a administrative head of the 23rd district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o which more than 40 temples are belonged. It is said, among the natives, that Gwaneumsa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reign of Moonjong of Goryo Dynasty (1046-1083).

Under the “Pro-Confucianism and Anti-Buddhism” policy of Chosun Dynasty beginning 1702, all the Buddhist temples were destroyed, and since then no single temple existed for over 200 years.

In October 1908, Venerable Haewol began restoring the temple at current location, and Buddhism in Jeju Island then was set to reinvigorate.

However, Gwaneumsa, throughout tragic modern Korean history, had become unavoidable victim of the 4·3 Uprising under the U.S. military rule and Korean War. The temple unwillingly became the field of war and witness of massacre of innocent civilians and was burnt down again.

Gwaneumsa, a center of Jeju Island and heart of Mt. Halla, is presently

representing the Buddhism of Jeju and has developed both as a site of prayer and practice and tourist attraction.



안내판 설명3

[한글]

<관음사와 4·3 유적>

서기1948년 4월 3일(당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미군사정부시대임)을 기하여 제주도 전역에 소요와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들이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태의 진전을 통칭 4·3사건이라고 한다.

관음사의 위치가 전략상 요충지였는지, 토벌대와 입산 무장대가 관음사지역을 중심으로 상호간에 첨예하게 대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관음사는 안타깝게도 모든 건물과 시설이 전소되었다.

관음사 도량을 중심으로 사방 주변 일대에 크고 작은 경계 참호와 부대 숙영시설을 설치하였는바, 그 유적들이 보존되어 4·3 사태 진전시 제주의 참극이자 민족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영문]

<Gwaneumsa and 4·3 Relics>

Riots occurred in the whole area of Jeju in April 3, 1948(It was the time, rul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eju was seized by big confusions, Many villages, located in the secluded or middle areas of mountain, disappeared, and many people were killed in the course of quelling a riot, which is called "4·3 incident."

The location of Gwaneumsa was the strategically important place, where punitive force and armed civilians who were in the opposite side, radically faced each other around the regions of Gwaneumsa. During this period, all buildings and facilities of Gwaneumsa were burnt.

Small and big lookout trenches and military quarters were installed in the surrounding of Gwaneumsa Buddhist seminary on all sides, and the remains of those days have been conserved, giving the evidence that vividly shows the scene of Jeju and national tragedy.



안내판 설명 4

[한글]
 관음사는 제주 4·3항쟁기에 관음사전투의 현장이었다. 1949년 2월 12일 토벌대가 대응전을 비롯한 7채의 모든 전각을 불살랐다. 이후 야미봉은 평화고지로 명명하고 관음사에는 토벌대가 주둔하여 더 이상 사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 1954년 한라산금족지역이 해제되고 나서는 경찰유격대가 관음사를 신선대 사령부로 사용하여 사격경기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1970년대야 관음사 중창이 이루어졌다. 관음사 도량을 중심으로 사방 주변일대에 크고 작은 경계참호와 부대 숙영시설들을 설치 하였으며 그 유적들이 보존되어 4·3때 제주의 참극이자 민족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영문]
 없음

	
<p>안내판 설명 5</p>	<p>[한글] 4·3유적-1 이 유적은 4·3사태 전개중에 토벌대와 입산 무장대가 대치할 때 경계참호와 전투에 대비한 진지로 4·3의 비극을 증명하고 있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 6</p>	<p>[한글] 4·3유적-2 이 유적은 4·3사태 전개중에 토벌대와 입산 무장대가 대치할 때 경계참호와 전투에 대비한 진지로 4·3의 비극을 증명하고 있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 7</p>	<p>[한글] 4·3 유적 이 유적은 4·3사태 전개중에 토벌대와 무장대가 대치할때 경계참호와 전투에 대비한 진지인 듯 함</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 8</p>	<p>[한글] 사천왕문 (四天王門) 이 문은 사천왕문 (四天王門)이라고 한다. 큰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게 되면 동서남북 하늘을 주재하는 천신들도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사천왕이 옹호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처님께 경배 하려면 천왕이 지키는 관문을 통과하여야 된다는 뜻에서 이곳에 사천왕문을 세운 것이다. 현재의 사천왕문은 1948년 4.3사태 관계로 불타버린 것을 1973년 이재은 님의 화주로 김해정님이 시주하여 지은것이다.</p> <p>[영문] 없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안내판 1은 제주 4·3에 대한 설명이지만 안내판 2의 한글은 관음사 자체에 대한 설명만 기재되어 있음.		

안내판 1에는 영어 설명이 없지만 안내판 2와 3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설명이 있음.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설명이 주목할만 함.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최근에 세운 안내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훼손이 되지 않았으나 오래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안내판 7은 훼손 정도가 심함.
-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관음사 안내 표지판(안내판 2)이 있음. 영어 안내판에는 4·3 관련 내용이 있으나 비문이나 오타자가 많고 일본어와 중국어에는 4·3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4·3에 대한 내용을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이 없는 곳의 경우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2와 3의 영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안내판 2 기존안	수정안
<p>Located 650 meters above sea level on numinous and sacred Mt. Halla, Gwaneumsa-temple is a administrative head of the 23rd district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o which more than 40 temples are belonged. It is said, among the natives, that Gwaneumsa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reign of Moonjong of Goryo Dynasty (1046-1083). Under the “Pro-Confucianism and Anti-Buddhism” policy of Chosun Dynasty beginning 1702, all the Buddhist temples were destroyed, and since then no single temple existed for over 200 years. In October 1908, Venerable Haewol began restoring the temple at current location, and Buddhism in Jeju Island then was set to reinvigorate. However, Gwaneumsa, throughout tragic modern Korean history, had become unavoidable victim of the 4·3 Uprising under the U.S. military rule and Korean War. The temple unwillingly became the field of war and witness of massacre of innocent civilians and was burnt down again. Gwaneumsa, a center of Jeju Island and heart of Mt. Halla, is presently representing the Buddhism of Jeju and has developed both as a site of prayer and practice and tourist attraction.</p>	<p>Located 650 meters above sea level on a numinous and sacred Mt. Halla, Gwaneumsa-temple is an administrative head of the 23rd district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o which more than 40 temples are belonged-located. It is said, among the natives, that Gwaneumsa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reign of Moonjong of Goryo-Goryeo -Dynasty (1046-1083). Under the “Pro-Confucianism and Anti-Buddhism” policy of Chosun Dynasty beginning 1702, all the Buddhist temples were destroyed, and since then no single temple existed for over 200 years. In October 1908, Venerable Haewol began restoring the temple at its current location, and Buddhism in Jeju Island then was was then set to reinvigorate. However, Gwaneumsa, throughout tragic modern Korean history, had become an unavoidable victim of the 4·3 Uprising under the U.S. military rule and the Korean War. The temple unwillingly became the field of war and witness of the massacre. of innocent civilians and was Buildings were burnt down again. Gwaneumsa, a center of Jeju Island and heart of Mt. Halla, is presently representing the Buddhism of Jeju and has developed both as a site of prayer and practice and tourist attraction.</p>

안내판 3 기존안	수정안
<p><Gwaneumsa and 4·3 Relics> Riots occurred in the whole area of Jeju in April 3, 1948(It was the time, rul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eju was seized by big confusions, Many villages, located in the secluded or middle areas of mountain, disappeared, and many people were killed in the course of quelling a riot, which is called “4·3 incident.”</p> <p>The location of Gwaneumsa was the strategically important place, where punitive force and armed civilians who were in the opposite side, radically faced each other around the regions of Gwaneumsa. During this period, all buildings and facilities of Gwaneumsa were burnt.</p> <p>Small and big lookout trenches and military quarters were installed in the surrounding of Gwaneumsa Buddhist seminary on all sides, and the remains of those days have been conserved, giving the evidence that vividly shows the scene of Jeju and national tragedy.</p>	<p><Gwaneumsa and 4·3 Relics> Riots occurred in the whole area of Jeju in April 3, 1948(It was the time, rul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eju was seized by big confusions, Many villages, located in the secluded or middle areas of mountain, disappeared, and many people were killed in the course of quelling a riot, which is called “4·3 incident.”</p> <p>The location of Gwaneumsa was the strategically important place, where punitive forceforces and armed civilians who were in on the opposite side, radically faced each other around the regions of Gwaneumsa. During this period, all buildings and facilities of Gwaneumsa were burnt.</p> <p>Small and big lookout trenches and military quarters were installed in the surrounding of Gwaneumsa Buddhist seminary on all sides, and the remains of those days have been conserved, giving the evidence that vividly shows the scene of Jeju and national tragedy.</p>

박진경 연대장 추모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825(제주시충훈묘지 내)
위치(위경도)	<p>33.412164, 126.495693</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제주시 충훈묘지에는 4·3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희생된 군인과 경찰 사망자들의 유해가 안장돼 있음. 충훈묘지 진입로에는 박진경 연대장 추모비(제주도군경원호회 건립)가 세워져 있음.</p>
유적지 안내판 설명	<p>[한글] <전면> 교육군대령박진경추모비 <우측면 > 이 비는 당초에 세운 비의 비명마모로 내용식별이 어려워 서기 일구팔오년 육월 일 다시 세웠으며 원비는 비 앞에 묻었음. <후면 > 공은 밀양 박씨 밀성대군의 후예로서 생지는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삼십육 번지에서 단기 사이오삼년 일월이십이일 출생하셨다 부인은 남해군수를 역임한 진양정공 임환씨의 따님이다 공이 순직하신 후 양자로서 그 백형인 진용씨의 아들 익주군을 입양했다 공은 진주고보를 졸업하고 이어 일본 대판 외국어대학교</p>

영어과를 졸업한 후 우리나라 광복과 더불어 국군 창설의 주역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헌신하고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인사국장을 역임한 후 십일 연대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육군 대령으로 승진하여 제주도 공비소탕에 불철주야수도위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불행히도 단기 사이팔일년 육월십팔일 장렬하게 산화하시다 이에 우리 삼십만 도민과 군경원호회가 합동하여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단갈을 세우고 추모의 뜻을 천추에 기리 전한다.

단기 사이팔오년 십일월 칠일
제주도민 급 군경원호회 일동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X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4·3 강경 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가 충혼묘지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음. 보훈청은 지역사회의 논란을 고려하여 도내 군부대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2020년 9월 현재까지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따르면, 제주시 충혼묘지에서 세워진 박진경 연대장 추도비는 2021년 제주 국립묘지가 완공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될 계획임. 2020년 10월 현재 추도비의 법적 소유주를 알지 못하고 있고, 처리방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을 예정임.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오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표지석에 '공비 소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의 '공비'는 공산당의 유격대를 의미하며 '소탕'은 휩쓸어 죄다 없애버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제주4·3의 성격을 '폭동'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음. 박진경 대령이 공비를 소탕했다는 표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미화하는 표현임.

3) 개선방안

- 이동약자 접근권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은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표현하는 등 제주도민들에 대해 폭압적인 진압정책을 펼쳤음. 박진경 대령의 충혼비가 지금과 같이 존치된다면, 4·3 당시 박진경 대령의 잔혹한 탄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은 안내판이 세워져야 함.

어승생악 동굴진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산 218
위치(위경도)	<p>33.396923, 126.4848328</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일제 패망 직전 일본은 제주를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결7호 작전' 수행지로 지정했음. 이에 제주도 곳곳에는 일본 전쟁유적이 남아있음. 그중 한 곳인 어승생악에 토치카를 만들어 미군의 제주도 상륙을 저지하고자 했음. 제주4·3 당시 이곳은 인민유격대의 본거지로 활용되기도 함. 어승생악 동굴진지는 국가등록문화재 307호로 지정됨.</p>
유적지 안내판 설명1	<p>[한글]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벙커 #1) 등록문화재 제307호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는 태평양전쟁 말기 1945년 무렵 제주도 내 일본군 최고 지휘부인 제58군 사령부의 주둔지로서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번지 일원)가 함락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축한 최후의 저항 거점지다. 이 벙커가 위치한 어승생악은 당시 제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현재는 어승생악 정상부에 2개의 벙커, 3부와 8부 능선에 3개의 동굴진지가 남아 있다.</p>

	<p>정상부의 위치한 2개의 벙커는 감시 초소 및 방어 시설물의 역할을 하였다. 2개의 벙커 중 정상부에 가깝게 위치한 벙커#1(해발1,169m)은 두꺼운 철근과 시멘트로 견고히 구축되어 있다. 진입 계단을 통해 벙커#1의 내부로 내려가면 외부를 관측하였던 공간으로 연결되고, 약 5m의 진입 통로를 지나면 별도의 관측 공간으로 이어진다.</p> <p>이 군사시설물은 태평양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제주도를 저항 기지로 삼았던 침략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p> <p>[영문] 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Eoseungsaengak Volcanic Cone, Jeju (Bunker #1)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307 The 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Eoseungsaengak Volcanic Cone, Jeju was built during the final days of the Pacific War(1941-1945)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for use as a last resort to replace the nearby 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Gamaoreum Volcanic Cone, Jeju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308) stationed by the headquarters of the Japanese 58th Army in the event of its fall to the Allied Forces. Eoseungsaengak, the volcanic cone containing this bunker, was regarded as a key strategic point overlooking the entire city of Jeju. The remaining fortification consists of two bunkers built around the summit of the volcanic cone and three underground tunnels on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its main ridge. The two bunkers located around the top of the volcanic cone were used as observation posts and to defend the summit area. Of the two, the one on the upper part (Bunker #1, 1,169 meters above sea level) features a sturdy structure built with thick rebars and concrete. The bunker contains two observation points located on both sides of the tunnel entrance.</p> 
<p>유적지 안내판 설명2</p>	<p>[한글]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벙커 #2) 등록문화재 제307호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는 태평양전쟁 말기 1945년 무렵 제주도 내 일본군 최고 지휘부인 제58군 사령부의 주둔지로서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번지 일원)가 함락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축한 최후의 저항 거점지다. 이 벙커가 위치한 어승생악은 당시 제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현재는 어승생악 정상부에 2개의 벙커, 3부와 8부 능선에 3개의 동굴진지가 남아 있다.</p>

정상부의 위치한 2개의 벙커는 감시 초소 및 방어 시설물의 역할을 하였다. 2개의 벙커 중 벙커#2는 벙커#1에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두꺼운 철근과 시멘트로 견고하게 구축하였고, 밖을 관측할 수 있는 총안*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 군사시설물은 태평양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제주도를 저항 기지로 삼았던 침략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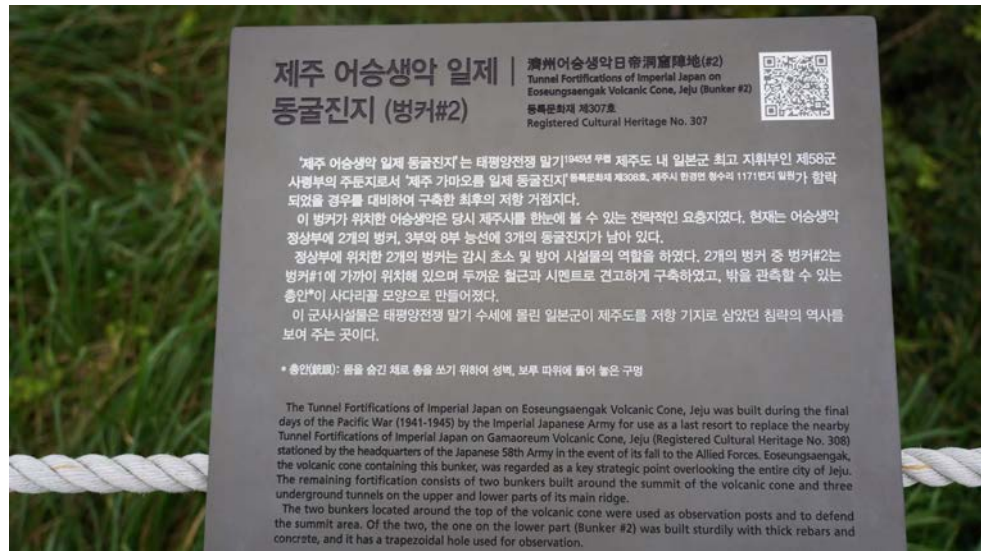
*총안: 몸을 숨긴 채로 총을 쏘기 위하여, 성벽, 보루 따위에 뚫어 놓은 구멍

[영문]

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Eoseungsaengak Volcanic Cone, Jeju (Bunker #2)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307

The 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Eoseungsaengak Volcanic Cone, Jeju was built during the final days of the Pacific War (1941-1945)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for use as a last resort to replace the nearby 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Gamaoreum Volcanic Cone, Jeju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308) stationed by the headquarters of the Japanese 58th Army in the event of its fall to the Allied Forces. Eoseungsaengak, the volcanic cone containing this bunker, was regarded as a key strategic point overlooking the entire city of Jeju. The remaining fortification consists of two bunkers built around the summit of the volcanic cone and three underground tunnels on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its main ridge.

The two bunkers located around the top of the volcanic cone were used as observation posts and to defend the summit area. Of the two, the one on the lower part (Bunker #2) was sturdily with thick rebars and concrete, and it has a trapezoidal hole used for observation.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2) 문제점

- 이곳은 4·3 당시 2연대를 비롯한 토벌대가 주둔한 곳이기도 하고 인민유격대가 훈련장으로 쓰기도 했던 곳임. 그러나 이곳에 있는 안내판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제58군 사령부로 쓰였다는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고 4·3 당시의 유적지라는 설명은 찾아볼 수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4·3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곤을동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4440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33.521722, 126.557375</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제주시 화북1동에 위치한 곤을동 옛터는 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었다가 끝내 복구되지 못해 '잃어버린 마을'이 됨. 토벌대는 1949년 1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최소 10여명의 주민들을 학살했으며, 70가구 정도가 살았던 마을에 불을 지름. 집터 등 당시의 마을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곳임. 현재는 이곳이 '잃어버린 마을'임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세워져 있음.</p>
안내판 설명1	<p>[한글] 4·3 해원 상생 거육대 "1949년 1월 4일 오후 3~4시경 불시에 들이닥친 군인 토벌대에 의해 가옥이 전소되고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집과 사람은 오간데 없고 그 돌담만 남아 이 역울하고 원통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곤을동 초토화 마을 유적터에 55년이 지난 오늘에야 온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해원상생의 굿판을 벌여 이를 위무하고, 이곳에 옛 조상들이 그랬듯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 '거육대'를 세운다." 2004.4.5 (사)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제주도지회</p>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2

[한글]

잃어버린 마을(곤을동)

소재지: 제주시 화북동 4440번지 일대

곤을동은 제주시 화북1동 서쪽 바닷가에 있던 마을이다. 4·3이 일어나기 전, 별도봉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안곤을'에는 22가구, 화북천 두 지류의 가운데 있던 '가운데곤을'에는 17가구, '밖곤을'에는 28가구가 있었다.

곤을동이 불에 타 폐동이 된 때는 1949년 1월 4일과 5일 양일이었다.

1949년 1월 4일 오후 3-4시께 국방경비대 제2연대 1개 소대가 곤을동을 포위했다. 이어서 이들은 주민들을 전부 모이도록 한 다음, 젊은 사람 10여명을 바닷가로 끌고가 학살하고, 안고을 22가구와 가운데곤을 17가구 모두를 불태웠다.

다음날인 1월 5일에도 군인들은 인근 화북초등학교에 가뒀던 주민 일부를 화북동 동쪽 바닷가인 '영디밭'에서 학살하고, 밖곤을 28가구도 모두 불태웠다.

그 후 곤을동은 인적이 끊겼다.

제주시 인근 해안마을이면서도 폐동돼 잃어버린 마을의 상징이 된 곤을동에는 지금도 집터, 올레(집과 마을길을 연결해주는 작은 길)등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4·3의 아픔을 웅변해주고 있다.

[영문]

Goneul-dong

Location: 4440, Hwabuk-dong, Jeju City

Goneul-dong was located in the west coast of Hwabuk 1-dong, Jeju City. Before the April Third Uprising, in 'Inside Goneul' at the east bottom of Byeoldo Peak, there were 22 dwellings, in 'Middle Goneul' located between the two branches of Hwabuk Stream, 17 dwellings, and in 'Outside Goneul', 28 dwellings.

On January 4 and 5, 1949, Goneul-dong was put to the torch and Has been deserted since. Around 3-4p.m. on January 1949, one platoon from the 2nd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laid siege to Goneul-dong. They rounded up all the villagers. They took approximately 10 young men to the coast and executed them. Then, they set fire to all 22 dwellings in Inside Goneul and all 17 dwellings in Middle Goneul.

On January 5, soldiers killed some villagers who were confined in nearby Hwabuk Elementary School at 'Yeondi Mit', on the east Coast of Hwabuk-dong. Then, they burned all 28 dwellings in Outside Goneul. Since then, Goneul-dong has been deserted.

Goneul-dong symbolizes the lost village which was deserted even though it was a coast village near Jeju City. It is a painful reminder of the April Third Uprising with its remaining building sites and Olle (entrance path to the house).



안내판 설명3

[한글]
 곤을동
 항상 물이 고여 있는 땅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붙여진 이곳 제주시 화북동 곤을마을(坤乙洞)은 화북천 지류를 중심으로 밧곤을, 가운데 곤을, 안골을로 나누어진다. 곤을마을은 고려 충렬왕 26년(서기 1300년)에 별도현에 속한 기록이 있듯이 설촌된 지 7백년이 넘는 매우 유서 깊은 마을이다.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했으며, 바다를 끼고 있어 어업도 겸하면서 43호가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4·3사건의 와중인 1949년 1월 4일 아침 9시경 군 작전으로 선량한 양민들이 희생되고 온 마을이 전소되는 불행을 겪었다. 이 어찌 슬프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모든 가구가 전소되었고 24명이 희생되었다. 초가집 굴뚝 연기와 멜 후리는 소리는 간데없고 억울한 망자의 원혼만 구천을 떠도는구나! 별도봉을 휘감아 도는 바닷바람 소리가 죽은 자에게는 안식을 산 자에게는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4·3사건으로 이 고장을 지키다 가신 님들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빌면서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2003년 4월 3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지사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 4

[한글]
4·3 유적지 곤을동

[영문]
Historical Site Gonuel-dong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영문 오류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안내판 3>은 곤을동 옛터 밖에 위치(33.522630, 126.559667)하고 있음.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가 부재함.
- 길이 좁고 험하며 계단이 있어 이동약자가 접근하기가 어려움.
- <안내판 3>에 있는 "군 작전으로 선량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는 표현은 마치 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이 일반적인 군 작전 중 발생한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영문 안내판의 비문이 있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이동약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판 4>가 있는 장소(33.5220597, 126.5579365)에 곤을동에 대한 설명과 전경이 있는 사진을 담은 안내판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 중 학살의 주체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문 안내판의 오류는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기존안	수정안
Goneul-dong Location: 4440, Hwabuk-dong, Jeju City Goneul-dong was located in the west coast of Hwabuk 1-dong, Jeju City. Before the April Third Uprising, in 'Inside Goneul' at the east bottom of Byeoldo Peak, there were 22 dwellings, in 'Middle Goneul' located between the two branches of Hwabuk Stream, 17 dwellings, and in 'Outside Goneul', 28 dwellings.	Goneul-dong Location: 4440, Hwabuk-dong, Jeju City Goneul-dong was located in the on the west coast of Hwabuk 1-dong, Jeju City. Before the April Third Uprising, in 'Inside Goneul' at the east bottom of Byeoldo Peak, there were 22 dwellings, in 'Middle Goneul' located between the two branches of Hwabuk Stream, 17 dwellings, and in 'Outside Goneul', 28 dwellings.

On January 4 and 5, 1949, Goneul-dong was put to the torch and Has been deserted since. Around 3-4p.m. on January 1949, one platoon from the 2nd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laid siege to Goneul-dong. They rounded up all the villagers. They took approximately 10 young men to the coast and executed them. Then, they set fire to all 22 dwellings in Inside Goneul and all 17 dwellings in Middle Goneul.

On January 5, soldiers killed some villagers who were confined in nearby Hwabuk Elementary School at 'Yeondi Mit', on the east Coast of Hwabuk-dong. Then, they burned all 28 dwellings in Outside Goneul. Since then, Goneul-dong has been deser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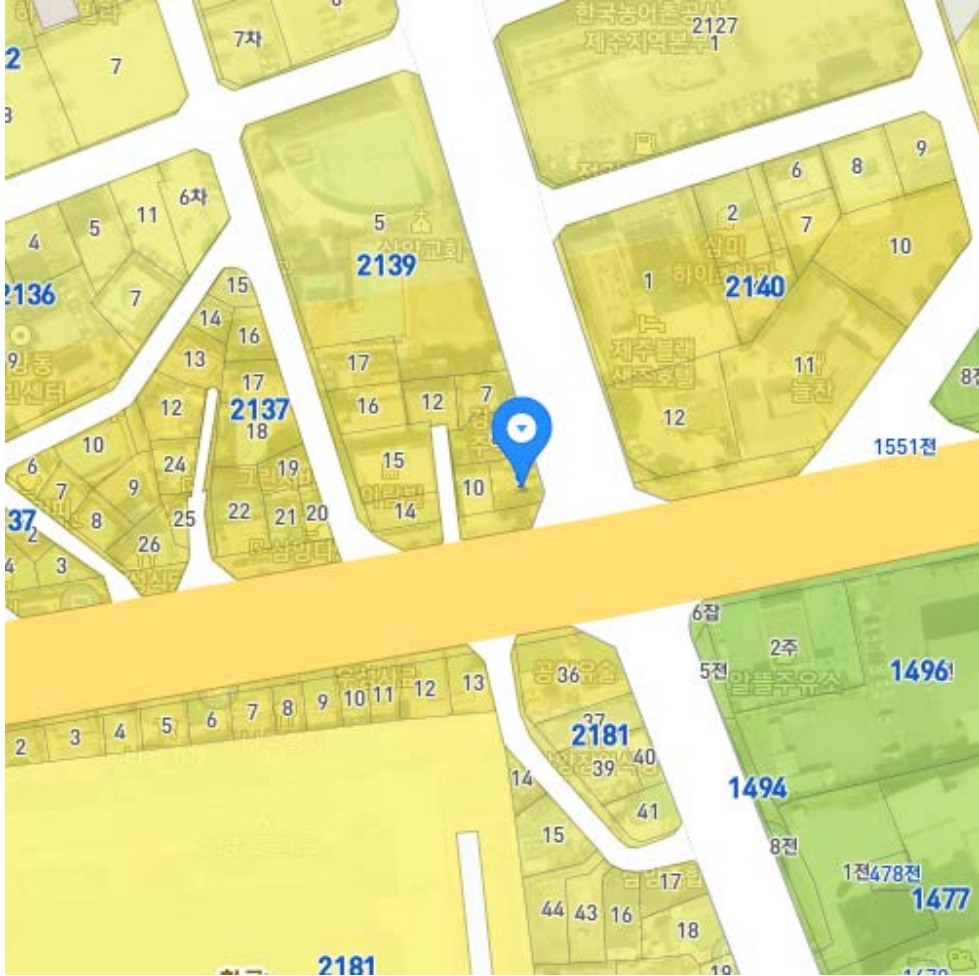
Goneul-dong symbolizes the lost village which was deserted evenThough it was a coast village near Jeju City. It is a painful reminder of the April Third Uprising with it;s remaining building sites and Olle (entrance path to the house).

On January 4 and 5, 1949, Goneul-dong was put to the torch and Has been deserted since. Around 3-4p.m. on In January 1949, one platoon from the 2nd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laid siege to Goneul-dong. They rounded up all the villagers. They took approximately 10 young men to the coast and executed them. Then, they set fire to all 22 dwellings in Inside Goneul and all 17 dwellings in Middle Goneul.

On January 5, soldiers killed some villagers who were confined in nearby Hwabuk Elementary School at 'Yeondi Mit', on the east Coast of Hwabuk-dong. Then, they burned all 28 dwellings in Outside Goneul. Since then, Goneul-dong has been deserted.

Goneul-dong symbolizes the lost village which was deserted evenThough it was a ~~coast~~ coastal village near Jeju City. It is a painful reminder of the April Third Uprising with it;s ~~its~~ remaining building sites and Olle (entrance path to the house).

삼양지서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이동 2139-9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21530, 126.586980</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p>1926년 경찰관주재소로 설립된 삼양지서는 4·3 당시 삼양, 도련, 봉개, 용강, 회천을 담당하던 경찰 토벌대의 중심지 역할을 함. 삼양지서에서는 경찰과 우익단체에 의한 무자비한 고문이 이뤄졌으며, 지서 인근에 있는 이른바 ‘삼양지서 앞밭’에서 학살이 이뤄짐. 한편 인민유격대의 습격으로 인한 희생자도 많았다고 함. 1948년 9월 7일 삼양지서에서 13세 소년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음. 또 1949년 1월 3일에는 인민유격대의 습격으로 경찰과 보초를 서던 주민 십여 명이 인명 피해를 입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40여 명의 주민들을 삼양지서 앞밭에서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음. 특히 서북청년단 출신의 삼양지서 소속 정용철 주임은 잔혹하게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전해짐.</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김*지	
비고			

2) 문제점


- 삼양리는 토벌대의 학살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것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토벌대의 명령에 응했던 민간인들이 인민유격대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기도 한 곳임. ‘낮에는 토벌대에, 밤에는 무장대에 시달렸다’는 4·3 당시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임. 특히, 삼양지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정용철 주인이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던 곳임. 그러나 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4·3은 말한다』 등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삼양지서 및 지서 인근에서 벌어진 13세 소년 고문 치사 사건과 여러 차례 벌어진 학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2.제주시 조천읍

조천중학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64(조천리 2347)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38253, 126.640294</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p>1946년에 개교한 조천중학원은 인민유격대 2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가 역사,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곳임. 1948년 3월 6일 이곳 조천중학원에 재학 중이던 2학년생 김용철(21)은 학생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조천지서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목숨을 잃음. 이덕구가 교단을 떠나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지서 연행이 잦아지던 와중에 김용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진 것임. 4·3 이후 이곳 조천중학원은 폐원조치됨.</p> <p>현재는 제주시동부보건소 조천보건지소가 들어서 있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제주시동부보 건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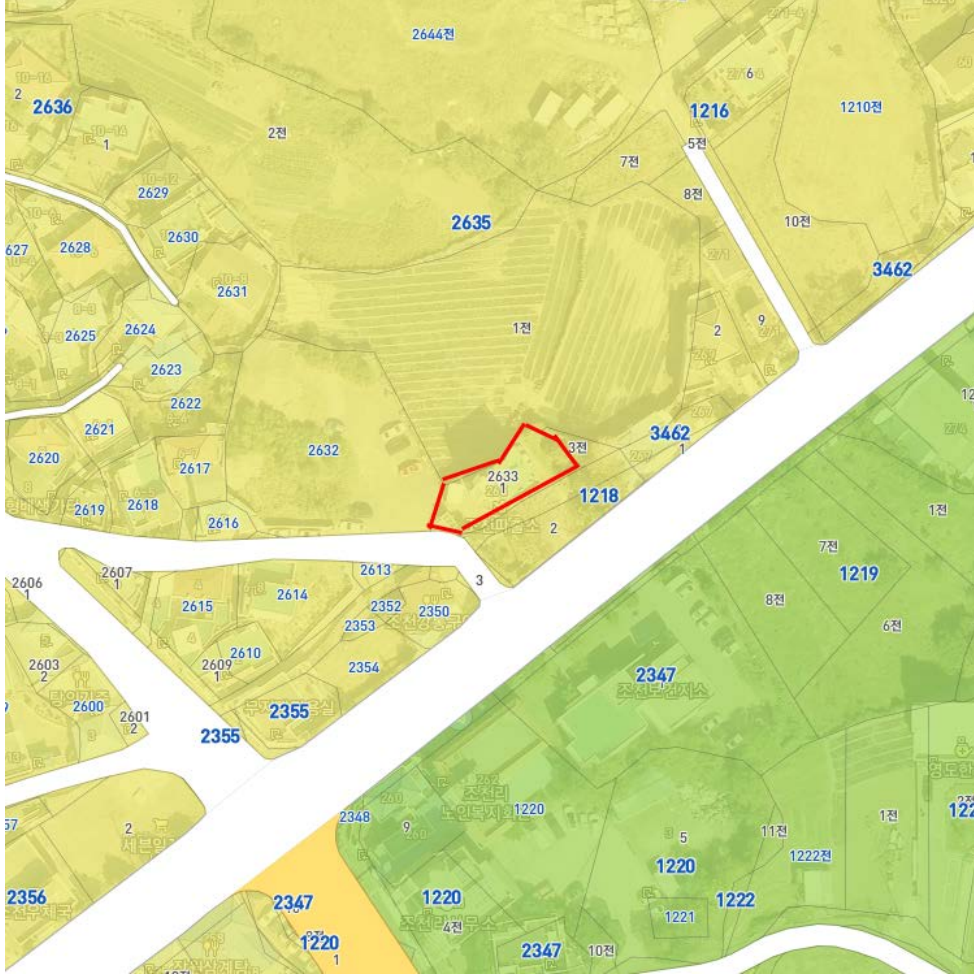
2) 문제점

- 4·3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 제주 4·3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조천중학원 자리이니만큼 안내판을 세우고 기록할 필요가 있음.
- 조천중학원 옛터는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2019.12)에 따라 유적지 정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안내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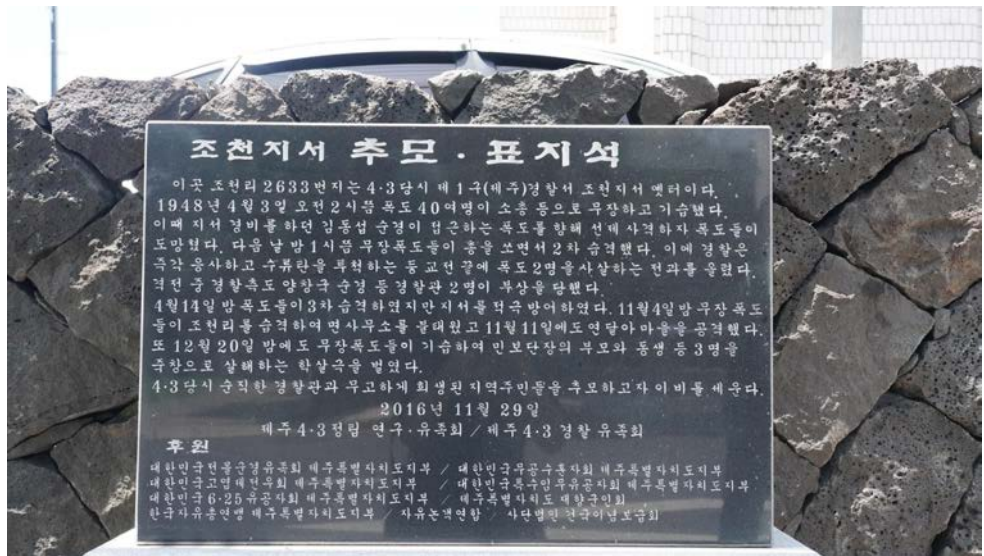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2019.12)은 조천중학원 옛터 등 주변 관련 역사 부지를 매입해 기념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조천중학원 옛터의 경우 국가 소유 부지이므로 따로 매입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앞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충분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

조천지서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65(조천리 2633-1)
위치(위경도)	<p>33.538606, 126.640081</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4·3 당시 경찰 및 응원대의 활동 근거지가 됐으며 피의자에 대한 취조 및 학살이 자행된 곳임. 1948년 3월 6일, 조천중학원 학생이었던 김용철이 고문당해 숨을 거둔 곳이기도 함.
안내판 설명	<p>[한글] 이곳 조천리 2633번지는 4·3 당시 제1구(제주)경찰서 조천지서 옛터이다. 1948년 4월 3일 오전 2시쯤 폭도 40여명이 소총등으로 무장하고 기습했다. 이때 지서 경비를 하던 김동섭 순경이 접근하는 폭도를 향해 선제 사격하자 폭도들이 도망쳤다. 다음 날 밤 1시쯤 무장폭도들이 총을 쏘면서 2차 습격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응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하는 등 교전 끝에 폭도 2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격전 중 경찰측도 양창국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했다. 4월 14일 밤 폭도들이 3차 습격하였지만 지서를 적극방어했다. 11월 4일 밤 무장 폭도들이 조천리를 습격하여 면사무소를 불태웠고 11월 11일에도 연달아 마을을</p>

공격했다.
 또 12월 20일 밤에도 무장폭도들이 기습하여 민보단장의 부모와 동생 등 3명을
 죽창으로 살해하는 학살극을 벌였다.
 4·3 당시 순직한 경찰관과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주민들을 추모하고자 이 비를
 세운다.
 2016년 11월 29일
 제주 4·3 정립 연구·유족회/ 제주 4·3 경찰 유족회
 후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 6·25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자유논객연합 사단법인 건국이념 보급회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X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2) 문제점

- 안내판에 ‘폭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의 ‘폭도’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를 의미함. 그러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제주4·3의 성격을 ‘폭동’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음. 이에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폭도’라는 안내판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조천지서에서 발생한 김용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은 4·3의 길목에서 제주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임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이동약자 접근성은 용이함. 그러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 정의)이라는 기초 아래 군경토벌대가 주민들을 감금하고 총살한 역사 등을 기술하여야 함. 보다 중립적으로 사건을 기술한 안내판 조성 필요.
- 『4·3은 말한다』 등의 자료를 토대로 김용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어야 함. 아울러 조천지서 돌담에 남아 있는 4·3 당시 사용했던 총구멍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있음.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설치시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조천지서 앞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1219-6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38530, 126.640678</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p>1948년 12월부터 인민유격대 협조자라는 명목으로 조천리 주민을 학살하던 장소임. 토벌대는 소개령에 따라 조천리에 피난 왔던 신안동, 양천동 등 조천리 산간마을뿐 아니라, 대흘리, 와흘리 등 중산간에서 소개 온 대부분의 주민을 집단수용소에 수용한 후 그중에서 도피자 가족을 골라내 조천지서 앞밭에서 집단 학살했음.</p> <p>알려져 있는 사례로는 1949년 1월 13일 집단수용소에 수용됐던 신안동 주민 등 30여 명이 조천지서 경찰에 의해 집단 총살된 사건과 1949년 2월 1일 집단수용소에 수용됐던 양천동, 대흘리 주민 등 60여 명이 조천지서 경찰에 의해 집단 총살된 사건을 들 수 있음.</p>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남*숙	
기타			

2) 문제점

- 조천지서, 조천중학원과 더불어 조천 지역의 중요한 다크투어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
- 조천지서 앞밭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2019.12)에 따라 유적지 정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안내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2019.12)은 조천중학원 옛터 등 주변 관련 역사 부지를 매입해 기념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부지매입 예산: 14,001,120원)
- 역사의 현장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설치시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조천민간인수용소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85-1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39715, 126.637012</p>
조사일	2020. 7. 17(금)
유적지 개요	<p>4·3 당시 정미소로 쓰였던 약 40 ~ 50평 규모의 건물. 1948년 11월 하순 이후 조천면 중산간 마을이 소개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진 중산간 주민들이 함덕, 조천의 집단수용소에 수용됨. 이곳 조천리 집단수용소에는 조천리 지역의 중산간인 양천동, 신안동, 봉소동은 물론 대흘과 와흘 등지의 소위 ‘도피자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해변마을인 신촌, 신흥 등지의 ‘도피자 가족’도 수용되었음. 수용자는 2 ~ 300백명은 족히 됐을 것으로 추정됨. 수용됐던 중산간 주민 중 젊은이들은 수시로 선별, 총살당했고,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도피자 가족’ 30여 명이 1949년 1월 13일에, 또 60여 명이 1949년 2월 1일에 조천지서 앞밭에서 집단총살됨.</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O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김*진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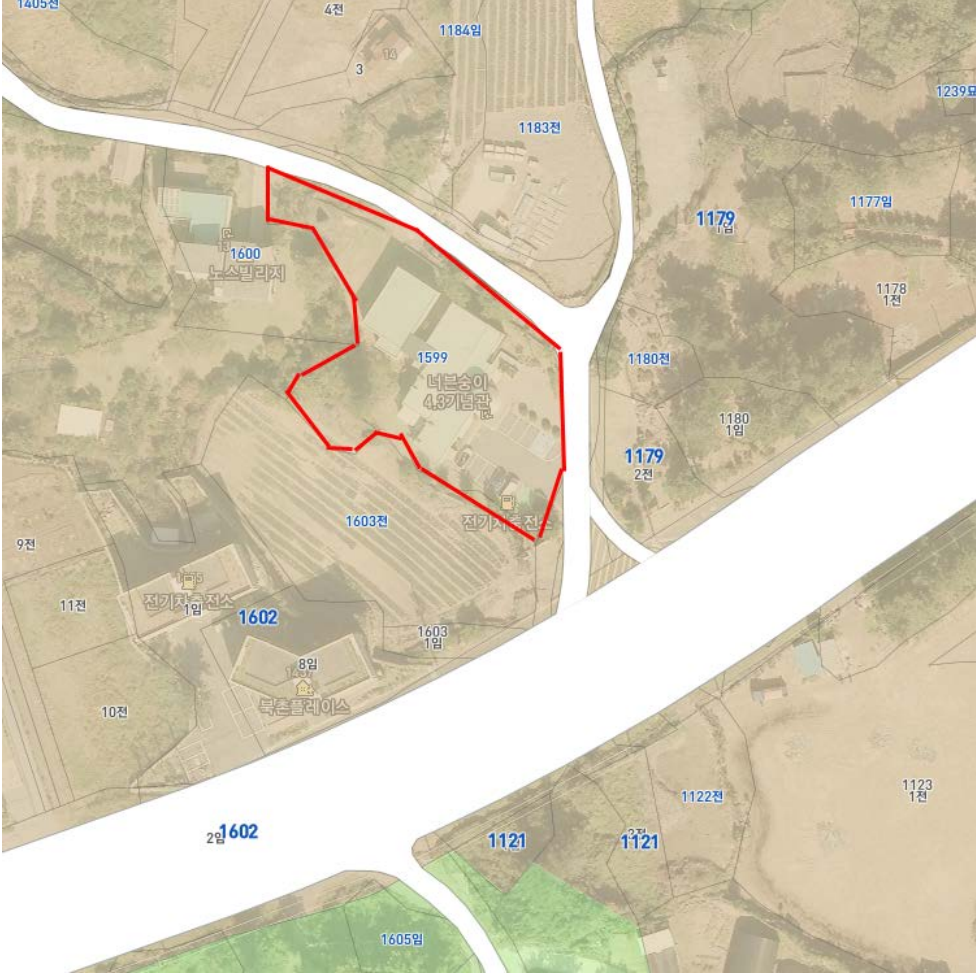
2) 문제점

- 조천리 민간인수용소 옛터는 조천지서 일대와 함께 조천면 주민들이 4·3 당시 수난을 겪었던 장소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아무런 안내판이 세워져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주변에 위치한 연관된 4·3 유적지인 조천중학원 옛터, 조천지서 옛터 등과 더불어 조천 지역의 4·3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장소임. 민간인 수용소 옛터 뿐만 아니라 위의 지역들과 연계해 함께 보존할 필요 있음.
- 이곳은 현재 사유지로 공유지로 매입하여 유적지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설치시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너븐숭이 4·3 기념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3길 3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45959, 126.688749</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p>너븐숭이 기념관은 1949년 1월 17일, 학살당한 북촌마을 주민들을 기억하기 위해 2009년에 조성한 공원. 위령비와 4·3 기념관, 애기무덤, 순이삼촌 문학기념비, 방사탑 등을 볼 수 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너븐숭이 4·3유적지는 1949년 1월 17일 북촌주민 400여 명이 희생된 장소 중 하나이며, 4·3의 아픔을 알리는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p> <p>[영문] Neobeunsungi is the Jeju April 3rd historic site where around 400 Bukchon villagers were killed on 17th January 1949. This place is also the location where the novel “Aunt Suni” is based. The novel was written by Hyun Ki-young and it</p>

depicts the tragic history of Jeju April 3rd.



안내판 설명 2

[한글]

북촌은 제주시 조천읍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해변마을이다. 포구를 중심으로 ‘본동’, 서쪽에 서우봉과 접한 ‘해동’, 남쪽 선흘리 방향 중산간에 ‘역수동’이 있으며, 1990년대에 ‘한사동’이 새로 조성되어 지금은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운동가가 많았고 해방 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었던 곳이다. 1947년 3·1사건이 발생하지 얼마 후, 1947년 8월 13일 빠라를 붙여던 주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3명이 부상당하고, 1948년 4월 21일 무장대가 북촌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공격하여 선거기록을 탈취해간 사건이 있었으며, 1948년 6월 16일에는 북촌포구에서 우도지서 경찰관 2명이 무장대에게 살해되었다.

1948년 12월 16일 마을을 지키며 토벌대에 협조하던 민보단원 24명이 구좌읍 동북리 지경인 ‘낸시빌레’에서 군인들에게 집단총살 당했다. 1949년 1월 17일 너븐승이 인근에서 군인 2명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숨지자 북촌초등학교 주변 들과 밭에서 북촌주민 3백여 명이 집단학살 당하는 등 북촌마을은 4·3사건 최대의 피해마을 중 하나이다. 오랜 설촌 역사와 수려한 자연과 문화를 지닌 북촌마을, 명절처럼 제사를 한 날 한 시에 지내는 북촌마을 4·3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영문]

The Bukchon is a beach town located at the eastern edge of Jocheon-eup, Jeju-si. The “Root Town” is centrally located at the port, while the “Sea Town” is boarded by Seoubong on the western side, the “Water Rich Town” is in the mountains from the direction of southern Seonheul-ri, and “Han-Sa Town” was newly built in the 1990s, so it currently consists of four Nature Villages.

There were many anti-Japan activis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self-governed group’s act centered on the People’s Committee was invigoration after liberation from Imperial Japan.

A few months after the March first event occurred in 1947, police fired at residents who were passing out leaflets on 13 August, 1947, and three people were injured, and there was an incident on 21 April, 1948, when the armed resistance group attacked the Bukchon-ri National Commission Office to take the electoral record, and two police officers were killed by the armed resistance group on Udo in

Bukchon Port on 16 June, 1948.
 Twenty-four members of the People's Protection Group who had cooperated with the punitive forces were shot to death by soldiers at "Naen-Si-Bil-le" around Dongbok-ri, Gujwa-eup on 16 December, 1948. Two soldiers were killed in an attack by the armed resistance group near Neobeungsi on 17 January, 1949, and about 300 Bukchon residents were slaughtered in a field and farm around Bukchon Elementary School. Bukchon was one of the villages' most damaged in the Jeju 4·3 Incident.
 Bukchon, which has a long history, beautiful nature, culture, and holds an ancestor worship ritual on the same day and time, is guiding you to the historical grounds of the Jeju 4·3 Incident.



안내판 설명 3

큰 안내판 왼쪽으로 QR 코드가 비치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QR코드로 접속하면 알 수 없는 페이지가 뜬. QR 코드 생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임.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O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은 잘 조성된 유적지인만큼 안내판이 여러개 설치되어 있음.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안내판도 있지만 수정할 부분들이 많은 안내판도 있음.
- 큰 안내판 옆에는 QR 코드가 기재된 곳이 있으나 잘못된 코드 기재로 관련 웹사이트 연결이 불가능함.
- 비슷한 내용의 안내판이 가까운 장소에 여러개 세워져 있어서 그 효용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됨.
- 이동약자 접근은 가능하지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 코드는 부재함.

3) 개선방안

- 북촌마을은 가장 대표적인 4·3 유적지인만큼 체계적으로 유적지 안내판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잘못된 QR코드가 기재된 안내판을 철거하거나 다시 설치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한/영 안내판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기존안	수정안
북촌은 제주시 조천읍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해변마을이다. 포구를 중심으로 '본동', 서쪽에 서우봉과 접한 '해동', 남쪽 선흘리 방향 중산간에 '억수동'이 있으며, 1990년대에 '한사동'이 새로	북촌은 제주시 조천읍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해변마을이다. 포구를 중심으로 '본동', 서쪽에 서우봉과 접한 '해동', 남쪽 선흘리 방향 중산간에 '억수동'이 있으며, 1990년대에 '한사동'이 새로

<p>조성되어 지금은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운동가가 많았고 해방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었던 곳이다. 1947년 3·1사건이 발생하지 얼마 후, 1947년 8월 13일 뼈라를 붙어던 주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3명이 부상당하고, 1948년 4월 21일 무장대가 북촌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공격하여 선거기록을 탈취해간 사건이 있었으며, 1948년 6월 16일에는 북촌포구에서 우도지서 경찰관 2명이 무장대에게 살해되었다.</p> <p>1948년12월 16일 마을을 지키며 토벌대에 협조하던 민보단원 24명이 구죄읍 동북리 지경인 ‘낸시빌레’에서 군인들에게 집단총살 당했다. 1949년 1월 17일 너븐송이 인근에서 군인 2명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숨지자 북촌초등학교 주변 들과 밭에서 북촌주민 3백여 명이 집단학살 당하는 등 북촌마을은 4·3사건 최대의 피해마을 중 하나이다. 오랜 설촌 역사와 수려한 자연과 문화를 지닌 북촌마을, 명절처럼 제사를 한 날 한 시에 지내는 북촌마을 4·3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p>	<p>조성되어 지금은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운동가가 많았고 해방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조직이 활성화되었던 곳이다. 1947년 3·1사건이 발생하지 얼마 후, 1947년 8월 13일 뼈라를 붙어던 주민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3명이 부상당하고, 1948년 4월 21일 무장대가 북촌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공격하여 선거기록을 탈취해간 사건이 있었으며, 1948년 6월 16일에는 북촌포구에서 우도지서 경찰관 2명이 무장대에게 살해되었다.</p> <p>1948년12월 16일 마을을 지키며 토벌대에 협조하던 민보단원 24명이 구죄읍 동북리 지경인 ‘낸시빌레’에서 군인들에게 집단총살 당했다. 1949년 1월 17일 너븐송이 인근에서 군인 2명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숨지자 북촌초등학교 주변 들과 밭에서 북촌주민 3백여 명이 집단학살 당하는 등 북촌마을은 4·3사건 최대의 피해마을 중 하나이다. 오랜 설촌 역사와 수려한 자연과 문화를 지닌 북촌마을, 명절처럼 제사를 한 날 한 시에 지내는 북촌마을 4·3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북촌 마을은 오랜 설촌 역사와 수려한 자연과 문화를 지닌 마을입니다. 4·3 당시 주민들이 한 날 한 시에 토벌대에 학살당해 제사날이 모두 같은 날인 비극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북촌마을 4·3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p>
<p>The Bukchon is a beach town located at the eastern edge of Jocheon-eup, Jej-si. The “Root Town” is centrally located at the port, while the “Sea Town” is boarded by Seoubong on the western side, the “Water Rich Town” is in the mountains from the direction of southern Seonheul-ri, and “Han-Sa Town” was newly built in the 1990s, so it currently consists of four Nature Villages.</p> <p>There were many anti-Japan activis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self-governed group’s act centered on the People’s Committee was invigoration after liberation from Imperial Japan.</p> <p>A few months after the March first event occurred in 1947, police fired at residents who were passing out leaflets on 13 August, 1947, and three people were injured, and there was an incident on 21 April, 1948, when the armed</p>	<p>The Bukchon is a beach town located at the eastern edge of Jocheon-eup, Jej-si. The “Root Town” is centrally located at the port, while the “Sea Town” is boarded by Seoubong on the western side, the “Water Rich Town” is in the mountains from the direction of southern Seonheul-ri, and “Han-Sa Town” was newly built in the 1990s, so it currently consists of four Nature Villages.</p> <p>There were many anti-Japan activis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self-governed group’s act centered on the People’s Committee was invigoration invigorated after liberation from Imperial Japan.</p> <p>A few months after the March 1st shooting incident first event occurred in 1947, police fired at residents who were passing out leaflets on 13 August, 1947, and three people were injured.; and tThere was an other incident on 21 April,</p>

resistance group attacked the Bukchon-ri National Commission Office to take the electoral record, and two police officers were killed by the armed resistance group on Udo in Bukchon Port on 16 June,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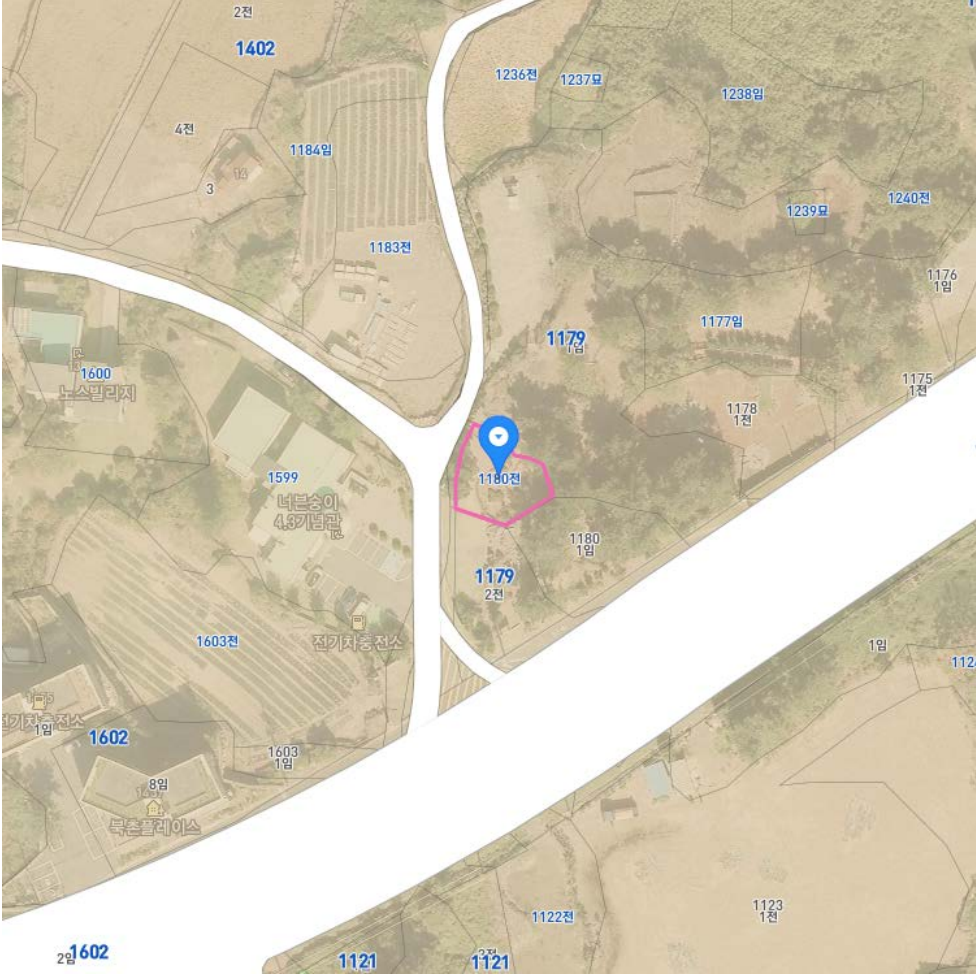
Twenty-four members of the People's Protection Group who had cooperated with the punitive forces were shot to death by soldiers at "Naen-Si-Bil-le" around Dongbok-ri, Gujwa-eup on 16 December, 1948. Two soldiers were killed in an attack by the armed resistance group near Neobeunsungi on 17 January, 1949, and about 300 Bukchon residents were slaughtered in a field and farm around Bukchon Elementary School. Bukchon was one of the villages' most damaged during the Jeju 4·3 Incident. Bukchon, which has a long history, beautiful nature, culture, and holds an ancestor worship ritual on the same day and time, is guiding you to the historical grounds of the Jeju 4·3 Incident.

1948, when the armed resistance group attacked the Bukchon-ri National Commission Office to take the electoral record., and On 16 June, 1948, two police officers were killed by the armed resistance group on Udo in Bukchon Port as well. on 16 June, 1948.

Twenty-four members of the People's Protection Group(Minbodan) who had cooperated with the punitive forces were shot to death by soldiers at "Naen-Si-Bil-le" around Dongbok-ri, Gujwa-eup on 16 December, 1948. Two soldiers were killed in an attack by the armed resistance group near Neobeunsungi on 17 January, 1949, and in response, about 300 Bukchon residents were slaughtered in a field and farm around Bukchon Elementary School. Bukchon was one of the most damaged villages'-most damaged- during the Jeju 4·3 Incident. Bukchon, which has a long history, beautiful nature, culture, and holds an ancestor worship ritual on the same day and time, is guiding you to the historical grounds of the Jeju 4·3 Incident.

Bukchon has a long history, beautiful nature and culture. Also, it is a village where the most villagers were killed by the military on the same day at the same time during the April 3rd. This is why it has a tragic tradition of having an ancestor worship ritual on the same day and time. We invite you to the April 3rd historic sites in Bukchon village.

애기무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180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46042, 126.689130</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p>1949년 1월 17일 함덕 주둔 2연대 3대대 군인들은 북촌 너븐송이 일대에서 주민들을 집단 총살함. 당시 죽은 성인의 시신은 임시 매장했다가 가족묘 등에 안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린아이는 임시 매장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음. 원래 이 장소는 4·3 이전에도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사망했을 때 매장하는 곳으로 사용했었음.</p>

안내판 설명



[한글]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 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현재 20여 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영문]

In the Bukchon-ri Incident, the dead bodies of adults were buried at other places by the survivors, but children who were killed at the time were temporarily buried at the places of the massacre and have remained untouched until today.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20 graves of children there and at least more 8 of them are for the children who were buried during the incident.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 · 평화 · 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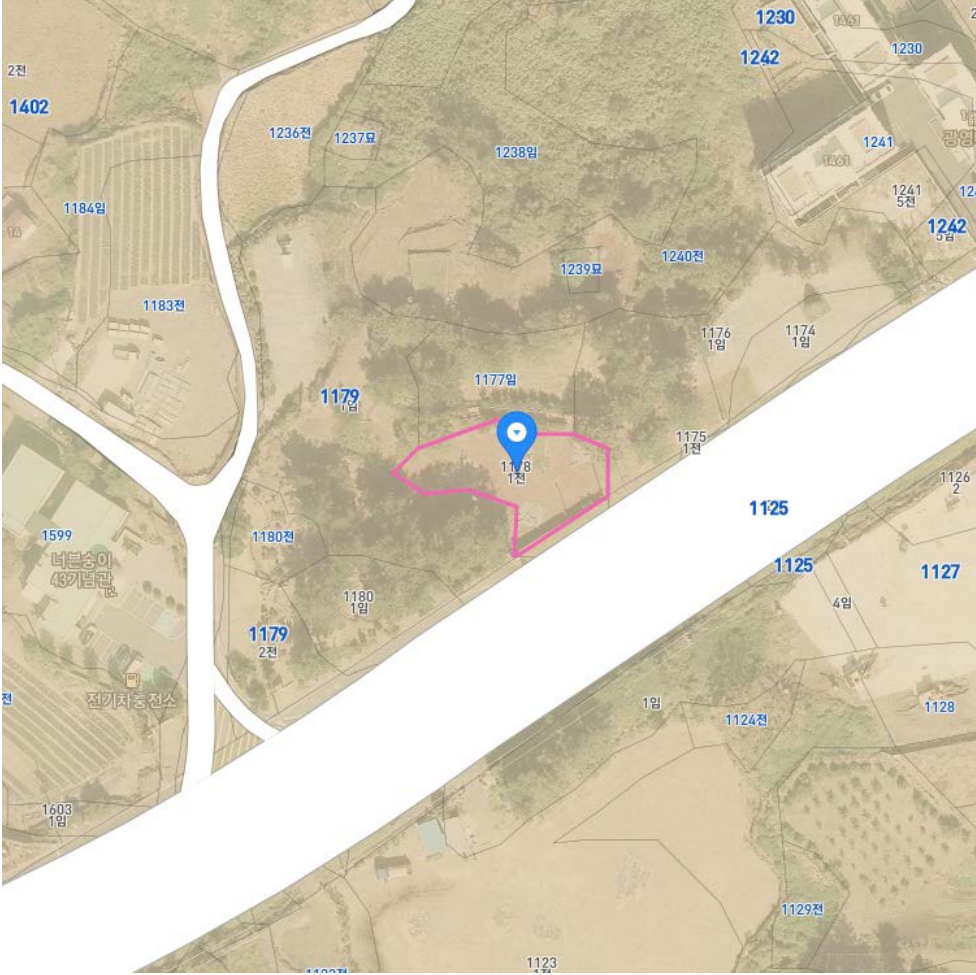
- 애기무덤 영어 안내판에 비문이 있음.
-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3) 개선방안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영어 안내판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기존안	수정안
<p>In the Bukchon-ri Incident, the dead bodies of adults were buried at other places by the survivors, but children who were killed at the time were temporarily buried at the places of the massacre and have remained untouched until today.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20 graves of children there and at least more 8 of them are for the children who were buried during the incident.</p>	<p>In After the Bukchon-ri massacre incident, the dead bodies of adults were buried at other places by the survivors, but children who were killed at the time were temporarily buried at the places of the massacre and have remained untouched until today.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20 graves of children there and at least more 8 of them are those for the children who were buried during the incident.</p>

순이삼촌 문학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178-1
위치(위경도)	<p>33.546095, 126.689592</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p>소설가 현기영이 1978년 발표한 소설 <순이삼촌>을 기념하는 비가 있는 곳. 소설 <순이삼촌>은 조천읍 북촌리를 배경으로 북촌대학살의 진상을 묘사한 중편 소설임. 문학비는 1949년 1월 북촌 대학살이 일어난 옴팡밭에 세워져 있음. 소설 <순이삼촌>의 문장들이 비석에 새겨져 있으며 작품 주인공인 '순이삼촌'을 형상화한 석조 조형물도 놓여져 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현기영은 소설 '순이삼촌'을 통해 4·3사건의 참혹상과 그 후유증을 고발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건의 진실을 문학학을 통해 공론화시켰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옴팡밭 부지를 매입하여 '순이삼촌 문학비'를 세웠다. 붉은 피로 상징되는 송이 위에 놓여져 있는 비석들은 당시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모습이다.</p>

[영문]

Novelist Hyun Gi-yeong revealed the brutality and the aftereffects of the Jeju April 3rd Incident and publicized the buried truth of the incident through his novel 'Aunt Suni'. In 2008, the government purchased the site of Ompangbat and erected the Monument of Literature for Novel Aunt Suni. Tombstones that were laid on ruddy scoria soil which represents the bloodshed during the incident are the symbolic icons of the victims of the Jeju April 3rd Incident.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옴팡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움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3) 개선방안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옴팡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178-1
위치(위경도)	33.546095, 126.689592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옴팡밭(너븐송이)은 1949년 1월 17일 북촌국민학교에 모인 사람들 중 70여명을 군인들이 총살한 장소. 2연대 3대대 군인들은 북촌리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결시킨 후 군경 가족을 제외하고 학살함. 1차는 북촌국민학교 동쪽밭과 당팓에서, 2차는 이곳 너븐송이 인근 '양개왓'에서, 3차는 '옴팡밭'에서 이뤄졌음.

안내판 설명



[한글]

옴팡밭

‘옴팡밭’은 ‘오목하게 속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 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에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있는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 아이의 무덤이다.

[영문]

Ompangbat

‘Ompangbat’ means ‘a farming field that has a concave surface’. Ompangbat in Bukchon-ri is one of the places where the Bukchon-ri Incident which saw the most people murdered in a single incident during the Jeju April 3rd Incident occurred on January 17th 1949. At the time, the dead bodies were scattered around the field like ‘white radishes uprooted and spread out’. There is a small grave in the center under which a child who was also killed during the incident was buried.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 · 평화 · 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020년 7월 조사 당시 훼손이 심각했던 ‘옴팡밭’ 안내판이 안내판 시트지 교체로 개선되어 있었음. (2021년 4월 촬영)		

2) 문제점

- 옴팡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움.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3) 개선방안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영문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기존안	수정안
<p>Ompangbat ‘Ompangbat’ means ‘a farming field that has a concave surface’. Ompangbat in Bukchon-ri is one of the places where the Bukchon-ri Incident which saw the most people murdered in a single incident during the Jeju April 3rd Incident occurred on January 17th 1949. At the time, the dead bodies were scattered around the field like ‘white radishes uprooted and spread out’. There is a small grave in the center under which a child who was also killed during the incident was buried.</p>	<p>Ompangbat ‘Ompangbat’ means ‘a farming field that has a concave surface’. Ompangbat in Bukchon-ri is one of the massacre sites of the Bukchon-ri incident during the April 3rd. On 17 January 1949, the most number of people were killed in a single incident in Bukchon-ri by punitive forces. where the Bukchon-ri Incident which saw the most people murdered in a single incident during the Jeju April 3rd Incident occurred on January 17th 1949. At the time, the dead bodies were scattered around the field like ‘white radishes uprooted and spread out’. There is a small grave of a child in the center under which a child who was also killed during the tragic incident. incident was buried.</p>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86
위치(위경도)	<p>33.552092, 126.680083</p> 
조사일	2020. 7. 17(금)
유적지 개요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5년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를 향해 자살 폭파 공격을 하기 위해 해안가에 구축한 시설물. 해안절벽을 따라 동굴진지 18곳, 벙커 2곳이 구축되어 있음.
안내판 설명 1	<p>[한글] 서우봉 일제진지동굴과 문주기알 (4·3 희생터) 서우봉은 서산봉(서모)으로도 불리며 봉우리를 기점으로 동쪽은 북촌리 서쪽은 함덕리이다. 북촌에 속한 오름 동쪽 면적이 서우봉 전체의 3/4을 차지한다. 진지동굴 (등록문화재 제309호) 서우봉 해안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20여개의 진지동굴이 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진지동굴은 입구는 3개인데 내부는 연결된 'ㄷ'자형으로 마을사람들은 '삼형제굴'이라고도 한다. 180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진입로가 있으며,</p>

진입로에서 30m정도 들어가면 진지동굴들을 볼 수 있다.

몬주기알

서우봉 정상에서 바닷가로 향한 해안절벽을 말한다. 절벽 아래에는 입구는 작지만 내부가 비교적 넓은 천연동굴이 있어, 4·3 당시 북촌민들 뿐만 아니라 함덕주민들도 숨었던 장소이다. 썰물일 때 해안가로 접근이 가능하다. 토벌대의 작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인 1948년 12월 26일경 4-5명의 여성들이 절벽 위에서 총살당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곳이다.

[영문]

Seoubong's Imperial Japan's Military Base Cave and Mon-Ju-Gi-AI (Sacrifice place of Jeju 4·3 Incident)

Seoubong is also called Western Mountain Peak (Seo-Mo), and on the east side is Bukchon-ri and on the west side is Hamduck-ri at its peak. The eastern area of the mountain peak belongs to Bukchon which occupies 75% of Seoubong.

Military Base Cave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 309)

Nearly 20 military base caves were made on this coast of Seoub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nearest military base cave from here has three entrances and it has shaped like a “≡ (Korean Alphabet Ti-geut)” inside. Local residents call it the “Three Brothers Cave.” If you go up about 180m, you will find an access road on the right side, and if you go into about 30m from the access road, you can see the Military Base Cave.

Mon-Ju-Gi-AI

This is a coastal cliff facing the sea from Seoubong summit. Below the cliff there is a natural cave which has a small entrance, but the inside is relatively wide. Residents from Bukchon and Hamduck hid there during the Jeju 4·3 Incident. When the tide ebbs, it is possible to go to the coast. On 26 December, 1948, when the operation of the punitive forces was at its peak, four or five women were shot to death above the cliff, and many other residents were sacrificed.





안내판 설명 2

[한글]

제주서우봉 일제 동굴 진지(등록문화재 제309호, 1945년 무렵 건립)
태평양전쟁이 끝나 갈 무렵, 일본은 패전이 질어지자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특수병기를 개발하여 배치했다. 특수병기는 비행기, 어뢰정, 선박 등에 폭탄을 싣고 연합군을 직접 공격하는 자살공격용 무기를 의미한다. 결전을 위해 제주도내에도 서우봉, 수월봉, 송악산, 삼매봉, 일출봉, 5곳에 특수병기가 설치된 특공기지가 건설되었다. 서우봉 일제동굴진지는 그중의 한곳으로 해안절벽을 따라 동굴진지 18곳, 병커 2곳이 구축되어 있다. 동굴진지 총 길이는 약 340m에 이르며 5부 능선에 위치한 왕 자형 동굴진지는 약 100m로 가장 규모가 크다. 자살공격을 위한 특공기지의 구축형식뿐만 아니라 제주의 방어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영문]

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Seoubong Peak, Jeju(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309, Built around 1945)

Towards the end of the Pacific War, the Japanese developed a special kamikaze-style bomb, designed to be loaded on planes and torpedo boats, in an effort to turn the tide in their favor. The bombs were deployed in five places on Jeju Island, including Seoubong Peak, Suwolbong Peak, Songaksan Mountain, Sammaebong Peak, and Ilchulbong Peak. At Seoubong Peak, the Japanese built eighteen tunnel fortifications and two bunkers along the coastal cliff. The tunnel fortifications are about 340 meters long in total. The largest fortification, located halfway up the peak, is about 100 meters long and is shaped like the character “王”. The remains of these facilities are a valuable heritage that shed light on the Japanese strategy to defend Jeju Island against the Allied Forces.

	 <p>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濟州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 濟州・慶尚道(今) 西嶽山麓 洞窟陣地</p> <p>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Seobong Peak, Jeju</p> <p>동북문화재 제309호, 1945년 수립 2012년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309, Built around 1945</p> <p>태평양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은 제인이 끊어지자 보상을 약속하기 위한 특수병기를 개발하여 배치하였다. 특수병기는 비행기, 미사일, 선박 등에 폭탄을 싣고 연합군을 직접 공격하는 자살공격을 무기를 의미한다. 결전을 위해 제주도내에도 지공방, 수뢰방, 송아산, 삼재봉, 일출봉, 5호에 특수병기가 설치된 특공기지의 건설되었다. 서우봉 일제동굴진지는 그중의 하나로 폭탄발射을 위한 동굴진지 18곳, 왕(王)자형 구조물이 있다. 동굴진지 총 길이는 약 340m에 이르며 5부 능선에 위치한 왕(王)자형 동굴진지는 약 100m로 가장 규모가 크다. 자살공격을 위한 특공기지의 구축특수용안 사나와 특수의 방어전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p> <p>Towards the end of the Pacific War, the Japanese developed a special kamikaze-style bomb, designed to be loaded on planes and torpedos boats, in an effort to turn the tide in their favor. The bombs were deployed in five places on Jeju Island, including Seobong Peak, Seowil-bong Peak, Seogak-san Mountain, Seonjae-bong Peak, and Seohal-bong Peak. At Seobong Peak, the Japanese built eighteen tunnel fortifications and two bunkers along the coastal cliff. The tunnel fortifications are about 340 meters long in total. The largest fortification, located halfway up the peak, is about 100 meters long and is shaped like the character "王". The remains of these facilities are a valuable heritage that shed light on the Japanese strategy to defend Jeju Island against the Allied Forces.</p> <p>太平洋戦争終結直前の戦い、朝鮮半島に渡る日本は連戦連敗の不利な状況に陥り、敗北を恐れた軍は、航空機や潜水艦、戦艦に搭載した自爆兵器を開発し、敵艦や艦隊に襲撃する自爆兵器を開発した。この自爆兵器とは、飛行機、船舶などに爆弾を載せ、連合軍に直接攻撃する自爆兵器のことである。決戦のため、済州道(今)の西嶽山(ソウボウ山)の西嶽山麓(ソウボウ山麓)に、地蔵洞(ジダン洞)・龍潭洞(リョン담洞)・三海峯(삼해봉)・日誌峰(일지봉)の4カ所に特殊兵器が設置された特殊兵器が設置された。西嶽山麓(ソウボウ山麓)に設置された特殊兵器は、約340mに達する。最大の特殊兵器は、約100mに達する。王(王)字型に設計されている。西嶽山麓(ソウボウ山麓)に設置された特殊兵器は、重要な遺産である。</p> <p>UNESCO World Heritage Cultural Organization 1972 2012</p> <p>Jeju</p>
<p>안내판 설명 3</p>	<p>[한글] 북촌리 서 봉 일제 동굴 진지 (등록 문화재 제309호) 소재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6번지 일대. 태평양전쟁 말기(1945년) 일본 해군이 결7호 작전에 의거 연합군 함정에 대해 자살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북촌리 서 (글자 벗겨짐)봉 등사면에 20여기 조성. 왕(王)자형 동굴 진지를 포함하여 특공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이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p> <p>[영문] 없음</p>



안내판 설명 4

[한글]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濟州犀牛峰日帝洞窟陳地 1-2號)
 등록문화재 제309호. 1945년 건립

이 시설물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연합군 함대를 향해 자살 폭파 공격을 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동굴식 갱도 18곳과 벙커 시설 2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王’ 자형과 비슷한 동굴 진지는 제주도 내 다른 일본 해군 특공 진지에 비해 훨씬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제주도민뿐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까지 동원돼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영문]

Tunnel Fortifications of Imperial Japan on Seoubong Peak, Jeju(No.1-2)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309, Built around 1945

Built by the Japanese for suicide attacks against the fleet of the allied forces during the Pacific War, this encampment consists of 18 cave-type mines and 2 bunkers. Of these mines, that in the form of the character ‘王’ was built in a far more thorough and systematic manner than other Japanese naval bases for special attacks in Jeju residents and others who were mobilized by the Japanese military to build the facility.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해당 없음	일제시기 유적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는 수백미터 해안에 20개의 동굴이 조성된 유적으로 가는 길목 곳곳에 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내판을 따라가면 동굴을 찾기 어렵지 않음. 그러나 역할이 다른 동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음.		

2) 문제점

-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유적지 안내판의 경우, 글자나 그림이 벗겨진 부분이 보이나 관리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선 요청을 하기 어려움. 동굴 붕괴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에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문화유산본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 계단을 내려가야 볼 수 있는 <안내판 4번>을 비롯한 각 동굴진지 안내판은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움.
- 모든 안내판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유적지에는 동굴식 갱도 18개, 벙커 2개 등 총 20개의 동굴진지가 있음. 동굴의 용도가 사무실, 창고, 잠수함 격납고 등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동굴진지 앞에 붙은 안내판의 설명이 모두 동일함.

3) 개선방안

- 안내판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는 제주시내와 가까운 대표적인 대규모 다크투어 유적지로 접근성과 보존상태가 좋음. 이에 다양한 방문객들이 방문한다는 점을 감안해 안내판 높이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는 이동약자 등을 위해 유적지 입구(안내판 2, 3)에도 동굴진지 사진을 추가해 직접 동굴 앞에 가보지 못하는 이동약자들도 동굴진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동굴진지 중에서 특징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동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
- 안내판 설명 4의 영문 오류는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함.

기존안	수정안
<p>Built by the Japanese for suicide attacks against the fleet of the allied forces during the Pacific War, this encampment consists of 18 cave-type mines and 2 bunkers. Of these mines, that in the form of the character “_” was built in a far more thorough and systematic manner than other Japanese naval bases for special attacks in Jeju. This is an historic site testifying to the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of Jeju residents and others who were mobilized by the Japanese military to build the facility.</p>	<p>Built by the Japanese for suicide attacks against the fleet of the allied forces during the Pacific War, this encampment consists of 18 cave-type mines and 2 bunkers. Of these mines, that in the form of the character “_” was built in a far more thorough and systematic manner than other Japanese naval bases for special attacks in Jeju. This is an a historic site testifying to the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of Jeju residents and others who were mobilized by the Japanese military to build the facility.</p>

제주4·3 북촌 주민 참사의 현장(북촌초등학교 내 추념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위치(위경도)	<p>33.547356, 126.691659</p> 
조사일	2020. 7. 17(금)
유적지 개요	1949년 1월 17일 최소 300명 이상의 북촌리 주민들이 군에 의해 희생된 이른바 '북촌사건'이 일어난 장소 중 한 곳임. 이날 학교 운동장에서 수 명이 총살당했으며, 이후 인근 당팻, 너븐숭이(옴팡밭) 등에서 추가 학살이 이뤄졌음.
안내판(추념비 앞면) 설명 1	<p>[한글] 제주4·3 북촌주민참사의현장 건립 서기 2013년 10월 27일 지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영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황요범 건립 북촌리장 이철림 외 리민일등 주관 북촌초등학교 총동창회장 김민중 외 회원일등</p>

협찬 4·3희생자 북촌유족회장
 이재후 외 유족일동
 석물제공 삼우개발 대표 고범석 고석주
 시공 제주시 호남석재사 대표 서강배
 휘호 현강 김석보

[영문]
 없음



안내판(추념비
 뒷면) 설명 2

[한글]
 이곳은 제주4·3의 최대 희생지인 북촌리민 대참사(大慘死)의 현장이다. 1949년 양력 1월 17일 새벽 너븐숭이 고갯길에서 지나가던 군인차가 무장대의 기습으로 군인 2명이 희생되자 그 보복(報復)으로 대참사가 시작되었다. 군인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온 마을사람을 이곳으로 집결시켜 놓고 군경가족과 민보단가족을 제외한 전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한 사격으로 7·8명이 희생되었다. 마당은 아비규환(阿鼻叫喚)이었다. 이어서 4·50명씩 당팔으로 옴탕밭으로 몰고가서 사살(射殺)했으니 300여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전 가옥이 소실(燒失)되고 가족이 흩어져 행방불명이 되니 전체 희생자는 434명이나 되었다. 학교는 개교한지 7년만인 1949년 1월 10일 폐교되었다. 죽다 남은 주민들은 함덕으로 소개(疏開)되어 모진 고생을 하며 5개월만에 복구(復舊)되어 억척스럽게 마을을 이루고 사택(私宅)을 빌려 분교장(分敎場)을 개설하니 2년 9개월만에 본교가 다시 탄생했다. 배움의 길이 중단되었던 당시 재학생 216명도 폐교 후 53년만에 명예졸업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제 4·3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이 규명되고 역사의 진실이 조명되어 평화시대의 산교육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오늘날 북촌초등학교는 그 날의 참상을 말끔히 씻고 후학(後學) 양성의 산실(産室)로 우뚝 서서 70년의 새 역사를 열어 가고 있다.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북촌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건립한만큼 학교 자체에 대한 설명 및 해당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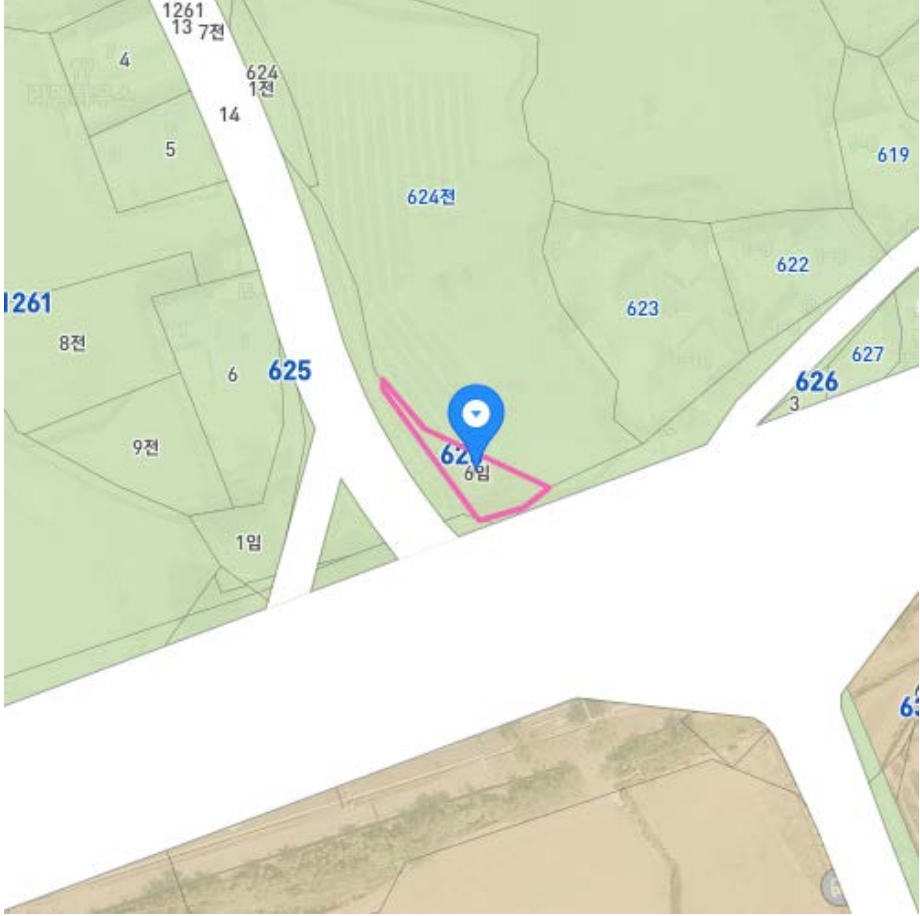
2) 문제점

- 이동약자 접근은 가능하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북촌국민학교는 제주4·3 당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벌어진 장소로 대표적인 4·3 유적지임. <안내판 2>에 있는 내용만 보면 1951년 10월께 이후 학교가 재건되는 등 이후 북촌리의 상황이 해결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1954년 1월 북촌국민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이고 사건' 등으로 주민들이 고초를 겪는 등 이후에도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업약은 지속되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 추가.
- 4·3 당시 북촌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 추가 설치.
- 북촌국민학교는 4·3 당시 토벌대(국가)의 무자비한 행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유적지임. 학교총동창회 등이 세운 추념비는 학교의 역사가 중점적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 추념비 외에 당시 북촌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함.

정지폭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625-6 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47760, 126.694337</p> 
조사일	2020. 7. 17(금)
유적지 개요	정지폭낭은 북촌리 입구에 있던 500년 수령의 팽나무. 4·3 당시 토벌대가 총질을 해 나무를 죽였음.
안내판 설명	<p>[한글] 정지폭낭 기념비 이 곳은 정지폭낭과 연못이 있어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쉬었다 가는 장소였다. 정지폭낭은 수령 약 800년 된 팽나무로 마을의 정자 역할을 하였으나 1958년 9월 태풍 ‘사라’호에 의해 한쪽으로 쓰러지자 제거하고 다시 심었다. 이 나무 옆에 있는 제주목사 선정비에는 4·3사건 당시 총탄자국들이 선명히 남아 있다.</p> <p>[영문] Jeong-Ji-Pong-Nang Memorial Monument This was a place of rest for bureaucrats of the Choseon Dynasty with a pond. Jeong-Ji-Pong-Nang has a Chinese hackberry that is approximately 800 years old</p>

in the pavilion, but it fell down after Typhoon Sarah in September 1958. There are distinct bullet marks from the jeju 4·3 incident riddling the memorial monument for the goodness of Jeju government officials beside the tree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X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020월 7월 조사 당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던 안내판의 시트지 교체가 이뤄짐. (2021년 4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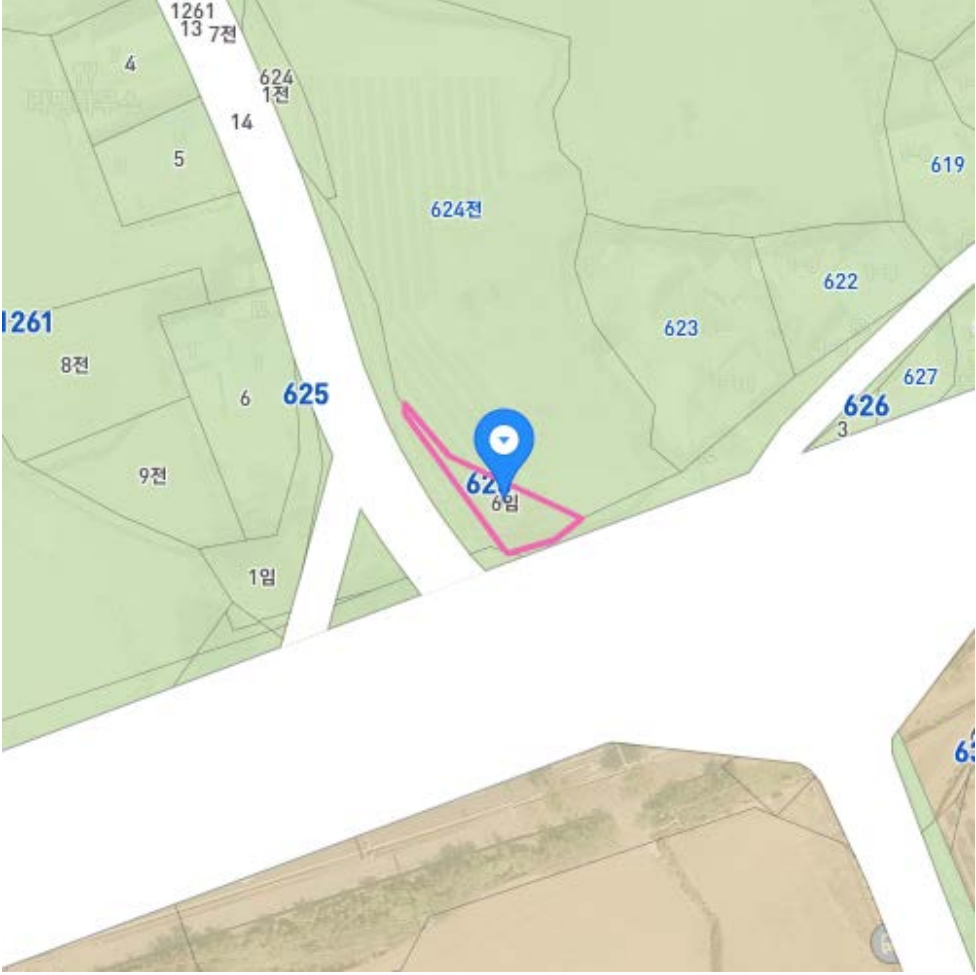
2) 문제점

- 안내판에는 4·3 당시 토벌대가 총질을 해 나무를 죽였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있지 않음.
- 도로변에 위치해 이동약자 접근은 가능하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3) 개선방안

- 안내판에 4·3 당시 토벌대가 총질해 나무를 죽였다는 내용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당팻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625-6 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33.547760, 126.694337</p> 
조사일	2020. 7. 17(금)
유적지 개요	당팻은 4·3 당시 군에 의해 북촌리 주민들이 희생된 장소. 1949년 1월 17일, 군인들이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인 지역 주민들을 이곳으로 끌고와 학살했음.
안내판 설명1	<p>[한글] 당팻(4·3희생터) 1949년 1월 17일 북촌학살 때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인 북촌주민들은 군인들에 의해 이곳 ‘당팻’으로 끌려왔다. 주민들을 이곳으로 끌고 오자마자 곧바로 총살했다. 당시 북촌학살은 북촌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동쪽의 ‘당팻’과 서쪽의 ‘너븐송이’로 나누어 이루어졌고 이곳 ‘당팻’에서는 100여 명이 희생되었다.</p> <p>[영문] Dang-Pat (Sacrifice Place of the Jeju 4·3 Incident)</p>

At the time of Bukchon Massacre on 17 January, 1949, Bukchon residents who had gathered in the schoolyard of Bukchon Elementary School were taken to Dang-Pat by soldiers. As soon as the soldiers had taken the residents to this place, the troops killed them. The Bukchon Massacre was committed on the east side of Dang-Pat and the west side of Neobeusungji of Bukchon Elementary School.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020월 7월 조사 당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던 안내판의 시트지 교체가 이루어짐. (2021년 4월 촬영)
----	--

2) 문제점

- 도로변에 위치해 이동약자 접근은 가능하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3) 개선방안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9연대/2연대 대대 본부(함덕국민학교)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4 일대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02-83(안내판 위치)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40973, 126.669376</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함덕국민학교에는 4·3 당시 9연대와 2연대의 토벌대 1개 대대가 주둔. 교실은 300여명이 넘는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됨. 또한 생포된 사람들의 임시 수용소로 활용되었음. 교장 관사는 임시 지사로 사용했음.

안내판 설명



[한글]

함덕리 설촌유래(咸德理 設村由來)

함덕서우봉해변으로 유명한 함덕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14km에 위치한 말발굽형 해안마을이다.

함덕리 인근 신석기시대 유적을 통해 2,000~1,500여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 또는 왕래했던 흔적을 알 수 있고, 함덕리 서편 해안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7세기 후반 이래 마을이 들어섰으며 이후 17세기 이르기까지 계속 마을이 형성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원종14년(1273년) 여·원연합군이 함덕포로 상륙작전 실시, 고려 충렬왕 26년(1300년) 도내 14개현 중에 함덕현이 설치된 사실은 함덕포가 13세기 후반 이전부터 대규모 인력과 선단의 입·출항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포구였으며, 그 당시 상당한 규모의 마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태종16년(1416년) 함덕현이 제주목에 속한 직촌의 위상을 지닌 함덕현촌으로 편제되었으며, 17세기 중반 ‘괘뭇’ 일대 형성된 고여지리는 저지촌을 일컫는 마을인데 『제주읍지(1780년대)』에는 함덕리만 표기된 것으로 보아 고여지리가 행정적으로 함덕리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읍지(1780년대)』에는 함덕리가 제주목 좌면에 소속되어 있었고 『삼군호구 가간총책(1904)』에는 신좌면에 편입되어 있었다. 1914년 신흥리가 분리되었으며, 1935년 조천면에 편입되었고 1985년 조천읍에 소속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속한 함덕리는 현재 서쪽으로부터 1구, 2구, 3구, 4구(1972년 3구에서 분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마을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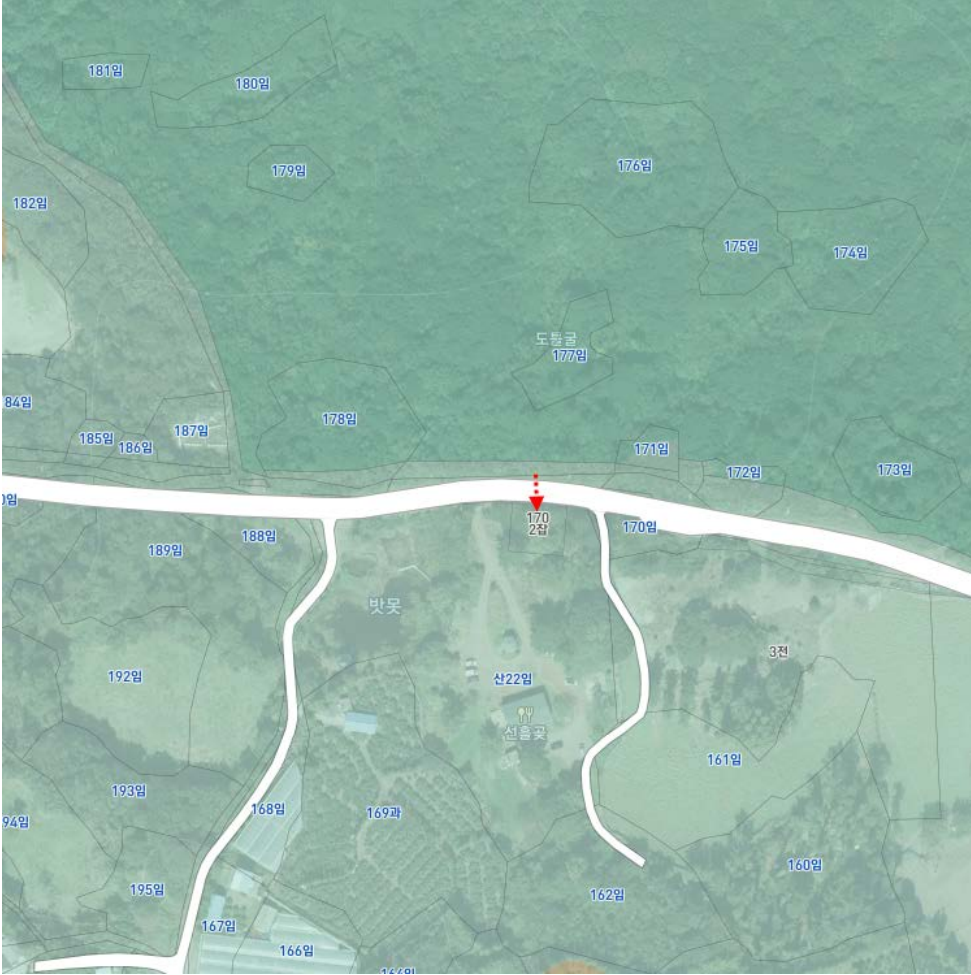
2) 문제점

- 9연대 대대 본부(함덕국민학교) 옛터는 조천면 지역에 주둔하던 토벌 군인의 거점이었고 조천면 지역 주민들이 잡혀들어가면 생사를 기약할 수 없었을 만큼 악명 높은 곳이었음. 이에 제주4·3에 있어 상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일대에는 제주4·3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설촌유래를 설명하는 안내판만 있음.

3) 개선방안

- 9연대, 2연대의 토벌대 1개 대대가 주둔했던 함덕국민학교는 300여명이 넘는 군인들의 숙소와 생포된 사람들의 임시 수용소로 활용됐던 공간임. 제주4·3 당시 9연대 대대 본부(함덕국민학교) 옛터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세워야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설치시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선흘리 4·3희생자위령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70-2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08806, 126.718080</p> 
조사일	2020. 8. 21(금)
유적지 개요	4·3 당시 희생된 선흘리 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간. 2019년에 지어졌으며, 희생자 위령비, 마을의 역사와 4·3 당시 참상에 설명 및 시(詩)를 적은 표지석, 희생자 명단이 있는 표지석 등이 있음.
안내판 설명1(앞면)	<p>[한글] 선흘곶에서 우는 새 김관후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기 시작하네 그 울음 숲을 버리고 어디로 향할까 마을주민들 하나둘 대섭이굴로 모여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 치마폭으로 감싸안네 검은개 노랑개의 그림자 어른거리고 꼭꼭 숨어라 내일 아침 볼 수 있을까</p>

총소리 코밑까지 밀려와 심장을 흔들 때
 도톨굴 목시물굴 뽕뽕디굴로 몸을 숨겼네
 꺾 꺾, 꺾 우는 소리 묻혀버렸네
 싹싹거려 구르는 방울새 소리
 끼끼끼끼 청딱따구리 소리도 숨어버렸네
 휘휘 휘 휘잇 뽕뽕뽕뽕 휘웃 휘웃 휘이 찌잇
 되지빠귀 소쩍새 산솔새 증증증 모두 사라졌네
 마파람으로 다복솔 잔가지까지 바르르 떨고
 까악까악 까마귀가 저승에서 다시 손짓하는데
 탕탕탕 탕탕탕 피눈물소리 가까이 들리는데
 아아, 선흘곳이 후후 흔들리며 어디로 숨을까
 저승으로 날아가 영영 생이별할까
 가슴 한가운데 멍 자국이 아픈 세월 말해주네
 2019년 6월에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2(뒷면)**

[한글]
 4·3과 선흘리
 김관후
 선흘리는 농업이 주업으로 특히 축산업이 번창한 마을이었다. 방대한 규모의 선흘곳이 있어 땀나무가 풍부했고 반못과 골연못은 주민들의 식수와 우마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선흘곳 일대는 아름드리 나무와 크고 작은 자연돌굴이 있어 4·3의 난리를 임시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무장대의 영향이 컸던 중산간 마을이어서 토벌대의 주목을 받던 마을이었다. 소개 명령 이전부터 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자 주민들은 모두 선흘곳 등으로 피신하기 시작했다. 선흘곳은 방대한 규모의 난대림 균락지에 자연동굴 등이 많아 주민들이 자연스레 피신처로 삼았다. 소개령 이후에도 숨어 있던 주민들은 굴이 하나둘 발각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희생을 치루게 된다 도톨굴 목시물굴 뽕뽕디굴 대섭이굴 등지에 숨어있던 주민들은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어 현장에서 수십 명이 희생되었고 나머지는 함덕대대 본부로 끌려갔고 그들 중 다수 주민들은

서우봉이나 북촌리 역물 등지에서 총살당한다. 소개령에 따라 함덕 초천 등지로 피난간 주민들도 도피자가족이란 이유로 함덕리 모래밭 등지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다. 1948년 11월 21일 마을이 전소해버리자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내려가거나 동백동산으로 숨어들어갔다. 1949년 봄 주민들은 낙선동에 성을 쌓고 함바집을 지어 집단거주를 시작했다. 1954년 통행제한이 풀리면서 주민들은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확인한 선흘리 4·3 희생자는 2백 십여명에 이른다.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안내판 뒷면에 있는 '4·3과 선흘리'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해서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움.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뒷면의 내용을 계단 아래에서도 볼 수 있게 추가 안내판을 설치.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불카분당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095-2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12847, 126.706331</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p>1948년 11월 21일 선흘리가 초토화되면서 마을이 불탔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 온 마을이 불타면서 마을 안에 있던 팽나무에 불이 옮겨붙음. 불이 붙어 죽은 줄로 알았던 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하더니 오늘날까지 생명을 이어가고 있음. 이 나무 한 쪽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음.</p>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O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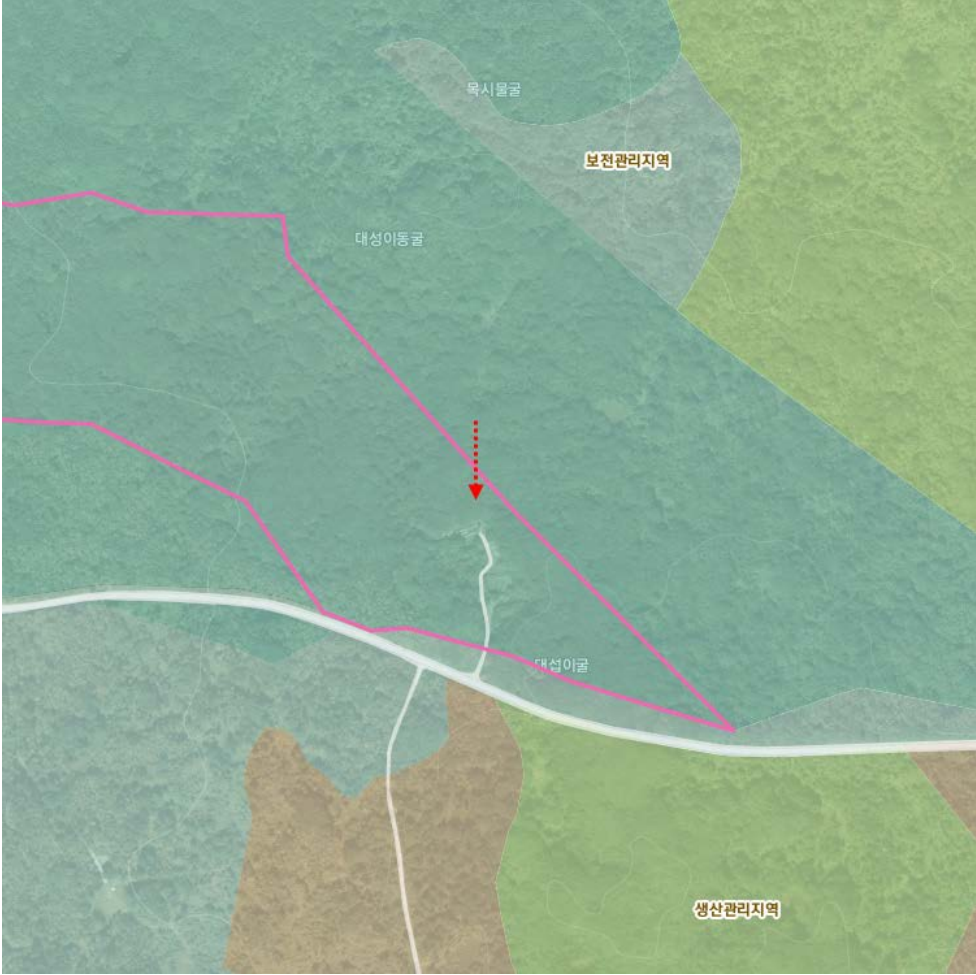
2) 문제점

- 이곳들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 마을 길 반대편에 이정표가 남아있을 뿐 불카분당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3) 개선방안

- 선흘 마을 안에 있는 4·3 유적지이자 4·3을 딛고 살아낸 제주도민들의 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나무임. 이에 이 장소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설치 시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목시물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6
위치(위경도)	<p>33.508505, 126.72766</p> 
조사일	2020.8.21(금)
유적지 개요	1948년 11월 21일 초토화작전이 개시되면서 선흘리 주민들이 은신했던 곳. 5일 뒤인 11월 26일 군경 토벌대에 의해 이 굴이 발각되면서 굴 입구에서 주민들이 총살을 당함. 이날 이곳에서만 40여 명의 주민들이 희생됨.
안내판 설명	<p>[한글] 제주 4·3유적지(목시물굴) 위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6번지 이곳은 1948년 11월 26일 선흘리 주민 200여 명이 굴속에 숨어 있다가 토벌대에 의해 굴이 발각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 40여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휘발유를 뿌려 시신을 유기한 비극의 현장이다.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일대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마을 일대가 소각된 이후 주민들은 곳자왈과 동굴을 은신처로 삼아 살아 생활해 왔으며, 11월 25일에 목시물굴 서쪽 1km 인근에 있던 도틀굴이 발각되면서 그 굴속에 숨어 있었던 주민들이 현장에서 총살당하고, 일부는 함덕</p>

대본부로 끌려가 밤새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 한두 사람이 목시물굴의 존재를 말하게 되었다. 11월26일 아침, 박격포를 쏘며 목시물굴에 도착한 토벌대는 굴속으로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숨어있는 주민들에게 굴 밖으로 나올 것을 종용하고 굴 밖으로 나온 어린이와 노인 등 주민 4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집단 학살하고 시신은 불태웠다. 토벌대는 목시물굴 학살 다음날인 11월27일에는 선흘2리 주민들이 피신했던 벤뱅디굴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영문]
없음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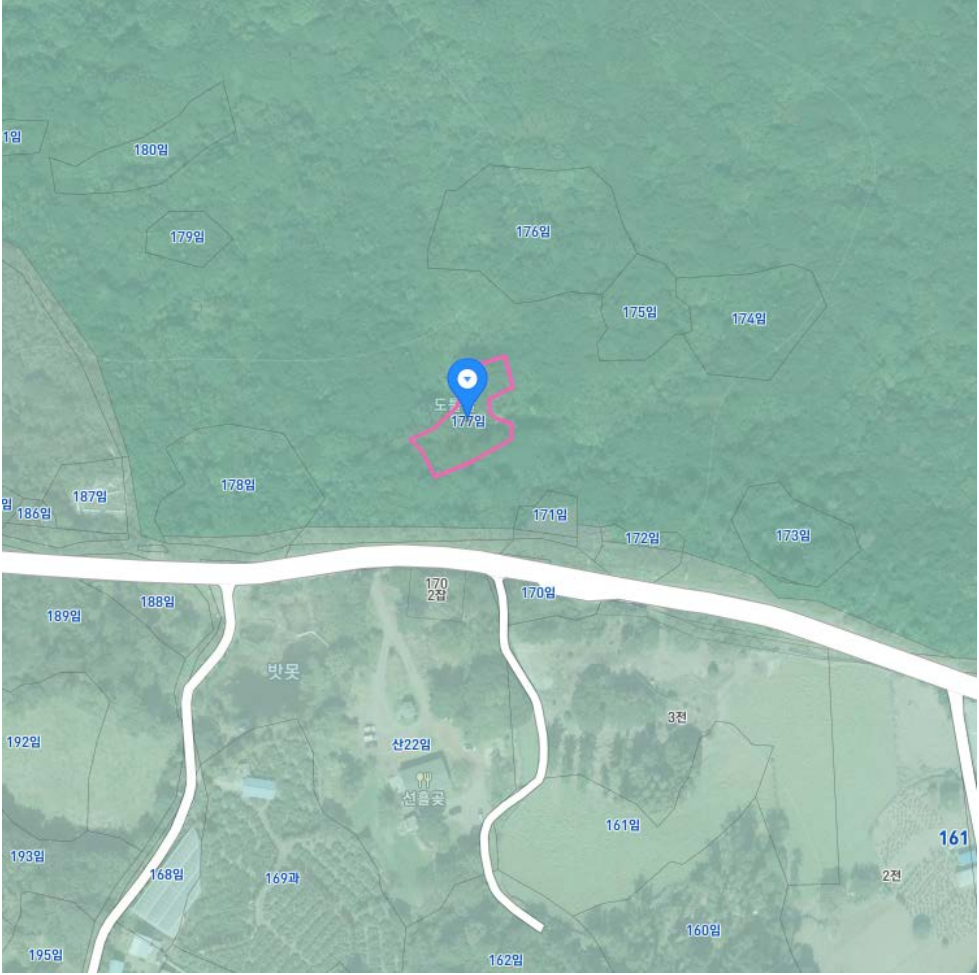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유적지와 안내판 모두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도틀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77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09502, 126.718117</p> 
조사일	2020.8.21(금)
유적지 개요	<p>1948년 11월 21일 초토화작전이 개시되면서 선흘리 주민들이 은신했던 곳. 4일 뒤인 11월 25일 굴을 발견한 군경토벌대가 굴 안으로 수류탄을 던져 터트려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음. 굴 입구로 나온 주민들 중 일부는 토벌대에 의해 총살됐고 나머지는 함덕에 주둔하고 있던 대대본부에 감금됨.</p>
안내판 설명1 (탐방로 입구)	<p>[한글] 4·3 유적지 The April Third Uprising Historical Site 반못굴 (도틀굴) 소재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6번지 ‘도틀굴’이라고도 불리는 ‘반못굴’은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가 토벌대에 의해 초토와 된 후, 주민들이 피신했던 곳이다. 마을이 초토화되자 일부 주민들은 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피난했다. 하지만 기르던 가축과 가을걷이한 곡식을 두고 갈 수 없었던 많은</p>

주민들은 임시 피난처를 찾았다. '며칠만 숨어 있으면 사태가 끝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찾아든 곳이 숲이 우거지고 천연동굴이 산재한 이 일대 '선흘곶'이었다. '반뫓굴'엔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25명 정도 숨어 있었다. 인근의 '목시물굴', '벤뱅디굴' 등에도 주민들이 숨어들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만인 11월 25일 굴이 발각되었고, 9연대 3대대 군인들에 의해 피신했던 주민들이 체포됐다. 그들 중 18명은 밖으로 끌려나오자마자 곧바로 총살됐다. 나머지는 함덕 대대본부로 끌려가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이튿날 '목시물굴'도 발각되어 주민 40여 명이 총살되는 등 선흘마을 주민들은 이 일대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반뫓굴은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동굴보호차원에서 입구가 막혀 있다.

[영문]

Banmot Cave (Doteul Cave)

Location San26, Seonheul-ri, Jocheon-eup, Jeju City.

'Banmot Cave' is also known as 'Doteul Cave'. It was a shelter for residents who escaped when Seonheul-ri was burned by the security force on November 21, 1948.

After their village was burned, some residents escaped to coast villages following the command of the soldiers from the 9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However, many residents who couldn't leave their livestock and harvest found temporary shelter. They escaped to this 'Seonheul Got' with its thick forest and scattered natural caves thinking that 'This incident will end soon in a few days.' In 'Banmot Cave', approximately 25 young men were hiding. Others escaped to nearby 'Mokshimul Cave' and 'Baenbaengdi Cave'. However, in just 4 days, on November 25, the cave was discovered and soldiers from the 3rd Battalion, 9th Regiment arrested the residents, 18 of them were executed on the spot. Others were taken to Hamdeok battalion headquarters and tortured. The next day, 'Mokshimul Cave' nearby 'Banmot Cave' was discovered as well and approximately 40 residents were executed. In like manner, many residents of Seonheul were victimized here.

There is no trace of the tragedy in Banmot C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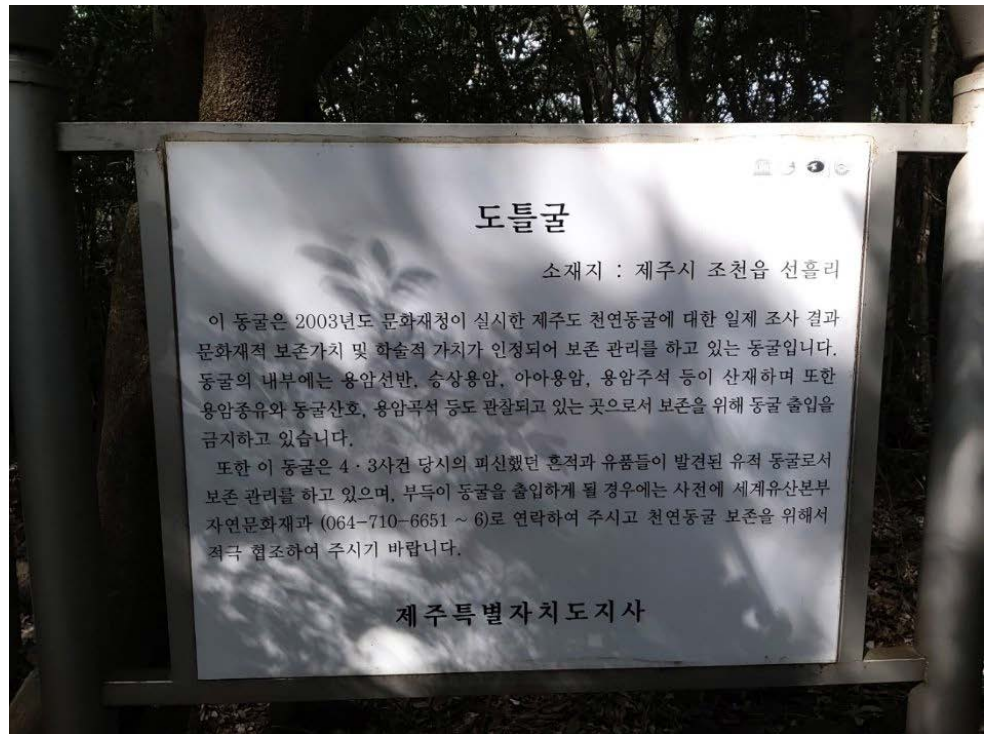


**안내판 설명2
(유적지 앞)**

[한글]
 도틀굴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이 동굴은 2003년도 문화재청이 실시한 제주도 천연동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문화재적 보존가치 및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 동굴입니다. 동굴의 내부에는 용암선반, 승상용암, 아아용암, 용암주석 등이 산재하며 또한 용암종유와 동굴산호, 용암곡석 등도 관찰되고 있는 곳으로서 보존을 위해 동굴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굴은 4·3사건 당시의 피신했던 흔적과 유품들이 발견된 유적 동굴로서

보존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득이 동굴을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064-710-6651~6)로 연락하여 주시고 천연동굴 보존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문]
 없음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안내판2의 경우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유적지와 안내판 모두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 안내판 2(유적지 앞)의 경우, 용암동굴로서의 자연적 가치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제주4·3에 관해서는 비교적 짧게 언급하고 있음. 바로 앞 설명판만 보고서는 역사적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안내판 2(유적지 앞)의 경우에는 제주4·3에 관한 역사적 설명을 더 자세히 언급해야 함.

낙선동 4·3 성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서5길 7(선흘리 2720)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15247, 126.694295</p> 
조사일	2020. 7. 17(금)
유적지 개요	<p>1949년 봄 선흘리 주민들이 토벌대의 재건명령에 의해 지은 성. 4·3성은 인민유격대 습격 차단을 명분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벌대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지음. 2007년 유적지 정비사업을 통해 낙선동 성터가 복원되었음.</p>
안내판 설명 1	<p>낙선동 4·3 유적지 Nakseon-dong April 3rd Historical Site</p> <p>[한글] 낙선동 4·3 성 제주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 마을들이 토벌군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이곳 선흘리도 11월 21일 마을이 전소되어 수많은 인명희생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1949년 봄 당국의 재건명령에 의해 길이 약 500m의 사각형 모양의 성을 쌓고서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p>

	<p>당시 제주도 전역에 쌓았던 성은 무장대 습격 차단이라는 명분과 함께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성 안에서의 집단생활 또한 힘들었다. 주거지는 허름하고 좁은 가건물 (함바집)이 전부였다. 또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야 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이 대거 희생되어 성을 지키는 일은 부녀자와 노인들의 몫이었다. 이제 이곳 낙선동에 4·3의 폐허를 딛고 재건의 토대로 삼았던 전략촌성의 일부를 복원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한다.</p> <p>복원내역 성곽-292m, 가건물 (함바) -1동, 초소.막 -5동, 지서-1동, 화장실 (통시)- 4동</p> <p>[영문] Nakseon-dong 4·3 Fortress In November 1948, when the Jeju April 3rd Incident was heading to its climax, destruction of the mid-mountain villages started. The punitive force perpetrated the destruction, leaving the villages totally destroyed. On the 21st of the month, Seonheul-ri also suffered numerous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as the village was burnt to ashes. The government permitted the surviving residents to return to their hometown in the spring of 1949, but only after the villagers had completely built a square shaped enclosure of about 500 meters. The fortress-like enclosure was purportedly built to block and prevent attacks from armed rebels. However, they were used by the government to effectively contain and control the movement of the residents. Living in a group, inside the enclosed area, was not easy nor a happy existence. All that existed were shabby shelters and cramped camps, similar to those used by day laborers at construction sites. The villagers, after toiling in the fields all day, had to take turns servicing as village guards at night. The surviving women and old people had to fulfill the duty to secure and guard the fortress, due to the absence of the young men who were victimized during incident. In order to create an educational site that represents some of the ills suffered by the Jeju residents, it is planned to reconstruct part of a strategic structure. that once served the villagers as a base to restart their lives amid the ruins, caused by the April 3rd Incident.</p> <p>Structures for Re-creation 292m Fortress, 1 Shelter(temporary structure), 1 Guard posts &5 Camps, 1 Police station, 4 Toilets (Tongsi, Jeju's traditional style).</p>
--	--



낙선동 4·3 유적지 Nakseon-dong April 3rd Historical Site

낙선동 4·3성(城)

제주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 마을들이 토벌군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이곳 선술리도 11월21일 마을이 전소되어 수많은 인명희생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1949년 봄 당국의 재건명령에 의해 길이 약 500m의 사각형 모양의 성(城)을 쌓고서야 고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당시 제주도 전역에 쌓았던 성은 무장대습격 차단이라는 명분과 함께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성 안에서의 집단생활 또한 힘들었다. 주거지는 허름하고 좁은 가건물(합바집)이 전부였다. 또 낮에는 밭에 나가 일용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야 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이 대거 희생되어 성을 지키는 일은 부녀자와 노인들의 몫이었다. 이제 이곳 낙선동에 4·3의 폐허를 덮고 재건의 토대로 삼았던 전략촌성의 일부를 복원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

• 복원내역

성곽-292m, 가건물(합바)-1동, 초소,막-5동, 지서-1동, 화장실(통시)-4동

Nakseon-dong 4·3 Fortress

In November 1946, when the Jeju April 3rd Incident was heading to its climax, destruction of the mid-mountain villages started. The punitive force perpetrated the destruction, leaving the villages totally destroyed. On the 21st of the month, Soonheul-ri also suffered numerous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as the village was burnt to ashes. The government permitted the surviving residents to return to their hometown in the spring of 1949, but only after the villagers had completely built a square shaped enclosure of about 500 meters. The fortress-like enclosure was purportedly built to block and prevent attacks from armed rebels. However, they were used by the government to effectively contain and control the movement of the residents. Living in a group, inside the enclosed area, was not easy nor a happy existence. All that existed were shabby shelters and cramped camps, similar to those used by day laborers at construction sites. The villagers, after toiling in the fields all day, had to take turns servicing as village guards at night. The surviving women and old people had to fulfill the duty to secure and guard the fortress, due to the absence of the young men who were victimized during incident. In order to create an educational site that represents some of the ills suffered by the Jeju residents, it is planned to reconstruct part of a strategic structure, that once served the villagers as a base to restart their lives amid the ruins, caused by the April 3rd Incident.

• Structures for Re-creation

292m Fortress, 1 Shelter (temporary structure), 1 Guard posts & 5 Camps, 1 Police station, 4Toilets (Tongsi, Jeju's traditional style)

제주특별자치도 2012

<p>안내판 설명2</p>	<p>[한글] 성담 (Rampant) 1949년 봄,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폐허가 된 선흥리를 재건할 당시, 주민들과 무장대간의 연계를 차단하고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기 위한 전략촌을 조성하며 이곳에 성을 쌓았다. 축성작업은 해안마을 함덕리 수용소 등지에서 생활하던 선흥리 주민들과 조천면 관내 주민들을 동원하여 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성은 가로 150m 세로 100m 높이 3m 폭 1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총 500여m에 달했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밤낮없이 보초를 서는 역할은 16세 이상의 여성과 노약자의 몫이었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3</p>	<p>[한글] 4·3 폭낭 (Hackberry) 이 나무는 이곳에 성을 두르고 함바집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던 1949년 봄, 한라산에 토벌을 나갔다가 캐서 당시 성의 정문 앞에 심었던 것이다. 선흥리에 4·3 역사와 함께 설촌 60여년이 된 낙선동 마을을 상징하는 듯 푸르름이 더하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4</p>	<p>[한글] 정문초소(A guard post) 사각형 모양의 성 모서리마다 보초막을 지어 남녀노소 구분없이 보초를 섰던 곳이다. 높이 1.5m의 원추형으로 지어졌으며, 각 모서리 사이의 성벽 중앙에도 4개의 초소를 만들었다. 특히 정문초소는 주민들의 성밖 출입시 양민증이나 통행증을 검사하는 곳이었으며, 야간에는 통행금지였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5</p>	<p>[한글] 통시 (Toilet) 통시는 각 성벽마다 성담에 붙여 15개 정도가 있었다. 성담에 반원모양으로 돌을 쌓아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2개의 디딤돌을 놓으면 되었다. 화장실이 모자라 비가 올 때면 넘치기 일쑤였으며, 심한 냄새는 늘 가시지 않았는데, 여유 있는 집은 이곳에서 돼지를 키우기도 했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6</p>	<p>[한글] 경찰지서 (A police substation) 성 안에는 이곳 사람들을 통제하고 경비순찰을 담당할 함덕지서 파견출장소가 정문 동쪽 30m 지점에 설치되었다. 지서건물은 20평가량의 초가집이었으며, 성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m 정도의 내성을 쌓아 만일에 있을 무장대습격에 대비했다. 주민들은 파견 경찰의 부식 마련에도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7</p>	<p>[한글] 보초대기소 (A sentry station) 각 초소마다 배치된 5명 중 1명이 2층 망루에 올라가 밖을 감시하는 동안 나머지</p>

	<p>4명이 교대를 위해 대기하던 곳이다. 추운 겨울에는 불을 피우기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이를 빌미로 주민이 경찰에게 희생당하기도 했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8</p>	<p>[한글] 경비망루 (Watchtower) 사각형 모양의 성 모서리마다 2층 구조의 경비망루를 지어 남녀노소 구분없이 보초를 섰다. 하룻밤에 5명씩 배치되어 1명씩 교대로 경비를 섰는데, 낮에 힘든 발일을 마치고 서는 야간경비는 쏟아져오는 줄음과의 힘겨운 싸움이였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9</p>	<p>[한글]</p>

함바집 (Poverty house)
 함바집은 원래 '건설현장에서 식당으로 이용되는 임시건물'을 뜻하는 일본어이나, 4·3 당시에는 마을이 불탄 후 임시로 지은 여러 형태의 가건물들을 의미했다. 선흘리에서는 1949년 4월, 낙선동 4·3성이 완공 되자 주민들은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함바집을 짓고 집단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함바집은 길게 돌담을 쌓은 후 군데군데 나무기둥을 세우고 지붕에 새 (띠풀)를 덮어 완성했다. 함바집 한 동마다 다섯 세대가 살았다. 방, 마루, 부엌 구분이 없었고 몸을 굽혀 출입을 해야 했다. 이곳에서 선흘리 주민 250세대는 5년간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았다.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10

[한글]
총안 (Loophole)
 성벽의 2m 높이에 총안을 만들어 무기를 겨누거나 바깥쪽을 내다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총안은 사람의 키보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와야 했다. 총안을 통한 경비는 특공대로 편성된 남자들이 담당했는데, 각 성벽마다 2개씩 모두 8개가 있었다.

[영문]
 없음

	
<p>안내판 설명11</p>	<p>[한글] 새밭 (A field of Eulalia) 이곳은 낙선동 4·3성 내 초가지붕을 잇는 재료인 새를 재배하는 곳입니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12</p>	<p>[한글] 해자 (Moat) 약 500m에 달하는 성의 외곽으로 2m, 깊이 2m 정도의 도랑을 파서 해자를 만들었다. 해자 안과 바깥쪽 성벽에는 가시덤불을 놓아 무장대의 침입을 막으려했다. 구덩이를 파는 일은 주민들에게 맡겨졌는데, 하루 한 끼도 힘들었던 당시에는 축성작업에 버금가는 고통이었다</p> <p>[영문]</p>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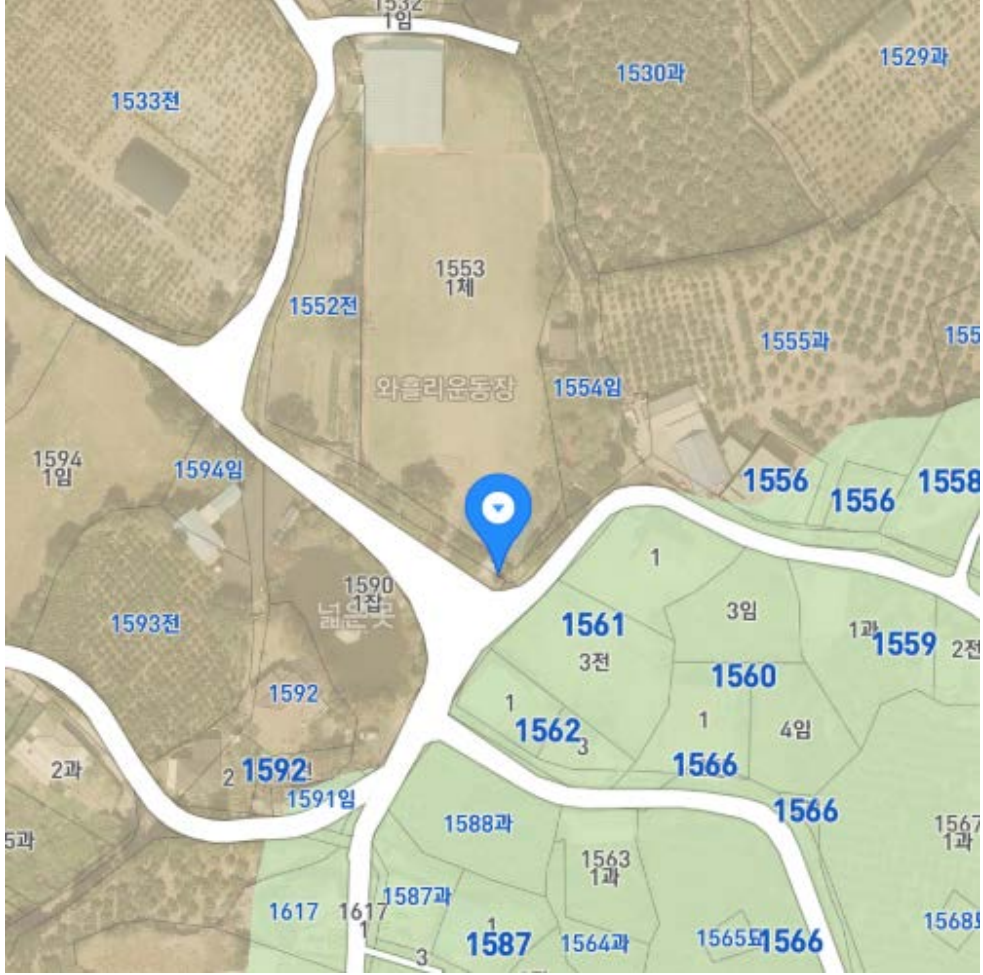
2) 문제점

- 입구에는 한글, 영문, 중문, 일문 4개국어로 유적지 설명이 있으나, 성 내부에는 한글 안내만 있음.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성 내부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는 부재함.
- 안내판 일부의 글씨가 벗겨져 있어 글자를 읽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외국인들도 내부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도 추가해야 함.
- 시안성이 떨어지는 안내판 보수 필요함.

와흘리 4·3사건희생자위령탑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554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05672, 126.633712</p> 
조사일	2020. 9. 9(수)
유적지 개요	4·3 당시 희생된 와흘리 주민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간. 2006년에 지어졌으며, 희생자 위령탑을 추모의 내용이 담긴 표지석과, 희생자 명단이 있는 표지석, 제단 등이 있음.
안내판 설명	<p>[한글] 무자, 기축년 4·3시절 악귀같은 세상만나 여기 논흙에서 괴뜨르에서 물터진골에서 박성내에서 어느 굴렁진 골짜기에서 이름 모를 바닷가에서 무소불위의 총검 아래 쓰러져 가신 영령들이시여 사랑하는 처가속들에게 가노란 말 못 다 이르고 가신 영혼님네 구름길 바람길에 정처없이 떠도는 영신님네 그간 쌓인 한숨이 바람이 되고 그간 흘린 눈물이 비가 되었으니 바람불면 억울한 魂(혼)이 오시려나 비가 오면 원통한 魄(백)이 오시려나 통한의 세월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견뎌오다가 오늘날은 육십년이 지나서야 설운 자손들이 뜻과 힘을 모아</p>

2006년 병술년 선달 26일날 정성으로 이 빗돌을 세워
 억울하고 원통한 4·3 영령들을 삼가 기리나니 영령들이시여
 부디 안식하소서 자손들에게 눈물 한숨 거두게 하소서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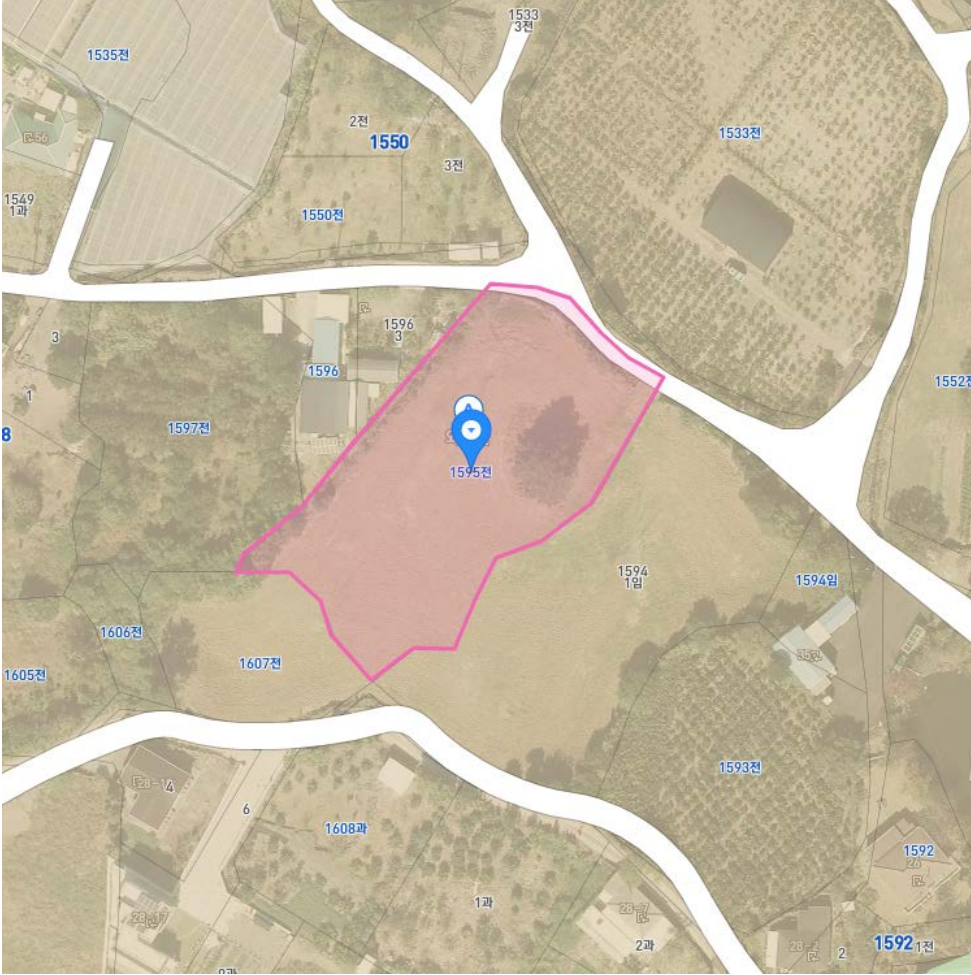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추모비(안내판)에 나와있는 내용을 통해 논흘, 뇌뜨르, 물터진골, 박성내 등 주민들이 희생당한 장소의 지명은 알 수 있지만,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
- 추모비 외에 4·3 당시 와흘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발발 배경, 원인, 진행과정, 결과 등의 내용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와흘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595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06149, 126.632249</p> 
조사일	2020.8.21(금)
유적지 개요	<p>1948년 11월 13일, 토벌대가 초토화작전을 개시하면서 와흘리 주민들이 피신했던 곳.</p> <p>새벽 2시께부터 교래리를 방화하고 주민을 학살한 토벌대는 날이 밝아올 무렵 인근 와흘2구로 이동했음. 와흘리는 1구(본동, 상동)와 2구(고평동, 수기동)로 나뉘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다른 상황을 겪었음. 상대적으로 해변과 가까운 와흘1구는 이미 이틀 전인 11일 함덕리에서 올라온 토벌대의 공격을 받았음. 토벌대는 이날 인민유격대가 조천지서를 습격하고 퇴각하자 이들을 쫓느라 와흘1구까지 올라왔다가 마을에 불을 지름. 이날 주민들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와흘굴로 피신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와흘굴 소재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p>

이 동굴은 2003년도 문화재청이 실시한 제주도 천연동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문화재적 보존가치 및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 동굴입니다. 동굴의 내부에 용암중유석, 용암석순, 용암곡선, 개스볼, 규산화, 용암유석 등 다양한 용암 생성물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미지형으로는 용암폭포, 용암주석, 용암선반 등이 발견되고 있어 보존을 위해 동굴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동굴을 출입할 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동굴을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064-710-6551-6)로 연락하여 주시고 천연동굴 보존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문]
없음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2) 문제점

- 4·3 당시 와흘 지역 주민들이 숨어살았던 곳이자 잘 보존되어 있는 굴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전무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유적지와 안내판으로 가는 길이 잔디밭으로 되어 있어 이동약자 접근이 어려움.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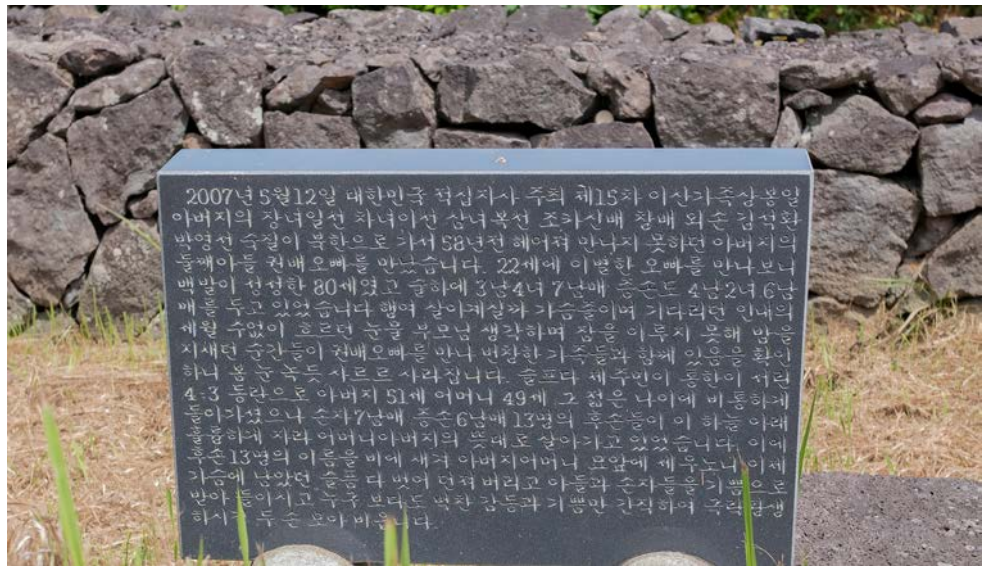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제주 4·3 당시 와흘굴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유적지 안내판 조성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이동약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유적지 사진과 함께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남매상봉 기념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978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24270, 126.639221</p>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조천리 김이선(1932년생)의 가족묘에는 2007년에 4·3 이후 행방불명 된 줄 알았던 오빠(김권배)를 이산가족 상봉으로 만난 후 세운 기념비가 있음. '남매 상봉 기념비'라 하여 4·3에 희생된 아버지, 어머니 묘 가운데에 세워져 있음.
안내판(기념비 앞면) 설명	<p>[한글] 남매상봉기념비</p> <p>府君(부군)의 諱熙石公(휘희석공)과 妣羅州金氏(어머니 나주김씨)의 生二男三女(생 이남삼녀)를 두셨으나 長子(장자) 壬培一名根培(임배 일명 근배) 早世以故(조세이고-젊은 나이에 죽고)로 無嗣也(무사야_집안을 잇지 못하고) 次子(차자) 權培(권배) 配慶州金氏(아내 나주김씨) 景春(경춘) 生(낳아)에 三男四女(삼남사녀) 長孫(장손) 춘성 曾孫(증손) 은혁 曾孫女(증손녀) 은정 次孫(차손) 진성 曾孫(증손) 은철 은국 李孫(이손) 진철 曾孫(증손) 은덕 曾孫女(증손녀) 은순</p>

	<p>孫女(손녀) 연속 명숙 광숙 옥숙 서기 2008년 3월 7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자녀들 삼가세우다</p> <p>[영문] 없음</p> 
<p>안내판(기념비 뒷면) 설명</p>	<p>[한글] 2007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적십자사 주최 제15차 이산가족상봉일 아버지의 장녀일선 차녀이선 삼녀복선 조카신배 창배 외손 김석환 박영선 숙질이 북한으로 가서 58년전 헤어져 만나지 못하던 아버지의 둘째아들 권배오빠를 만났습니다. 22세에 이별한 오빠를 만나보니 백발이 성성한 80세였고 슬하에 3남 4녀 7남매 증손도 4남2녀 6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행여 살아계실까 가슴졸이며 기다리던 인내의 세월 수없이 흐르던 눈물 부모님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해 밤을 지새던 순간들이 권배오빠를 만나 변창한 가족들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니 봄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집니다. 슬프다 제주민이 통한이 서린 4·3 동란으로 아버지 51세 어머니 49세 그 젊은 나이에 비통하게 홀롭게 자라 어머니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슴에 남았던 슬픔 다 벗어 던져 버리고 아들과 손자들을 기쁨으로 받아 들이시고 누구보다도 벅찬 감동과 기쁨만 간직하여 극락왕생하시길 두손 모아 비읍니다.</p> <p>[영문] 없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X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사라진 가족을 남북이산가족상봉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제주4·3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지임. 현재 유적지는 맹지(盲地)여서 인접 사유지를 통과해야 방문할 수 있음.
- 유적지 부지와 인근 부지 모두 사유지여서 안내판을 세우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사유지인만큼 가족들과 협의하여 유적지 안내판을 세우거나 방문객들이 수월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북받친밭(이덕구산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위치(위경도)	<p>33.4084444, 126.63975</p> 
조사일	2020.9.29(화)
유적지 개요	<p>1948년 11월 20일 봉개리, 용강리, 회천리, 도련리 등이 초토화되자 이 마을 주민들이 집단 피신했던 곳임. '북받친밭'이라고도 불림. 대부분의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고 함.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 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함. 산전에는 아직도 당시 사람들이 썼던 깨진 그릇들과 파편들이 남아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제주4·3유적지(교래 북받친밭) 위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해마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 '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행활을 했었다.</p>

이 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X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유적지로 진입하는 길(사려니숲길)에서 유적지로 가는 길의 이정표가 없어 유적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움.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이동약자가 안내판과 유적지 접근하기에 어려움.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사려니숲길 등 인접 탐방로에 이덕구산전을 알리는 이정표, 유적지 안내판 추가 설치 필요.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3. 제주시 구좌읍

금봉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618-1(구좌읍 하도리 994, 995)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01143, 126.888651</p> 
조사일	2020.8.21(금)
유적지 개요	<p>금봉사는 초토화작전이 한창이었던 1948년 11월경, 군경토벌대에 의해 승려가 학살당하고 방화가 자행됐던 곳임. 현재 세워진 대웅전은 4·3 당시의 건물이 아니라 이후 중건된 건물이며, 4·3 당시 법당은 현재 승려들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금봉사는 4·3피해사찰로, 1948년 11월 21일 금봉사로 피신한 마을의 말테우리를 숨겨주었다가 이성봉 스님이 토벌대에게 7~8발의 총을 맞고 총살당했다. 토벌대는 스님을 무참하게 총살한 후 절에 불을 지르고 떠났다. 묘사채는 전소되었으나 법당은 절반만 타서, 불상과 탱화 일부분만 남게 되었다. 1950년부터 복구가 시작되어 1978년 대웅전을 중건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다.</p> <p>[영문]</p>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9	인권 · 평화 · 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이성봉 스님이 희생된 날짜가 유적지 안내판에는 1948년 11월 21일로, 『제주4·3 유적 I』(제주도, 제주4·3연구소)에는 1948년 11월 20일로 기술되어 있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2) 문제점

- 유적지 안내판이 사찰 입구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 풀숲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안내판 정보가 다른 자료와 달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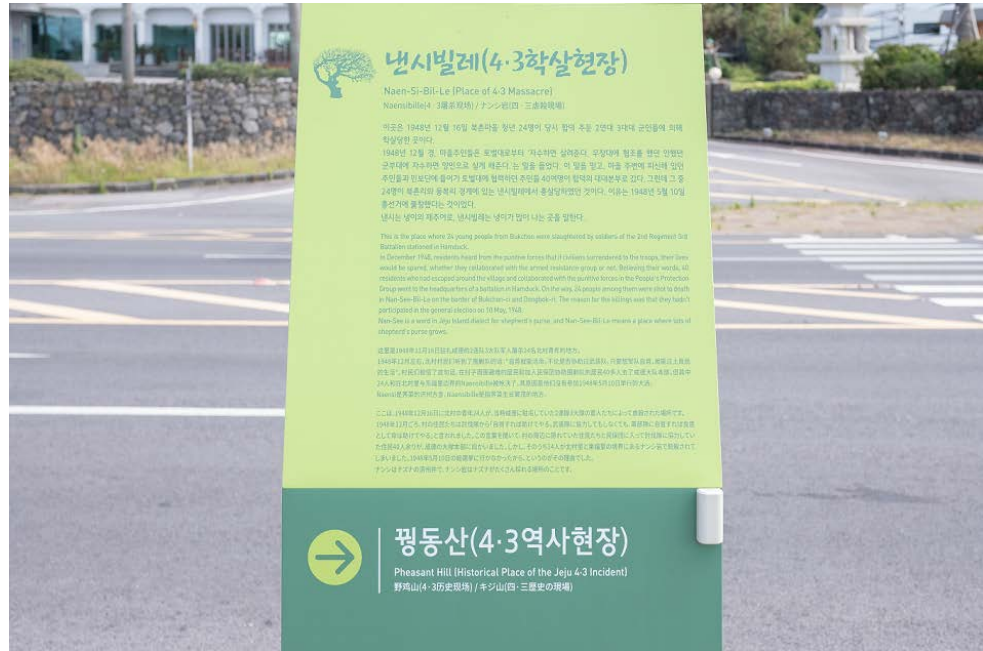
- 방문객 누구나 출입하며 안내판을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필요한 경우, 안내판 정보 수정이 필요함.

낸시빌레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1650(안내판 위치) / 동북리 1652-1 일 대(실제 유적지 위치)
위치(위경도)	33.5528373,126.7063082(안내판 위치) 

조사일	2020.7.17(금)
유적지 개요	1948년 12월 북촌리 청년 24명이 5.10 총선거 불참을 이유로 토벌대에 의해 이곳에서 희생됨.
안내판 설명	<p>[한글] 이곳은 1948년 12월 15일 북촌마을 청년 24명이 당시 함덕 주둔 2연대 3대대 군인들에 의해 학살당한 곳이다. 1948년 12월 경, 마을주민들은 토벌대로부터 ‘자수하면 살려준다. 무장대에 협조를 했던 안했던 군부대에 자수하면 양민으로 살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믿고, 마을 주변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과 민보단에 들어가 토벌대에 협력하던 주민들 40여명이 함덕의 대대본부로 갔다. 그런데 그 중 24명이 북촌리와 동북리 경계에 있는 낸시빌레에서 총살당하였던 것이다. 이유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낸시는 냉이의 제주어로, 낸시빌레는 냉이가 많이 나는 곳을 말한다.</p> <p>[영문] This is the place where 24 young people from Bukchon were slaughtered by soldiers of the 2nd Regiment 3rd Battalion stationed in Hamduck. In December 1948, residents heard from the punitive forces that if civilians surrendered to the troops, their lives would be spared, whether they collaborated with the armed resistance group or not. Believing their words, 40 residents who had escaped around the village and collaborated with the punitive forces in the People’s Protection Group went to the headquarters of a battalion in Hamduck. On the way, 24 people among them were shot to death in Naen-si-Bil-le on the border of Bukchon-ri and Dongbok-ri. The reason for the killing was that they hadn’t participated in the general election on 10 May, 1948. Nan-See is a word in Jeju</p>

Island dialect for shepherd's purse, and Naen-Si-Bil-Le means a place where lots of shepherd's purse grows.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X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020년 7월 조사 당시 훼손이 심각했던 '낸시빌레' 안내판이 안내판 시트지 교체로 개선되어 있었음. (2021년 6월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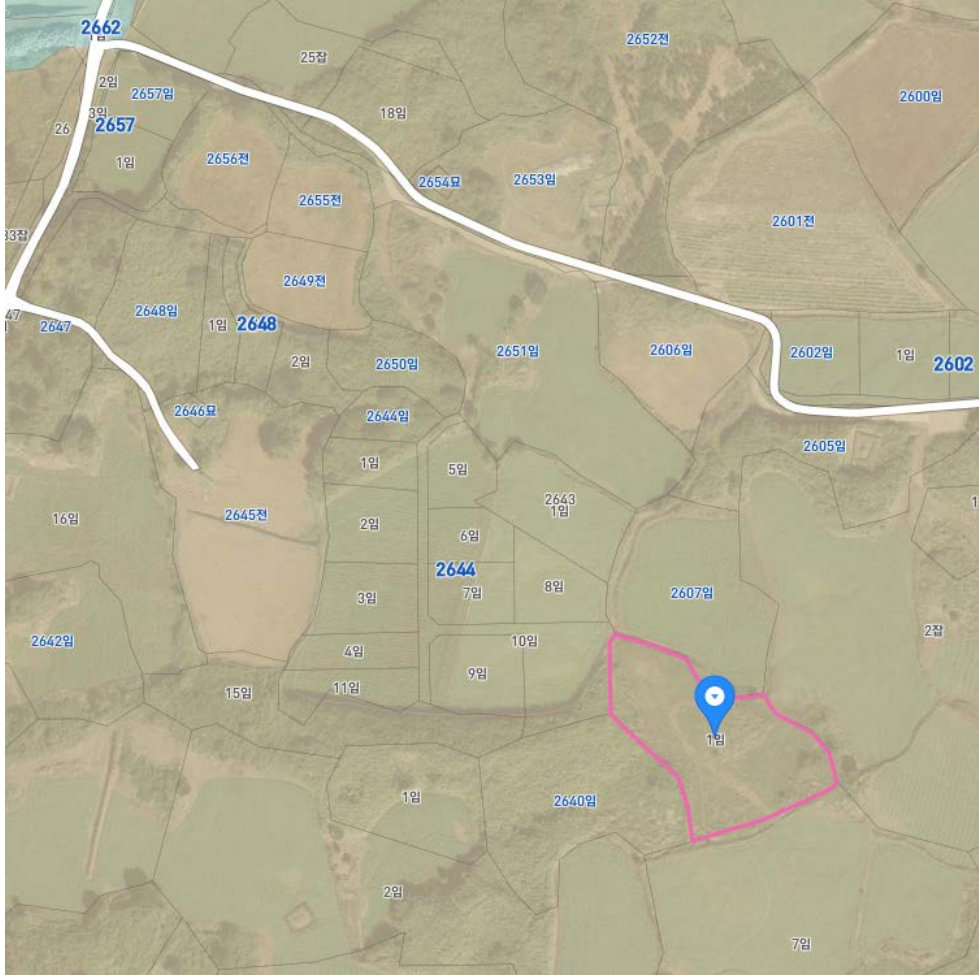
2) 문제점

- 낸시빌레 유적지 안내판의 경우, 일주동로(4차선 도로) 건너편 유적지로부터 약 140m 떨어져 있는 등 방문자들이 실제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지 안내판에 낸시빌레 위치가 어디인지도 적혀있지 않음.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3) 개선방안

- 안내판을 통해 유적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에 약도를 표기하거나, 실제 유적지 위치 앞으로 안내판을 이동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다랑쉬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608-1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675541,126.8290305</p> 
조사일	2020.9.29(화)
유적지 개요	<p>다랑쉬굴은 1948년 하도리, 종달리 주민 11명이 피신해 살다가 발각되어 희생당한 곳임. 군경토벌대는 이 굴을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나올 것을 종용했으나 주민들이 나오지 않자 굴 입구에 불을 피우고 연기를 불어넣어 고통스럽게 학살함. 1992년 유해 11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4·3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음.</p>
안내판 설명 1	<p>[한글] 제주4·3유적지(다랑쉬굴) 위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608번지 일대 1948년 12월 18일 하도리, 종달리 주민 11명이 피신해 살다가 굴이 발각되어 집단희생 당한 곳이다. 이 날 군경민 합동 토벌대는 수류탄 등을 굴속에 던지며 나올 것을 종용했으나, 나가도 죽을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유족들은 민보단원들로부터 가족들의 희생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당시의 상황은 사체를 수습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곳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제주4·3연구소' 회원들에 의해 1991년</p>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변해 바다에 뿌려졌다. 다량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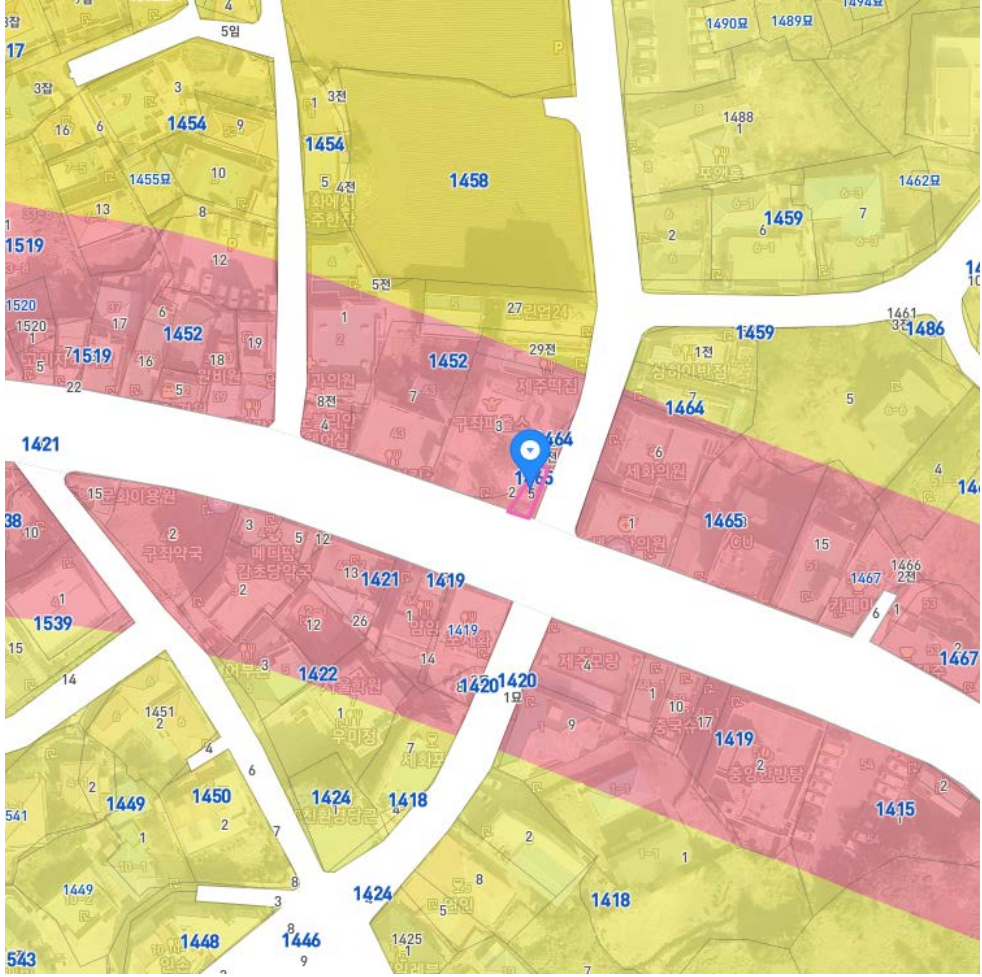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유적지와 안내판 모두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 4·3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세화리 주재소 옛터 / 세화지서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465-5(안내판 위치)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23306, 126.856433</p> 
조사일	2020.8.21(금)
유적지 개요	<p>현재는 구좌읍 치안을 관할하는 구좌파출소.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10월, 경찰관 주재소로 설치되었음. 1932년 1월에는 구좌해녀항일 운동이 벌어져, 해녀들이 이곳에서 투옥된 청년 운동가들을 석방하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함. 세화지서는 구좌면 동부지역을 관할하면서, 4·3 당시에는 토벌대의 근거지가 되었음. 1948년 10월 이후에는 경찰지서 내에 있는 유치장에 주민들이 취조를 받고 수용됐음.</p> <p>특히 1948년 12월 4일에는 당시 세화지서에는 본서 직원 15명과 응원경찰인 충남부대 20명 등 35명 가량의 경찰이 세화지서에 감금돼 있던 이웃마을 사람 16명을 지서 옆 밭에 모아놓고 주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했음. 며칠 후에는 세화리 출신 인민유격대 가족들을 끌어내 총살하기도 함.</p>
안내판 설명 1	<p>[한글] 세화지서 추모·표지석 이곳 세화리 1452-3번지는 4·3 당시 제1구 (제주) 경찰서 세화지서 옛터이다. 1948년 4월 4일 오전 2시 무장폭도 40 여명이 세화지서를 습격했다. 당시 지서 내에는 10명의 경찰관이 근무, 기습에 대응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일시</p>

	<p>폭도에게 점거됐고 카빈총 등 총기 2정과 실탄 14발을 빼앗겼다. 또 경찰관 등 2명이 폭도의 일본도에 부상을 입었다. 1948년 12월 3일밤 9시경 이덕구 폭도사령관이 지휘하는 무장폭도 110여명이 우익마을 세화리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다음날 새벽 2시경 철수할 때까지 주민50여 명을 집단 학살하고 세화초교, 향사와 40가호 150채를 불태웠다. 지서에는 본서 직원 15명과 응원 경찰 20명 등 35명이 지서를 사수했다. 1950년 12월 27일 지서관할 동북리에서 장인빈 순경(경위 추서)과 강만봉 순경(경위 추서)이 전사했다. 1949년 1월 18일 성산포경찰서에 편입했다가 1957년 7월 26일 제주경찰서로 환원되면서 명칭도 구좌지서로 변경됐다. 이어 1991년 8월 1일 구좌 파출소로 개칭됐다. 4·3 당시 순직한 경찰관과 주민을 추모하고자 이 비를 세운다. 2016년 9월 27일 제주 4·3 정립 연구·유족회/ 제주 4·3 경찰유족회</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 2</p>	<p>[한글] 세화 경찰관주재소 터 1932년 1월 12일 구좌면 (현 구좌읍 우도면)과 정의면(현 성산읍) 지역 해녀들이 집결하여 제주도해녀업조합장인 일본인 도사에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담판을 벌였으며, 1월 24일 청년 운동가들의 검속에 반발하여 해녀들이 일본경찰 들을 상대로 투쟁하였던 곳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p> <p>[영문] 없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X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1948년 4월 3일 인민유격대의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 습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인민유격대를 ‘폭도’로 지칭하는 등 일방의 편에서 사건을 기술함. 반면 군경토벌대가 주민들을 감금, 취조, 학살한 국가폭력의 역사는 기술되지 않았음.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고 있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 정의)이라는 기초 아래 군경토벌대가 주민들을 감금하고 총살한 역사 등을 기술하여야 함. 보다 중립적으로 사건을 기술한 안내판 조성 필요.

연두망동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상도리 471-32)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21254, 126.863323</p> 
조사일	2020. 8. 21(금)
유적지 개요	<p>연두망동산은 1932년 해녀들이 일제의 수탈에 항거해 시위를 벌이기 전 집결한 장소임. 1948년 12월 4일과 1949년 2월 10일 이곳에서 총 두번에 걸쳐 군경토벌대는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음. 1948년 12월 3일, 인민유격대가 세화리를 습격해 방화를 일으키고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자 토벌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던 주민과 도피자 가족 등을 이곳에서 학살함. 구좌면 종달리, 하도리, 상도리, 주민들이 주로 희생됨. '연두망'은 예전에 연대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음.</p>
안내판 설명	<p>[한글] 1932년 1월 12일 구좌면 (현 구좌읍 우도면)과 정의면 (현 성산읍) 지역 해녀 1,000여 명이 일본인 도사(島司)가 조합장인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수탈에 항거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위해 사전에 모였던 장소. 해녀들은 연두망동산 네거리에서부터 세화 오일장까지 호미와 빗창을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갔다.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p>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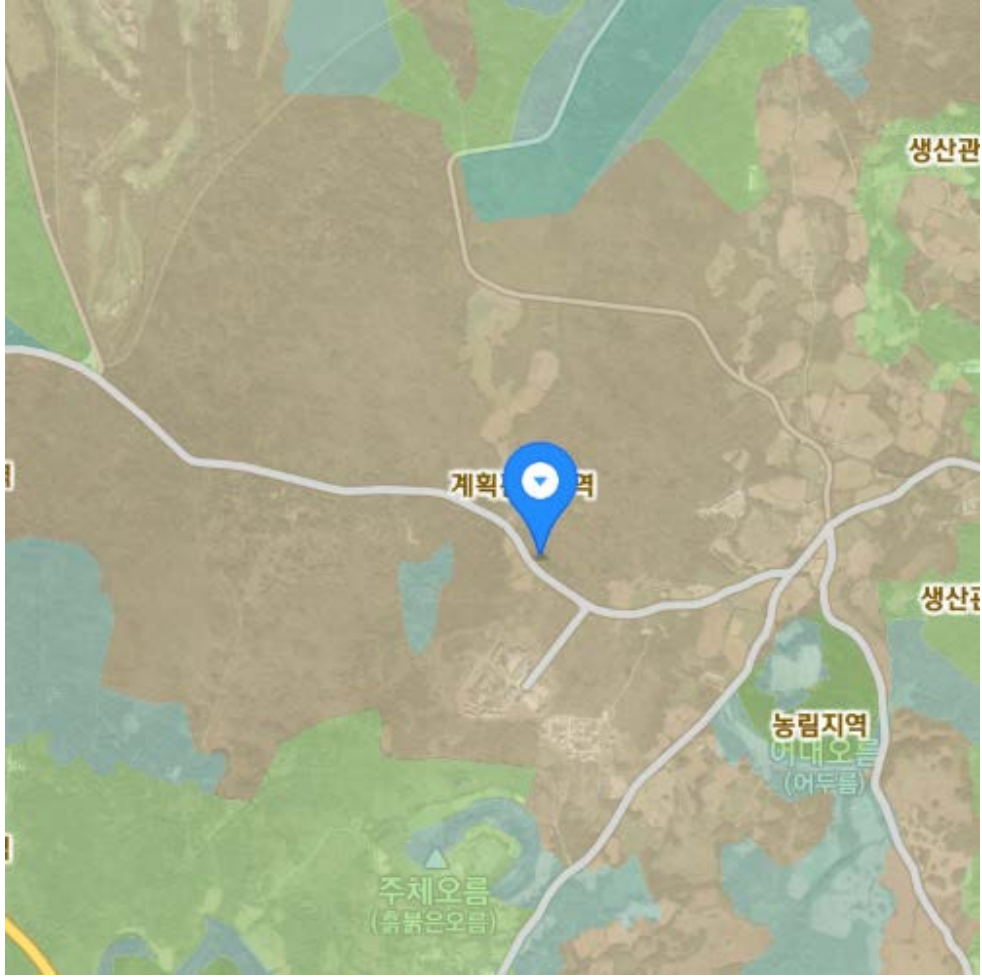
2) 문제점

- 해녀항일 운동과 제주4·3의 기억이 공존하는 유적지임. 4·3 당시 대규모 학살이 있었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안내판에 나와있지 않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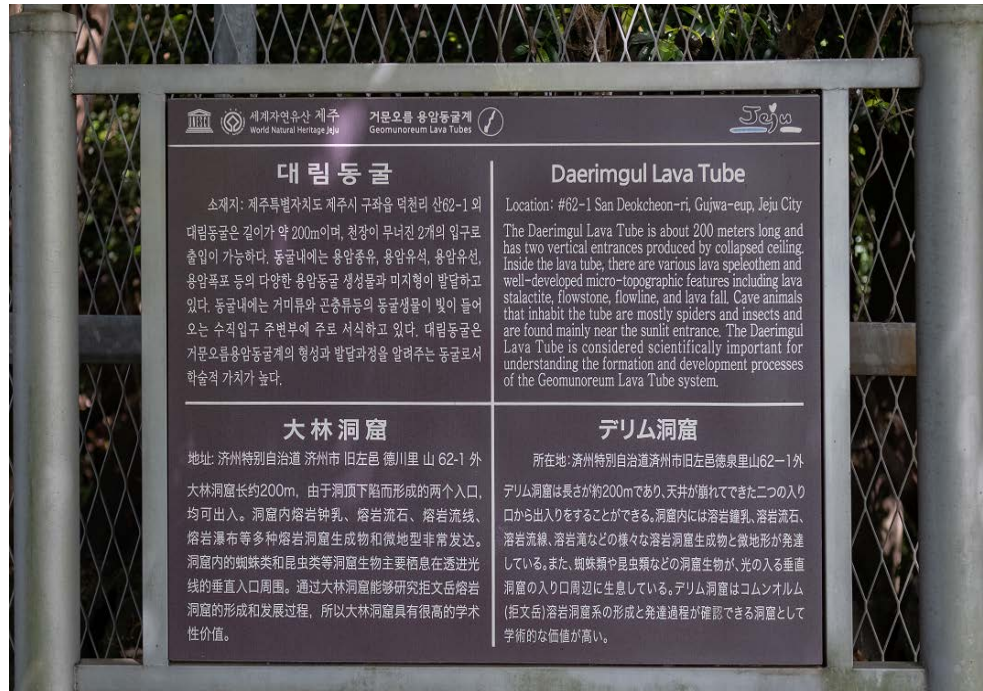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4·3 당시 이곳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한 기록을 담은 안내판을 세워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큰곶검흠굴(대림동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62-1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33.500517, 126.751201</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큰곶검흠굴은 한때 남로당 구좌면당본부가 아지트로 활용했던 곳임. 4·3 당시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으로 해안마을에서 도망친 주민들이 이 굴에서 숨어살다가 1949년 7월께 발각되어 생포된 곳으로도 알려짐.</p>
안내판 설명	<p>[한글] 대림동굴-세계자연유산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62-1 외 대림동굴은 길이가 약 200m이며, 천장이 무너진 2개의 입구로 출입이 가능하다. 동굴내에는 용암종유, 용암유석, 용암유선, 용암폭포 등의 다양한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발달하고 있다. 동굴내에는 거미류와 곤충류등의 동굴생물이 빛이 들어오는 수직입구 주변부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대림동굴은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알려주는 동굴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p> <p>[영문] Daerimgul Lava Tubes-World Natural Heritage Jeju Geomunoreum Lava Tubes Location: #62-1 San Deokcheon-ri, Gujwa-eup, Jeju city. The Daerimgul Lava Tube is about 200 meters long and has two vertical</p>

entrances produced by collapsed ceiling. Inside the lava tube, there are various lava speleothem and well-developed micro-topographic features including lava stalactite, flowstone, flowline, and lava fall. Cave animals that inhabit the tube are mostly spiders and insects and are found mainly near the sunlit entrance. The Daerimgul Lava Tube is considered scientificall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X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4·3 내용 없음
기타			

2) 문제점

- 큰곶검출굴은 4·3 당시 주민들의 도피처로 활용됐으며, 특히 도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민유격대와 관련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에 동굴의 지질학적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음.
- 큰곶검출굴은 숲길을 가로지르는 차량 전용 도로를 따라 가다가 있는 작은 길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음. 처음 가는 사람이 찾기 어려운 장소이지만 위치를 표시하는 안내판이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하고, 진입로부터 흠길로 되어 있어서 이동약자들의 접근이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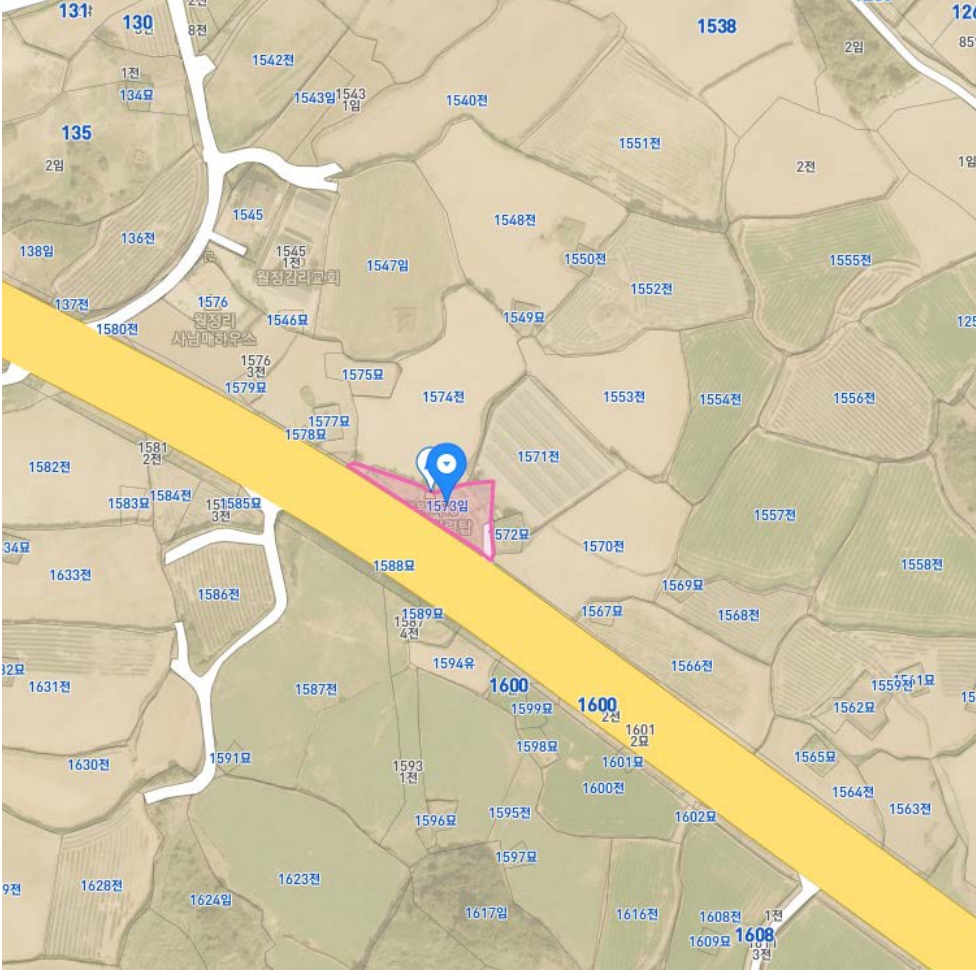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유적지와 연관된 4·3에 대한 내용이 있는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이동약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가능한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또 이동약자를 위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에 별도의 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 유적지 진입로(아래 사진 참조, 33.5004148,126.7509126)에 유적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필요.



행원리 4·3 희생자 위령탑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73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549146, 126.799436</p> 
조사일	2020.8.21(금)
유적지 개요	<p>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 행원리4·3유족회가 세운 희생자위령탑. 행원리에서는 4·3 당시 90명 이상의 주민이 군경토벌대의 방화와 학살로 목숨을 잃음. 제주도 내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처음 세운 기념탑이라는데 의미가 있음.</p>
안내판 설명 1	<p>[한글] 행원리 4·3희생자 위령탑 건립내역 서기 1948년 무자년 발생한 4·3과 관련하여 행원리에서는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음력 9월 들어 첫 희생자가 발생했다. 속칭 쉬영목에서 음력 9월 29일 아침 발일하러 가는 주민들을 검문, 검색하면서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남자 2인을 총살하고 아기를 잉태한 부녀자 1인은 대검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 후 용의자 색출을 이유로 음력 10월 7일 부터는 일반 가옥에 방화를 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도 수명에 달했고 야간에는 부녀자 강간도 자행되었다. 행원리 곳곳에서 집단 사살이 있었으나 음력 10월 19일에는 외부와 동조한다는 명분으로 공회당 (지금의 리 사무소) 마당에 각 조합 조합장, 반장, 청년 다수를 집결시켜</p>

집단으로 사살이 있었는데 이 날 28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서기 1949년 1월 18일에 마지막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 4·3과 관련하여 희생된 주민은 113여 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후손들을 추적할 수 없어 각명비에는 93위만 새겨져 있다. 위령탑은 서기 1998년에 유족의 헌금으로 건립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건립내역비를 세우지 못하다 오늘 제주도의 도움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 비를 세운다. (이 토지는 행원리 1573번지이고 유족의 헌금으로 매입함. 서기 1948년 4월 3일은 음력 2월 24일 임)
 서기 2009년 4월 3일 행원리 4·3유족회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위령탑과 안내판으로 올라가는 길에 경사로가 없어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 행원리 4·3 위령탑은 마을 단위에서 최초로 세운 위령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4·3 유적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4.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4·3성담(북문성)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098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42644, 126.327095</p> 
조사일	2020. 9. 17(목)
유적지 개요	이 유적지는 1950년 마을이 재건할 때 쌓았던 성담의 일부. 4·3 당시 마을 성담은 마을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축성됐다고 함. 현재는 200~300미터 가량의 성담이 남아있으며, 성담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들의 담장 역할을 하고 있음.
안내판 설명 1	<p>[한글]4·3유성 (4·3遺城) 납읍리 2099일대 전도에 4·3사건이 발발하자 마을주민은 무장대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초소를 만들고 당번을 서면서 경비를 하던 중 1948년 11월 17일 소개령이 내리자 마을주민들은 정든고향을 버리고 인근해변 마을로 피난을 갔다가 1949년 4월 29일 소개령이 해제되자 소개 갔던 주민들은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치안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시기로 지금 사장 (금산학교마을)터에 함바집을 지어 모여 살게 되었고 무장대들의 잦은 출몰로 가옥에 방화, 소, 말, 양식 등을</p>

약탈당하자 성을 쌓아 무장대 들을 방어하기로 하여 온 마을 주위를 원형으로 한바퀴 쌓았으며 성 높이는 약 4m, 25개소에 초소를 설치하는 등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지금은 둘레성은 사라지고 북문-빌레못경 사이 약300m만이 남아서 당시 참혹한 상황을 묵묵히 지켜주는 듯하다.
 2014. 03.03. 마을명소지성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2(옆면)

[한글]
 2016년 6월 30일
 남음리민 일동

[영문]
 없음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현재는 유적지 안내판(표지석)의 상태가 양호하나 차후 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시, 혹은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비학동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학원동길 36(하귀2리 2122-2)
위치(위경도)	<p>(33.4731899,126.3994181)</p> 
조사일	2020.8.19(수)
유적지 개요	<p>비학동산과 그 앞밭은 1948년 12월 10일 토벌대가 인근 주민과 소개민 36명을 집결시켜 총살시킨 장소임. 특히 이 곳에 있는 팽나무에 임산부를 매달아 놓고 대검과 철창으로 찢러 무참히 살해하는 등 잔혹한 일을 벌이기도 했음. 이후 이 사건이 알려져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주민들은 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팽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학원동민회관을 세움.</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귀일리학원 동새마을회	
기타	동민회관 앞에 비학동산에 대한 안내판 대신 회관건립기념비가 세워져 있음. 회관건립기념비에는 4·3 당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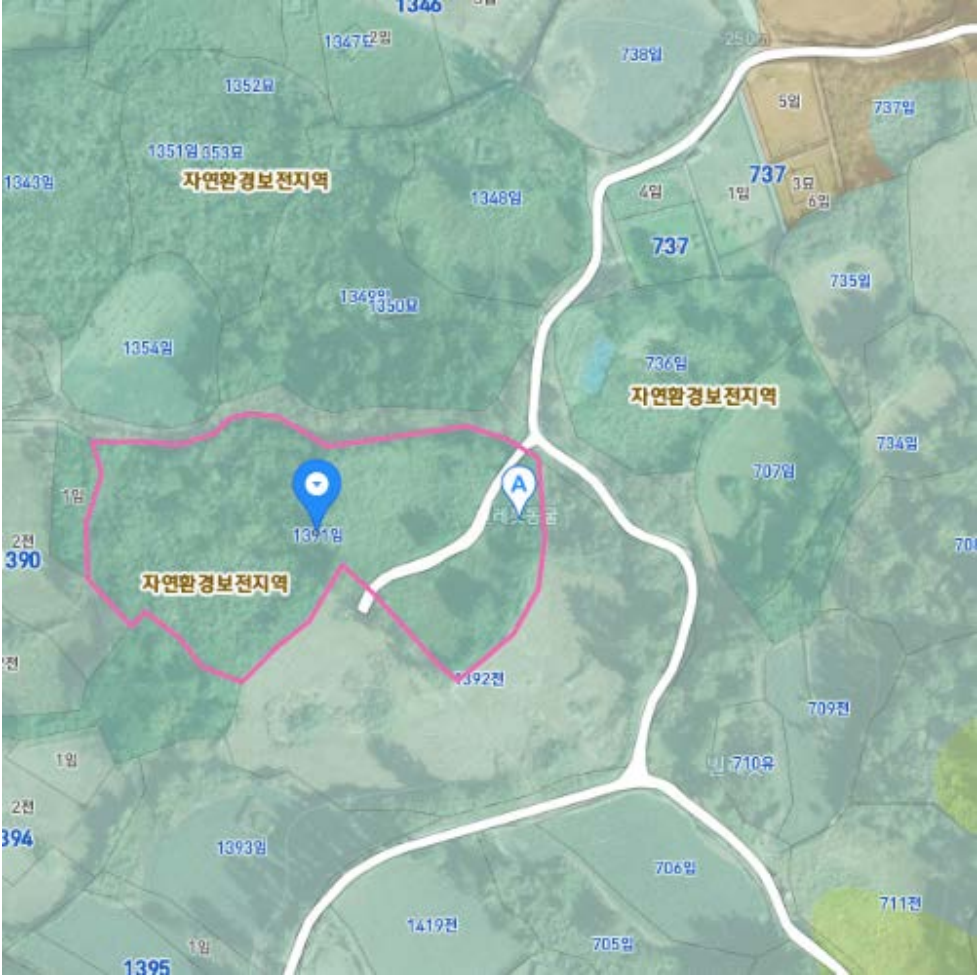
2) 문제점

- 비학동산은 강요배 화백의 그림 <부모들>에도 등장해 잘 알려진 곳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나무도 사라졌고 이 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안내판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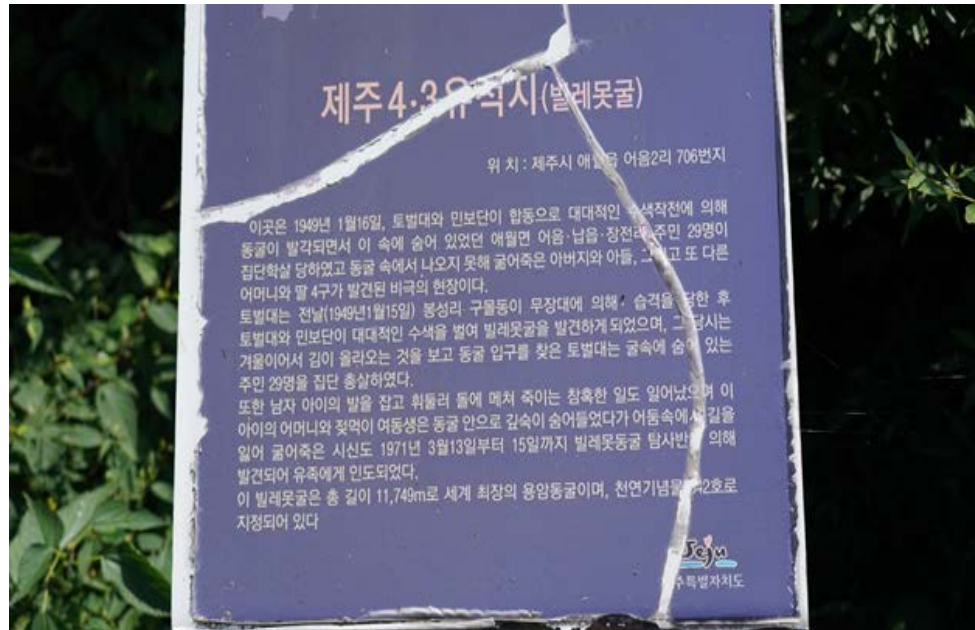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학동산 총살사건’ 등 4·3 당시 참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 설치.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에는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빌레못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91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042962, 126.3497539</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빌레못굴은 제주4·3 당시인 1949년 1월 16일 굴 속에 숨어있던 납읍리, 장전리, 상귀리 등 인근 주민 다수가 토벌대에 의해 집단총살된 장소임.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이었음. 당시 토벌대가 서너살 난 어린이의 다리를 잡아 머리를 바위에 메쳐 죽였다는 이야기가 진압작전에 동원됐던 민보단원의 입을 통해 전해져 음.</p>
안내판 설명 1	<p>[한글]제주4·3유적지 (빌레못굴) 위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 1월 15일) 봉성리 구물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 총살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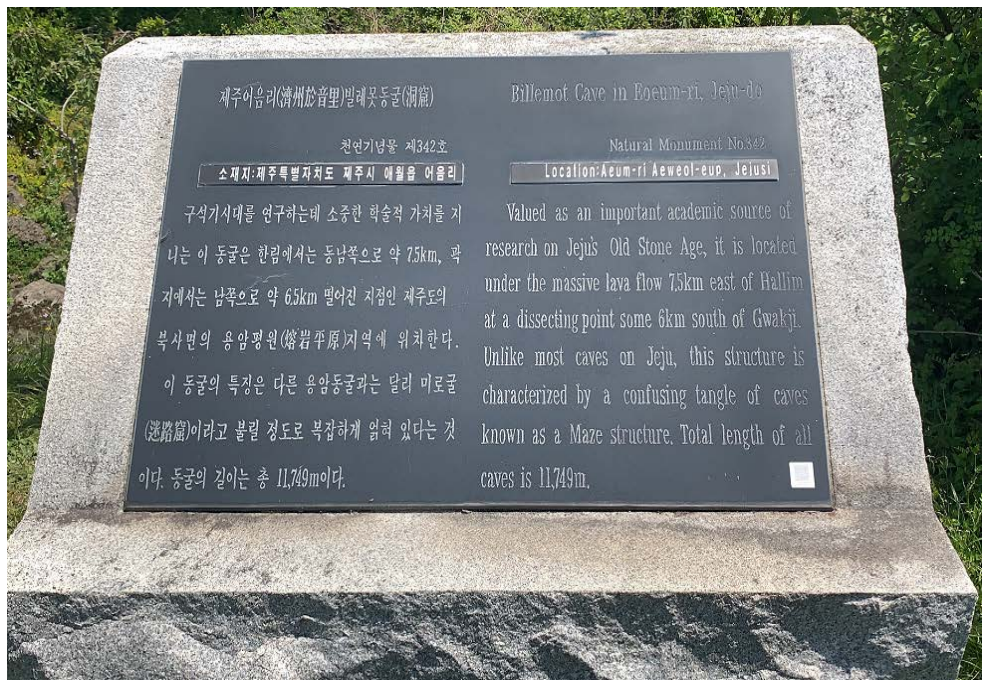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젓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못동굴 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m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내판 설명 2

[한글]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천연기념물 제342호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구석기 시대를 연구하는데 소중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이 동굴은 한림에서는 동남쪽으로 약 7.5km, 광지에서는 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지점인 제주도의 북서면의 용암평원 지역에 위치한다.
이 동굴의 특징은 다른 용암동굴과는 달리 미로굴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동굴의 길이는 총 11,749m이다.

[영문] Billemot Cave in Eoum-ri, Jeju-do
Natural Monument No.342
Location: Auem-ri Aewol-eup, Jeju
Valued as an important academic source of research on Jeju's Old Stone Age, it is located under the massive lava flow 7.5km east of Hallim at a dissecting point some 6km south of Gwakji.
Unlike most caves on Jeju, this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a confusing tangle of caves known as a Maze structure. Total length of all caves is 11, 749m.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X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X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일부 있음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문법적 오류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O	
9	인권 · 평화 · 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2) 문제점

- 4·3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 <안내판 1>에 훼손된 부분이 있어 ‘천연기념물_(안내판 균열)42호’ 등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유적지 중간 진입로에 있는 갈림길에 위치를 가리키는 안내판이 없어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어갈 수 있음.
- 근처까지는 포장도로로 되어있으나 정작 유적지 앞까지는 흙길로 되어 있어서 이동약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애월에 위치한 대표적인 4·3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1> 내에 기술된 문장에 비문이 많음.
- <안내판 1>에 기재된 주소(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가 잘못됨. (국토부 스마트국토정보 등 통해 확인)

3) 개선방안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유적지 중간 진입로에 있는 갈림길(아래 사진 참조, 위도 33.404639, 경도 126.350570)에 유적지 위치를 가리키는 안내판 설치 필요.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이 장소에서 안내판의 내용과 모습을 알 수 있는 별도의 안내판 설치가 필요.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1>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91’로 수정해야 함.
- <안내판 1>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기존안	수정안
<p>제주4·3유적지 (빌레못굴) 위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 1월 15일) 봉성리 구물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 총살했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찢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못동굴 탐사반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m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_42호로 지정되어 있다</p>	<p>제주4·3유적지 (빌레못굴) 위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91 빌레못굴은 제주 4·3 당시 애월면 주민들이 숨어들었다가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어 학살을 당한 장소입니다.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 전개해 굴속에 숨어 있던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굴속에 숨어 있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은 토벌대에 의해 집단 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의 시신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입니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 1월 15일) 봉성리 구물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하자, 이날 민보단과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했습니다. 토벌대는 겨울철 낮아진 기온에 동굴 인근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았습니다. 토벌대는 굴속에 숨어 있던 주민 29명을 집단 총살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자행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와 찢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굴 탐사를 했던 빌레못동굴 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이 굴은 총 길이 11,749m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었습니다.</p>

영모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134-1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71996, 126.417357</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2003년 5월 27일 완공된 영모원은 하귀리 주민들이 지역의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가와 4·3희생자, 한국전쟁 전후 시기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한 곳에 모시고 추모하기 위해 만든 추모공원임. 이곳은 화해와 상생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음.
안내판 설명1	<p>[한글] 지난날 우리 국토가 제국주의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 침묵을 강요받던 시절에도 지표면 아래를 흐르는 지하수처럼 뜨거운 민족혼에 바탕한 크고 작은 저항운동은 삼천리 강산 어느 곳에서도 그친 바가 없었다. 남녘의 섬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었으니, 진취적인 기상으로 도내에서 손꼽히던 하귀의 청년들이 그 뒷 줄에 설리는 만무했다. 당시 강문일, 박영순, 김홍규, 배두봉 선생등 하귀의 피끓는 청년들은 조국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야학을 개설했다. 하귀 1, 2 구 두 곳에 각각 야학소를 운영 하였으며 애국심과 신학문에의 동경을 안고 모여든 학생이 근 백 여명에 달했으니 그 열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그 정열은 결국 만세운동으로 번졌으니 1935년 봄(5월 5일) 야학생 80여명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 나와 관전동에서 미수샘까지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왜경에 강제 진압을 당하고 20여명이</p>

외도주재소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네 분 외에 강경생, 강창선, 김을봉, 고봉익, 양군삼, 양국찰 선생 등 10여명이 제주경찰서에 이송되었고 이어서 목포지청에까지 끌려가면서 선각자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 중 강문일, 박영순, 김흥규, 세 분은 목포에서의 1심재판과 대구에서의 2심 재판을 거치면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투쟁의 기억과 기록이 뚜렷하고 분명하건만 해방이후 파란 많은 정국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작은 빛돌 하나를 세우기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으랴. 열사들의 후손된 우리들 모두 새삼 옷깃을 여미며 이 자리에 섰으니 피끓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인 듯 들려 오지 않는가. 그 날의 교훈이 이토록 생생하니 고향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이 (작은) 빛돌이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의 끝이 아니라 작은 시작임을 다짐해야 만 하리라.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2

[한글]한라 정기 굳게 맺힌 양지바른 곳에 온 향민 정성 모아 신성한 영단을 마련하여 고귀한 충혼을 모시도다. 청춘 바쳐 나라 지킨 거룩한 넋들이여 그 공훈 천주에 길이 빛날진저. 혹은 부모 형제 남겨 두고 지아비가 떠났도다! 비통한 심정 절규하며 가슴이 에이고, 옷소매 적신지 어언 수십 성상이라. 한 맺힌 탄식으로 잊은 날이 없도다. 아아! 슬프도다!! 술한 세월 구천을 헤매이던 원혼들이시여! 이제 향민의 지극 정성에 감응하사 원한의 상처 씻고 부디 안식하소서. 호국 간성으로 산화한 충 열의 넋 높이 기려 향 사르고 헌화하며 삼가 명복을 비나니 여기 고향의 품에 안겨 고이 잠드소서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3

[한글]

여기 와 고개 숙이라
 섬나라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여기 와서 옷깃을 여미라. 해방의 감격도 채
 가시기 전, 6·25의 아픔이 한반도에 닥치기도 전에 이 죄없는 땅 죄없는 백성들
 위에 아직도 정체를 먹구름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목숨들이 지금도 무심한 저
 산과 들에 바다 위에 뿌려졌으니. 어느 주검인들 무참하지 않았겠으며 어느
 혼백인들 원통하지 않았으랴. 단지 살아 있는 죄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마음들은
 또 어찌했으랴. 죽은 이는 죽은 대로, 살아남은 이는 살아 있는 대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허공에 발 디디고 살아오기 어언 50여 년... 아버지보다 오래 살고
 어머니보다 나이 들어서야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제 하늘의 몫은 하늘에 맡기고
 역사의 몫은 역사에 맡기려 한다. 오래고 아픈 상처기를 더는 파헤치지 않으려
 한다. 다만 함께 살아남은 자의 도리로 그 위에 한 삽 고운 흙을 뿌리려 한다. 그
 자리에서 피가 멎고 딱지가 앉아 뽕얀 새살마져 살아날 날을 기다리려 한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물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이제야
 비로소 지극한 슬픔의 땅에 지극한 눈물로 지극한 화해의 말을 새기나니, 지난 50여
 년이 길고 한스러워도 앞으로 올 날들이 더 길고 밝을 것을 믿기로 하자. 그러니 이
 돌 앞에서는 더 이상 원도 한도 말하지 말자. 다만 섬나라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한번쯤 여기 와서 고개를 숙이라.

[영문]

없음





안내판 설명4

[한글]
 4·3의 삭풍에 흩날린 꽃잎들이여...
 여기-죄없이 사라져간 이웃 사람들의 넋을 달래는 비를 세운다. 사상도 갈등도
 모르던 숫집은 이웃들 모진 바람에 어찌다 꺾이어 낙화되기 반세기
 따뜻한 이웃의 옛 체온으로 다시 돌아가 옛날처럼 살고픈 화합의 표상앞에
 너와 나 손 마주잡고 미쁜 마을 만들기를 다짐하노니
 떠도는 원혼들이시여 돌아와 고향의 언덕에 안기소서

[영문]
 없음



<p>안내판 설명5</p>	<p>[한글] 위령단을 세우는 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다했다면 이는 애국자로서 그 정신과 위업을 길이 보전하고 계승시켜나가는 것은 우리모두의 사명이다. 외세의 침략과 천란, 재난과 시변에 고귀한 목숨을 잃었거나 모진 형옥의 고초를 겪고 무고한 죽음을 당하였던 영혼들이 지역마다 없지 않겠으나 우리 마을 하귀리는 유독 그수가 많았음에도 이를 기려 추모하거나 위령의 짓거리한 점 없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만시지탄이 있어 일제강점으로 국권을 빼앗겼을 때 야학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본경찰에 피검되어 모진 고문과 형옥을 치르셨던 선열들의 넋과 세계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국방전선과 해외전장에서 신화한 전몰호국영영을 추모하고, 4·3에 무고히 희생된 채 구천을 헤매는 원혼들의 명복을 빌고자 향민의 뜻을 모아 이곳에 영역을 조성하여 영현비 충의비 위령비를 세운다. 이 영역은 선인들이 남긴 숭고한 충절의 정신을 기리며, 후세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p> <p>[영문] 없음</p> 
-----------------------	--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 문제점

- 안내판 5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지만 계단 위에 있는 안내판 1, 2, 3, 4는 이동약자 접근이 불가능함. 또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유적지와 관련한 내용 알기 어려움.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영모원은 항일 운동가와 4·3희생자, 한국전쟁 전후 시기 희생된 호국영령을 한 자리에 모시면서 제주 다크투어 유적지 중 대표적인 화해와 상생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4·3희생자 등 추모 대상 각각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만, 이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추모공간을 조성한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영역은 선인들이 남긴 숭고한 충절의 정신을 기리며, 후세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안내판 5) 정도로 같음함. 이 내용만으로는 화해와 상생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함.

3) 개선방안

- 이동약자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경사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함.
- 항일 운동가, 4·3희생자, 전몰 군인을 한 곳에서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하게 된 의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야 함.

육시우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386-1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731899, 126.3994181</p>
조사일	2020.9.17(목)
유적지 개요	<p>1948년 11월 13일 새벽, 제9연대장 군인들이 하가리를 지나다 제사집에 있는 사람들과 그 근처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25명을 공개적으로 집단학살한 곳. 이날은 하가리 주민 정순아의 제삿날로, 사람들이 모여 있자 군인들은 근처의 집을 불지르며 주민들을 끌어냈음. 군인들은 정씨 집의 앞밭, '육시우영'에서 주민을 총살. 일대 주택 16곳도 전소됨. 심지어 아이들과 여자들을 꿰어앉혀놓고 총살 장면을 구경하게 했다고 함.</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옥	
기타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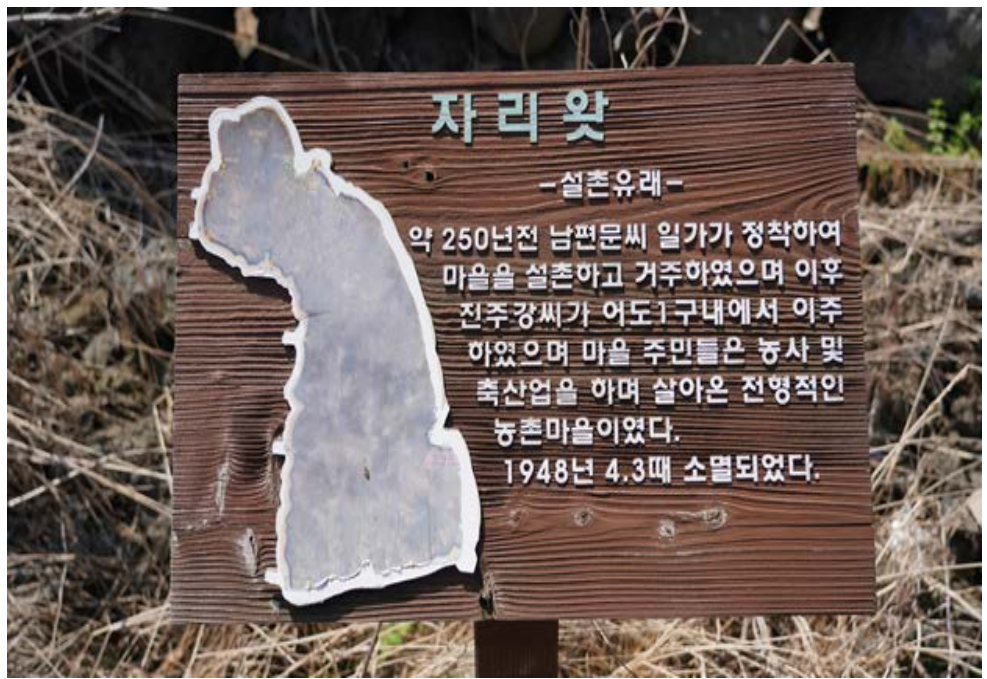
- 뚜렷한 이유 없이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진 곳이지만 이 곳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안내판은 없음.

3) 개선방안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육시우영 학살사건’ 등 4·3 당시 참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 설치.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설치 시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자리왓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417-1번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03409, 126.328493</p> 
조사일	2020.8.19(수)
유적지 개요	<p>제주시 애월읍 봉성리(당시 어도2구)에 있는 자리왓은 1948년 11월 중순경 소개령이 내려질 당시 토벌대에 의해 불에 타 없어진 마을터임. 당시 주민들은 아랫마을로 이주했으며, 이 와중에 5명이 희생됨.</p>
안내판 설명1(진입로)	<p>[한글] 자리왓-설촌유래- 약 250년전 남편문씨 일가가 정착하여 마을을 설촌하고 거주하였으며 이후 진주강씨가 어도1구내에서 이주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농사 및 축산업을 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1948년 4·3때 소멸되었다.</p> <p>[영문] 없음</p>



**안내판
설명2(마을안)**

[한글]
 이 곳은 4·3의 와중에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2구 자리왓 마을 터이다. 250여년 전에 남편문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 30여 가호에 150여 주민들이 밭농사를 지으며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마을 가운데 신명서당이 있어 글 읽는 소리 끊이지 않았고 뛰어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주위에 작은 규모의 자연 마을인 지름기, 열류왓, 상수모를, 말밭, 고도리왓 등의 촌장들이 자리왓 팽나무 아래 모여 대소사를 의논하며 정겹게 살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들을 여지없이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으니 1948년 11월 중순 경 소개령이 내려지고 주민들이 아랫 마을로 이주한 후 마을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이 와중에 5명이 희생되었다. 주민들은 봉선이 입구 신명동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한 이후 자리왓 등으로는 전혀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 곳을 지나는 길손들이여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 바람에 스석대는 대숲이 있던 집터와 밭담 사이로 자그맣게 남아 있는 올래,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저 팽나무를. 서러운 옛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다시는 이 땅에 4·3 과 같은 서러운 역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2002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지사

[영문]
 없음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안내판 1>에 고유명사에 대한 오탈자가 있으며 관리 상태가 부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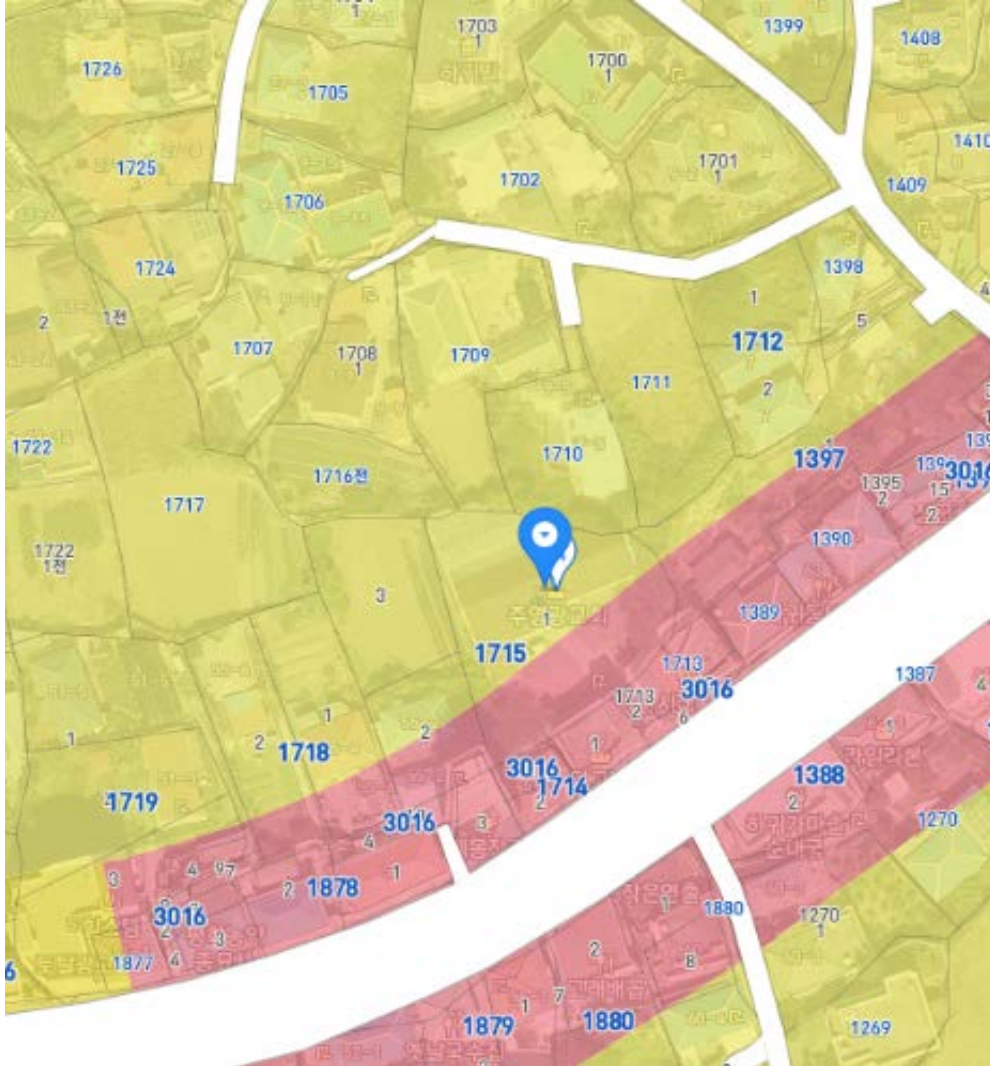
2) 문제점

- <안내판 1> 지도 부분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힘들.
- 안내판 오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이동약자 접근이 가능하긴 하나 안내판 2의 경우 너무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에 앉아서 읽기가 어려움.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 마을의 설촌 유래에 대한 설명 중 <안내판 1>에는 '남편문씨', <안내판 2>에는 '남평문씨'라고 되어 있음. 안내판 1이 오탈자로 사료됨.
- 희생된 5명이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이동약자나 키가 작은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안내판 2의 위치를 조정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안내판 1>에 '남편문씨'를 '남평문씨'로 수정.
- 안내판 내용 구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발발 배경, 원인, 진행과정,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리왓의 가해 주체는 '진압군'임. 안내판 내용에 누구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하귀중학원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59-1(하귀2리 1715-1)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80851, 126.403443</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하귀중학원은 해방 직후 제주도에 학교들이 개교하던 시기인 1945년 10월 15일 설립됐음. 이곳은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던 건물의 터임. 하귀중학원생들은 1947년 3월 1일 열린 3·1절 기념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 같은 해 8월 경찰은 "남로당 세포조직의 혐의자"라는 명목으로 하귀중학원생 5명을 체포했음. 하귀중학원은 1948년 4·3이 발발하자 단국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제주도 전역에서 초토화작전이 감행되던 같은 해 11월 폐교됐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유지재단	
기타			

2) 문제점

- 하귀리는 일제시기 제주에서 조천지역과 더불어 많은 항일 운동가를 배출하고 왕성하게 항일 운동이 전개된 마을임. 주민들은 이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졌다고 함. 일본이나 서울 등지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등 똑똑한 청년들이 많았으며, 이들 중 일부가 하귀중학원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음. 특히 하귀중학원 학생과 선생님들은 해방 후 전도적으로 열린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당시 제주도민들이 역사를 추동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4·3 당시 하귀중학원의 역할이나 하귀중학원 소속으로 당시 지역의 여론을 주도했던 고창옥 하귀중학원장, 교사 박영순씨 등 대표적인 인물 등 유적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안내판 설치.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이동약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외국인을 위한 영어 등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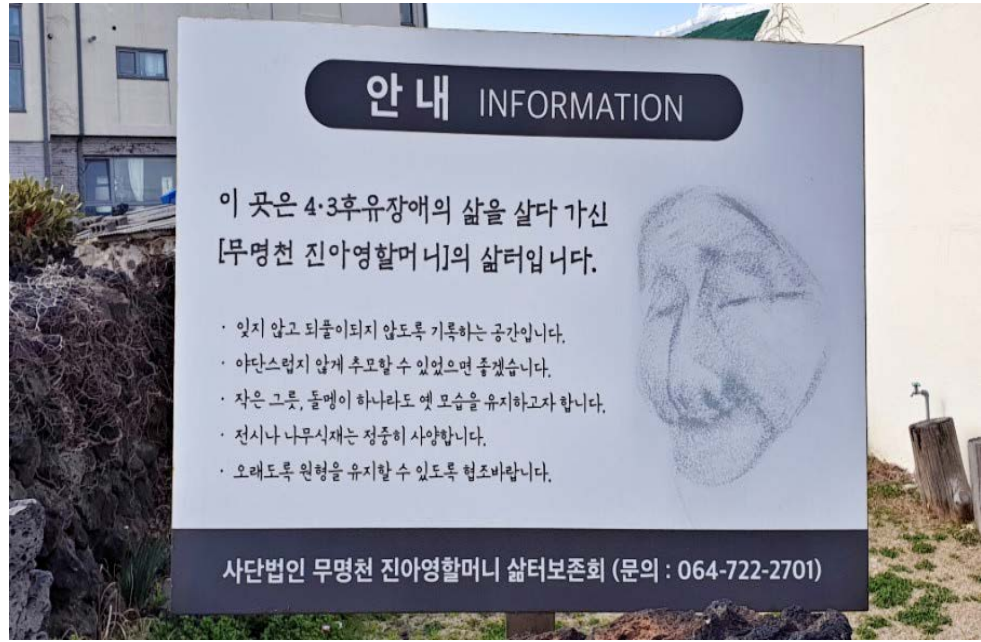
5.제주시 한림읍

진아영 할머니 삶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1길 22(월령리)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75998, 126.214660</p> 
조사일	2020.9.29(화)
유적지 개요	<p>4·3 당시 총탄에 맞아 한 평생을 툇 없이 살아온 故 진아영 할머니 삶터. 진아영 할머니는 1914년생으로, 4·3이 일어난 다음해인 1949년 1월 35살의 나이에 한경면 판포리의 집 앞에서 경찰이 인민유격대로 오인해 발사한 총탄에 툇을 맞고 쓰러진 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짐. 진아영 할머니는 2004년 9월 8일 별세했음. 현재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민간 차원에서 (사)진아영할머니 삶터 보존회를 꾸려 관리하고 있다. 삶터 내부에는 할머니가 사용하던 집기류, 옷,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음.</p>
안내판 문구	<p>[한글] 안내 이 곳은 4·3후유장애의 삶을 살다 가신 [무명천 진아영할머니]의 삶터입니다. - 잊지 않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 야단스럽지 않게 추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p>

- 작은 그릇, 돌맹이 하나라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전시나 나무식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 오래도록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사단법인 무명천 진아영할머니 삶터보존회(문의 : 064-722-2701)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보이스 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2) 문제점

- 진아영 할머니 삶터는 민간차원에서 진아영할머니 생활공간의 생전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에 진아영할머니의 생애를 알 수 있는 안내판이 부재해 유적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등 외국어 안내판이 부재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나 점자 안내가 부재함.

3) 개선방안

- 진아영 할머니의 생애와 진아영할머니삶터 공간 보존의 의미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를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한림항 어업조합창고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60(한림리 1314-29)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16476, 126.263524</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분류된 한림지역 거주 민간인 수십 명이 수감되었던 장소. 당시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새벽 2시에 대정면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기 탄약고로 쓰였던 곳에서 해병대에 의해 집단학살됐음. 학살이 일어났던 당시, 탄약고는 이미 폭파되어 오름 자체가 움푹 패인 형태였음. 학살이 일어난 후, 군은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함. 사건 발생 6년 만인 1956년 3월 시신 약 60여구가 유족들에 의해 수습되어 한림읍 갯거리오름의 '만벵디 공동장지'에 묻힘. 현재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며 식당과 숙박업소가 있는 3층 건물이 세워졌음.</p>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김*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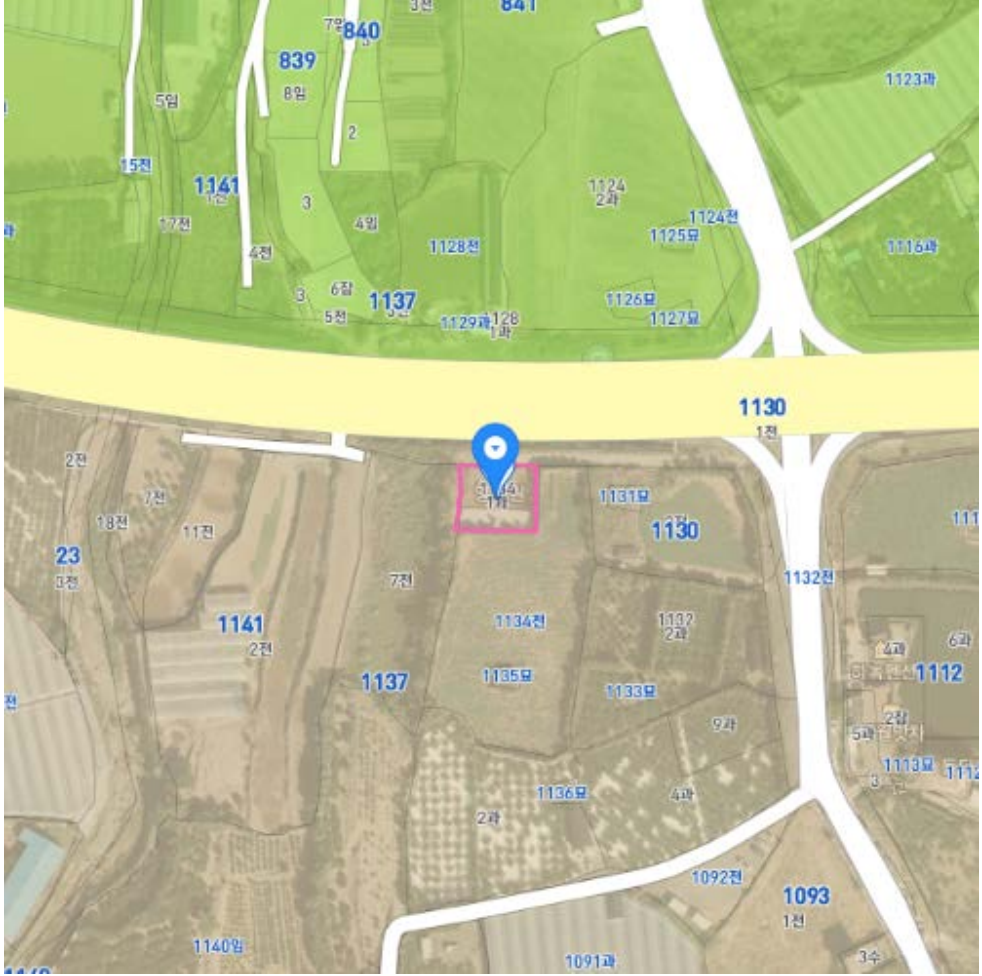
2) 문제점

-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 자행된 예비검속은 제주4·3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건임. 한림항 어업조합창고 옛터는 당시 희생자들이 수감되어 있다가 학살터로 끌려간 장소로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없음.

3) 개선방안

- 첫알오름, 만병디 공동장지 등 당시 이 곳에 갇혀있다 희생된 사람들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유적지들이 조성 및 보존되어 있는 만큼, 한림항 어업창고 옛터도 방문객들이 이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구성된 안내판 설치가 필요.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다케나카 통조림공장 옛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54(옹포리 283)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406632, 126.257162</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다케나카(竹中) 통조림공장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통조림 제조시설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온갖 수산물과 축산물이 이곳에서 통조림으로 가공되어 일본군에 납품되었음. 해방 후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다가, 한국전쟁 당시에는 제주에 군 훈련소가 생기자 일부 공장을 가동했다는 증언도 있음.</p> <p>제주4·3 당시 공장은 명월리, 상명리, 동명리 등의 주민들을 가두는 수용소로 사용되었음. 공장에 갇힌 주민들은 누울 자리조차 없는 좁은 공간과 식량 부족, 벼룩 등으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함. 설상가상 홍역이 돌면서 많은 유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음.</p> <p>한편, 이 시설에 갇힌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 ‘차라리 우리를 수감시켜 달라’라고 자청했다고 함. 이유는 인민유격대가 마을을 습격한 후 뒤따르는 군경의 보복총살극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함. 공장에 수감되어 있으면, 최소한 ‘무장대 지원혐의’를 씌우지는 못할 것이었기 때문.</p> <p>몇 년 전까지 이 공장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아파트 건물이 들어선 상태임. (아래 사진 참조)</p>



(왼쪽 2010년 7월, 오른쪽 2020년 6월. ©카카오지도 로드뷰)

왼쪽 굴뚝이 있는 곳이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 옛터의 흔적이지만 새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굴뚝은 사라졌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X	
2	현재 유적지 부지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한림오션캐슬 아파트	
기타			

2) 문제점

- 다케나카 통조림공장 옛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전쟁물자를 공급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했으며, 제주4·3 당시에는 주민들을 가뒀던 수용소로 사용되는 등 일제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과 제주4·3, 한국전쟁 등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에서의 제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장소임.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이 부재함.

3) 개선방안

- 제주에서 이 공간이 시대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 이미 예전 모습이 사라진만큼 굴뚝이 남아있는 사진을 안내판에 함께 게재하여 방문객들이 해당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안내판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명월리 고림동(상동) 4·3 성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355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747753, 126.2808875</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남아 있는 4·3성담은 1949년 봄 명월 상동에 있는 향사를 중심으로 쌓았던 성의 일부임. 최초로 원형의 본성을 쌓았고, 이후 원래의 성밖으로 방형(方形)의 성을 추가로 증축했다고 함. 명월 고림동(상동), 상명, 금악 등 주민들은 몇년간 이곳에서 임시로 지은 가건물에 거주하며 고향 마을을 재건해 복귀함. 명월리 빌레뒀 마을 주민들의 경우 결국 본래 마을로 돌아가지 못함. 현재 이곳에는 길이 약 100m, 높이 약 2m, 폭 약 2m 정도의 성담이 보존되어 있음. 경비 인원이 성밖을 관측하기 편하도록 축조된 내부 회곽도 등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음.</p>
안내판 설명(진입로)	<p>[한글] 고림동 4·3성(제2의 피난처) 명월, 고림동, 금악, 상명리 주민대피, 피난처로 임시거주했으며 함바집(가건물) 4평...> 300호를 짓고 폭도에 의해 불타면서 외성을 석조했다고 했다. 본성의 문은 2개이며 동문 서문으로 나뉘고 본성 면적은 약 18,000평이고 외성 면적은 약 25,000평으로 석조됨. *본 성은 현재 한경, 한림읍 주민들을 동원하여 축조함.</p>

형태및규모
(사진 참조)

[영문]
없음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보이스 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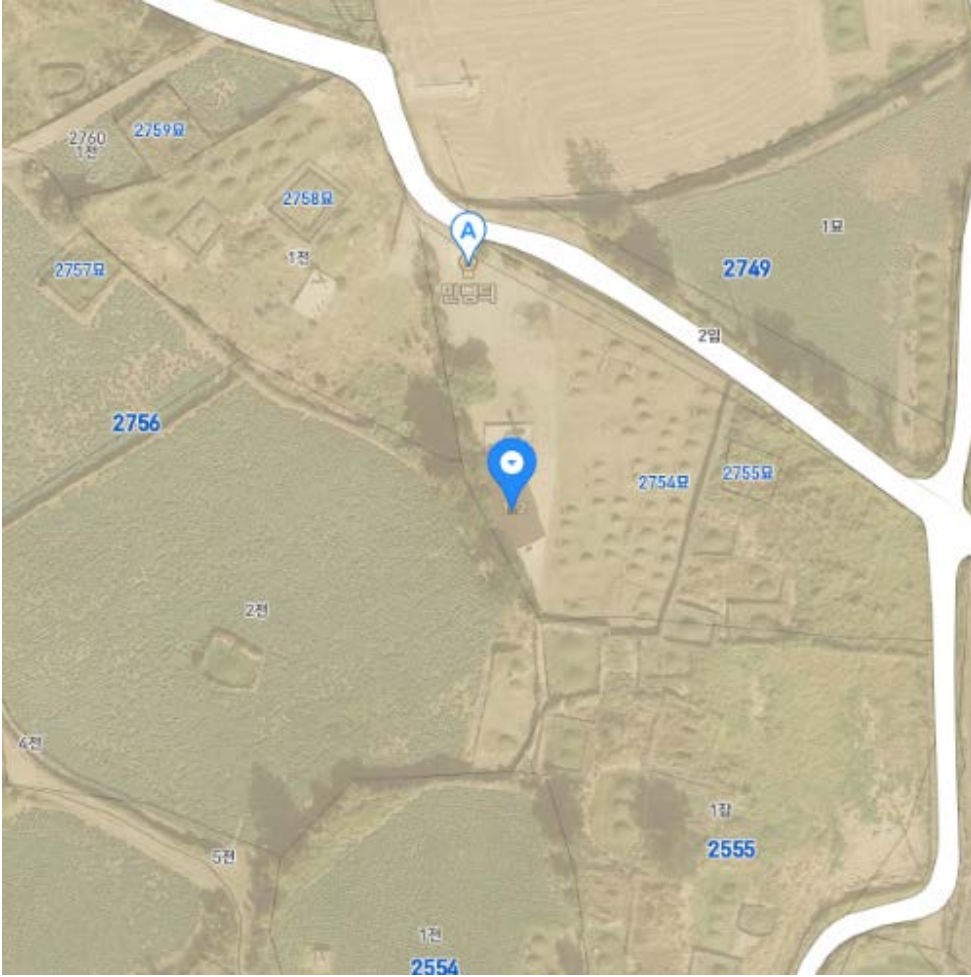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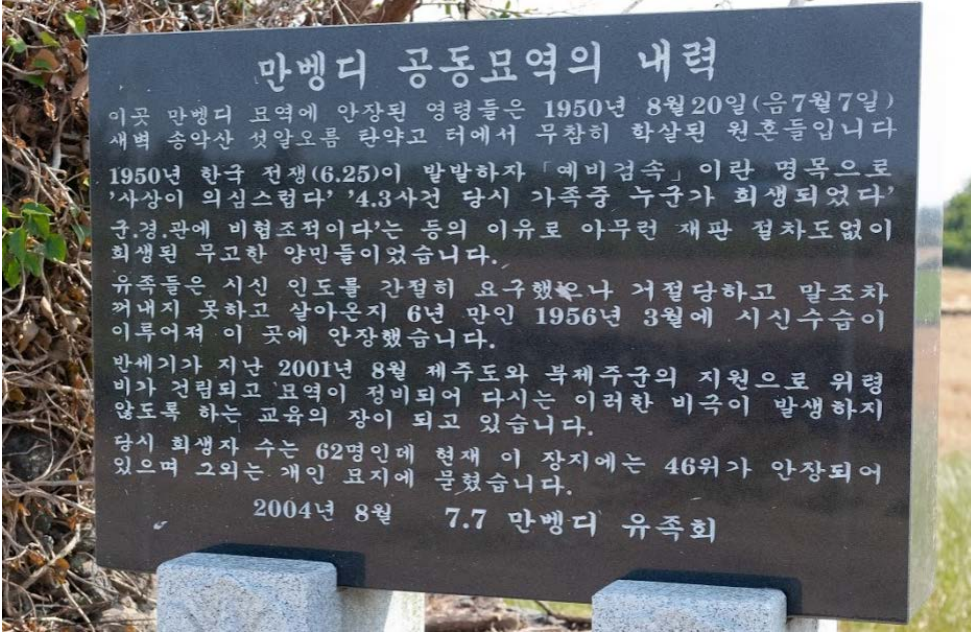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없음.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 안내판에 ‘폭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사전적 의미의 ‘폭도’는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무리를 의미함. 그러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제주4·3의 성격을 ‘폭동’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장대’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음. 이에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폭도’라는 안내판에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안내판 내에 문장의 주술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재된 설명문만으로는 누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 삶의 터전을 등지고 4·3성 안에서 살아야 했는지 등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폭도’라는 단어를 ‘무장대’로 수정해야 함.
- 안내판 내용 구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발발 배경, 원인, 진행과정,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참고로 『4·3은 말한다』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명월리 인근 대부분의 마을들은 소개령 당시 토벌대에 의해 전소됐으며, 주민들은 4·3성담 안에 지은 가건물에서 생활함.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판 내용이 수정되어야 함.

만병디 공동장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갯거리오름길 112(금악리 2754)
위치(위경도)	<p>33.3725676,126.2954356</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만병디 공동장지는 1950년 음력 7월 7일 한국전쟁 당시 군이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한림 및 무릉지역 주민들의 유해 60여 구가 안장된 묘역임. 이들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새벽 2시께 대정면 상모리에 첫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기 탄약고로 쓰였던 곳에서 해병대에 의해 집단학살됐음. 시신들은 사건 발생 6년 만인 1956년 3월 유족들에 의해 수습되어 이곳에 안장됨.</p>
안내판 설명 1	<p>[한글] 만병디 공동묘역의 내력</p> <p>이곳 만병디 묘역에 안장된 영령들은 1950년 8월 20일(음7월7일) 새벽 송악산 첫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무참히 학살된 원혼들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6.25)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이란 명목으로 '사상이 의심스럽다' '4·3사건 당시 가족중 누군가 희생되었다' '군.경.관에 비협조적이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희생된 무고한 양민들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시신 인도를 간절히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살아온지 6년만인 1956년 3월 시신수습이 이루어져 이 곳에 안장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2001년 8월 제주도와 북제주군의 지원으로 위령비가 건립되고</p>

	<p>묘역이 정비되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희생자 수는 62명인데 이 장지에는 46위가 안장되어 있으며 그외는 개인 묘지에 묻혔습니다.</p> <p>2004년 8월 7.7 만병디 유족회</p> <p>[영문] 없음</p> 
<p>안내판 설명 2</p>	<p>[한글] 건립경위 이곳에는 1950년 8월 20일(음7.7) 새벽 송악산 첫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당한 한림지역 예비검속자 52명과 무릉지서 구금자 9명 등 모두 예순한 분의 원혼들이 영면하고 계십니다. 일제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48년 발생한 4.3사건과 뒤이은 한국전쟁 등의 대혼란기에 예비검속이란 명목으로 강제연행된 한림지역 주민들은 당시 한림어업 창고에 구속되었다가 무릉지서 구금자와 함께 희생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순박한 농민이나 2세 교육에 전념하던 교사, 하물며 여자까지 포함된 희생자들의 시신은 인도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암울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지 5년 7개월! 1956년 3월 30일에야 비로소 썩어 문드러진 시신이나마 수습할 수 있었으나 유해를 마련할 장소가 마땅찮아 고심하던 차에 유족인 임태봉 여사께서 지세 좋은 명당을 쾌척하여 주심으로 이곳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반세기가 넘어서야 구천을 떠돌던 원혼들을 뿔뿔이 해원하고 이해와 관용의 3세기도민대화합의 기틀을 다져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상생의 터전으로 삼고자 제주도과 북제주군의 지원에 힘입어 삼가 이 빚들을 세웁니다. 서기 2001년 9월 6일 7.7만병디 유족회 건립</p> <p>[영문] 없음</p>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보이스 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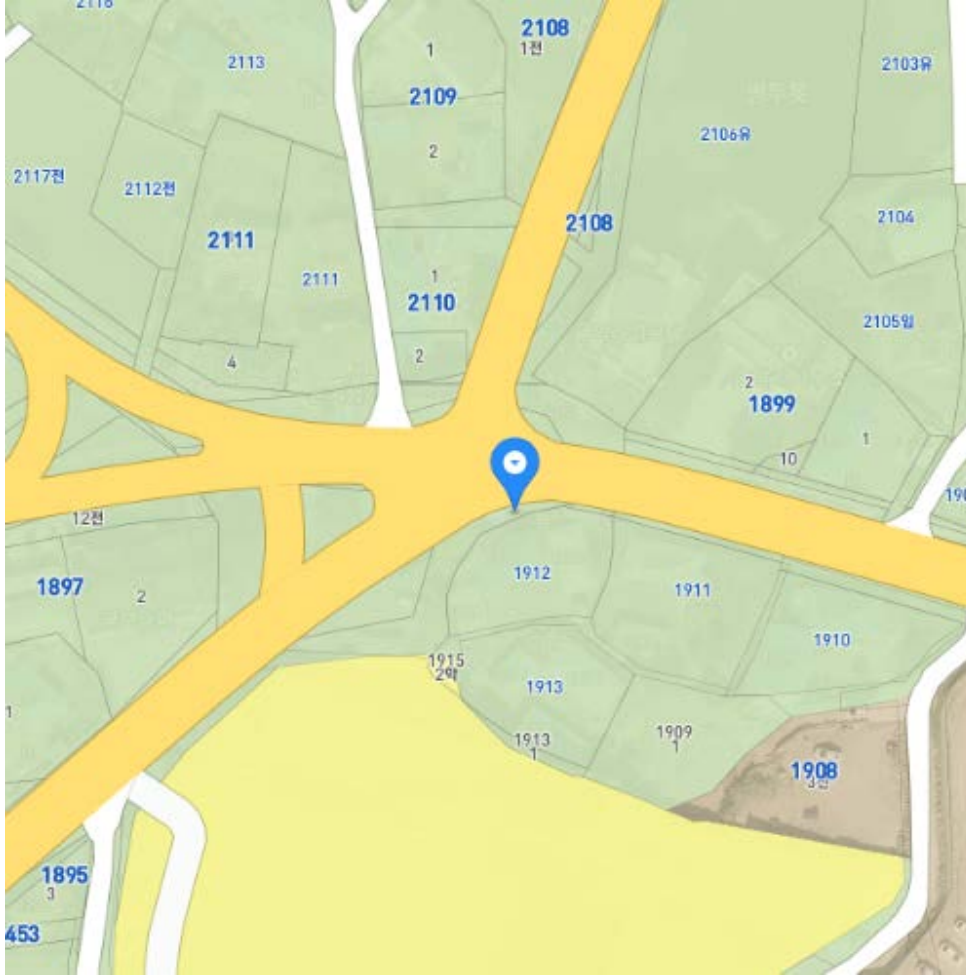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코드가 부재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 희생자 수와 관련, <안내판 1>에는 '62명이 희생됐고 46명이 장지에 안장되었다'고 기재되었으나, <안내판 2>에는 '61명이 영면'하고 있다고 명시, 서로 내용이 상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기재할 필요 있음.

3) 개선방안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코드나 점자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 피학살 희생자 수와 관련, 유적지 내 <안내판 1>과 <안내판 2>의 내용이 서로 다름.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연구소가 2018년에 발행한 『제주4·3 유적 1 제주시 개정증보판』에는 이 사건으로 63명이 희생되었다고 나와 있으나 몇 명이 안장되어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정부가 제주4·3과 관련하여 공식 채택한 보고서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한림지역 유족들은 수습하여 온 시신 61구를 한림면 금악리 2754번지 속칭 ‘만뱅디 공동장지’에 안장”했다고 적시됨. 물론, 유족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제주4·3 유적 1 제주시 개정증보판』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의 내용을 종합한 안내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월대 옛터(벵디가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305(금악리 1912 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57189, 126.295865</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월대 옛터는 마을의 중심지로 향사(현재 금악리사무소)와 학교,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했다고 함.</p> <p>1919년 3·1절 운동을 기념해 이곳에 네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4·3 당시인 1948년 5월 마을로 들이닥친 토벌대는 금악국립학교 3학년 어린이에게 다른 주민들의 행방을 추궁하면서 어린이 목에 줄을 묶어 이곳에 있던 나무에 매다는 등 만행을 저지름. 현재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p> <p>이곳에는 현재 '벵디가름(잃어버린 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음. 지난 201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가 개통한 '금악마을 4·3길'의 코스 중 한 곳임.</p>
안내판 설명(진입로)	<p>[한글] 벵디가름(잃어버린 마을)</p> <p><벵디가름>은 향사(지금의 리사무소)와 학교 그리고 풍부한 물이 있어 사방으로 길이 생겨나 자연스럽게 마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동네이다. 1919년 3·1 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네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가운데 나무를 중심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심어져 있었다.</p> <p>4·3 당시 이 나무 중 먹구슬나무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달려 고문을 당하였었고, 몇 일 후 울창했던 나무들은 베어져 버리고 향사와 학교마저 불에 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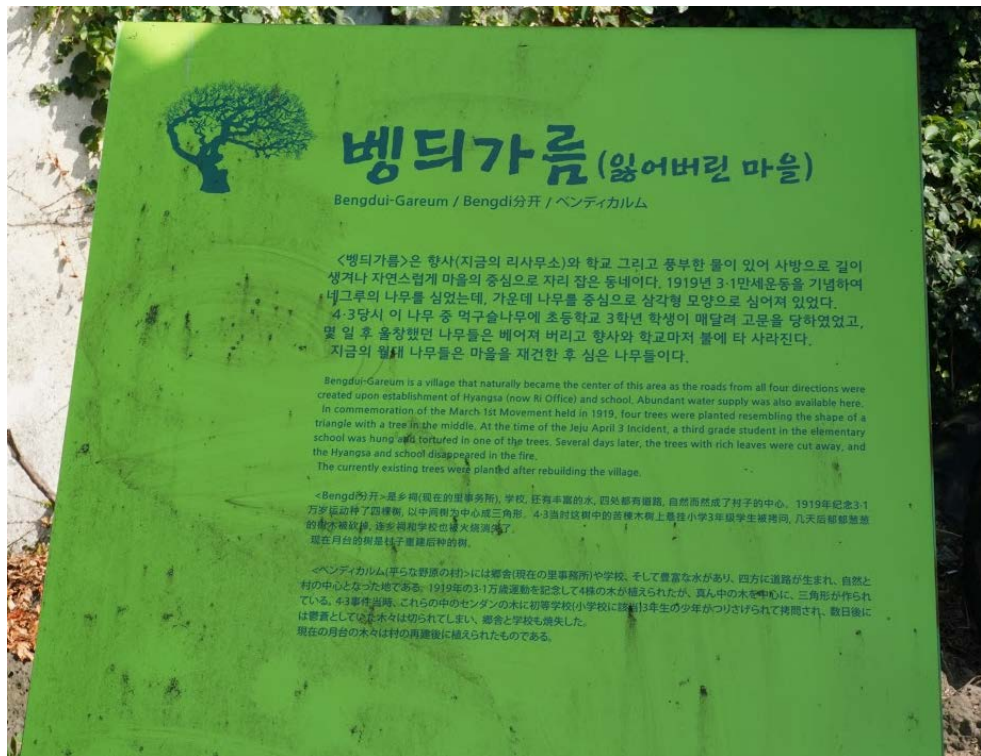
사라진다.
 지금의 월대 나무들은 마을을 재건한 후 심은 나무들이다.

<영문>

Bengdui-Gareum is a village that naturally became the center of this area as the roads from all four directions were created upon establishment of Hyangsa (now Ri Office) and school. Abundant water supply was also available here.

In commemorat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held in 1919, four trees were planted resembling the shape of a triangle with a tree in the middle. At the time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a third grade student in the elementary school was hung and tortured in one of the trees. Several days later, the trees with rich leaves were cut away, and the Hyangsa and school disappeared in the fire.

The currently existing trees were planted after rebuilding the village.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보이스 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4·3은 말한다』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 유적 1 제주시 개정증보판』 4·3 관련 주요자료에서는 ‘벵디가름’이라는 지명의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벵디가름’이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없음. 왜냐하면 ‘벵디가름’이라는 지명 자체가 제주어에서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는 ‘벵디’와 ‘가름’의 합성어이기 때문임. ² 일례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는 ‘벵(벵)디가름’이라는 마을이 있었음. 다만, 『제주4·3 유적 1 제주시 개정증보판』에는 이 지역이 ‘월대 옛터’라는 지명의 역사현장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우선 이를 바탕으로 유적지 개요 등을 작성함.		

2) 문제점

- 안내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안내판 곳곳에 녹이 슬어 있고 얼룩이 묻어 있는 등 관리 상태가 좋지 못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이곳에는 ‘벵디가름(잃어버린 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음. 안내판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부실하고, 유적을 ‘잃어버린 마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음. 4·3과 관련하여 ‘잃어버린 마을’은 “4·3사건 때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마을 가운데 일부로서, 주민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전처럼 복원하지 못해 버려지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더 이상 마을로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함”.³ ‘벵디가름’ 안내판 인근은 인가와 학교, 리사무소가 있는 등 마을이 복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마을’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 보임. 또 안내판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벵디가름’에서 4·3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안내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제주4·3 유적 1 제주시 개정증보판』에 해당 지역이 ‘월대 옛터’라는 이름의 역사현장으로 분류되어 있음. 『4·3은 말한다 2』에는 이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피해자의 직접 증언 및 설명⁴이 있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판 내용을 개선해야 함.

² 벵디(벵디, 벵디,벵디)는 ‘평평한 들판’, 가름(카름)은 ‘마을 안의 구분된 거리’라는 의미.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방언사전(<https://www.jeu.go.kr/culture/dialect/dictionary>)」

³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년, 518쪽

⁴ 해당 내용을 간술하면, 금악리 월대터는 현재 금악리사무소(당시 향사) 앞 오거리로 마을의 중심지였음.

주민들의 모임터와 어린이들의 놀이터 역할을 했음. 이곳에 1919년 3·1운동을 기념해 네 그루의 나무를 심음. 4·3 당시인 1948년 5월 토벌대는 당시 금악국민학생 3학년이 재학 중인 어린이의 붙잡아 마을사람들의 행방을 추궁하며 밧줄을 목에 묶어 나무에 매다는 만행을 저지름. 이 학생은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 도망쳐 목숨을 건짐.

웃동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281-1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471723, 126.3047064</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잃어버린 마을’ 웃동네는 4·3 당시 토벌대의 소개령으로 주민들이 흩어지고 가옥들이 불에 탔다가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아 끝내 복구되지 못한 마을임.</p> <p>현재 마을의 모임터 역할을 하던 팽나무 옆에 마을의 내력을 안내하는 표석이 세워져 있으며, 인근에는 집터임을 알 수 있는 대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음.</p>
안내판 설명(진입로)	<p>[한글]</p> <p>여기는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웃동네 마을터이다. 4백여 년 전에 설촌된 유서깊은 이 마을은 금악리 상동이라는 뜻에서 웃동네로 불리었고, 이씨 김씨 송씨 강씨 박씨 등 38호에 141명의 주민들이 밭농사와 우마를 키우며 정겹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4·3사건은 이 마을에도 비극으로 다가왔으니 1948년 11월 21일경 소개령에 의해 주민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 한림리 협재리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마을은 전소되어 폐촌이 되었고 이 와중에 무고한 주민 8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그 후 주민들은 재건명령에 따라 명월리 고림동에 잠시 거주하다 다시 금악리 본 마을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후 웃동네는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다.</p>

지금은 당시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고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뛰놀던 팽나무와 연못터, 그리고 사라져버린 집터 주변의 대나무만이 옛날에도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2003년 4월 3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지사

[영문]

없음



1)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보이스 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X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X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	
기타			

2) 문제점

- 안내판(표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일부 금이 간 곳이 있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외국인을 위한 영문 등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 안내판 내용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구성되었으나, ‘마을이 전소되고 주민 8명이 희생’된 과정에 대해 가해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개선방안

- 안내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함.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외국인들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
- 4·3 당시 한림면 금악리는 토벌대와 무장대 간 충돌이 심했던 곳임. 토벌대에 의한 피해가 대다수였지만, 무장대가 피해를 끼친 경우도 있음. 이에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누가 어떤 과정으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당시 금악리 웃동네 주민 수는 141명이었고 8명이 희생됐음.

생이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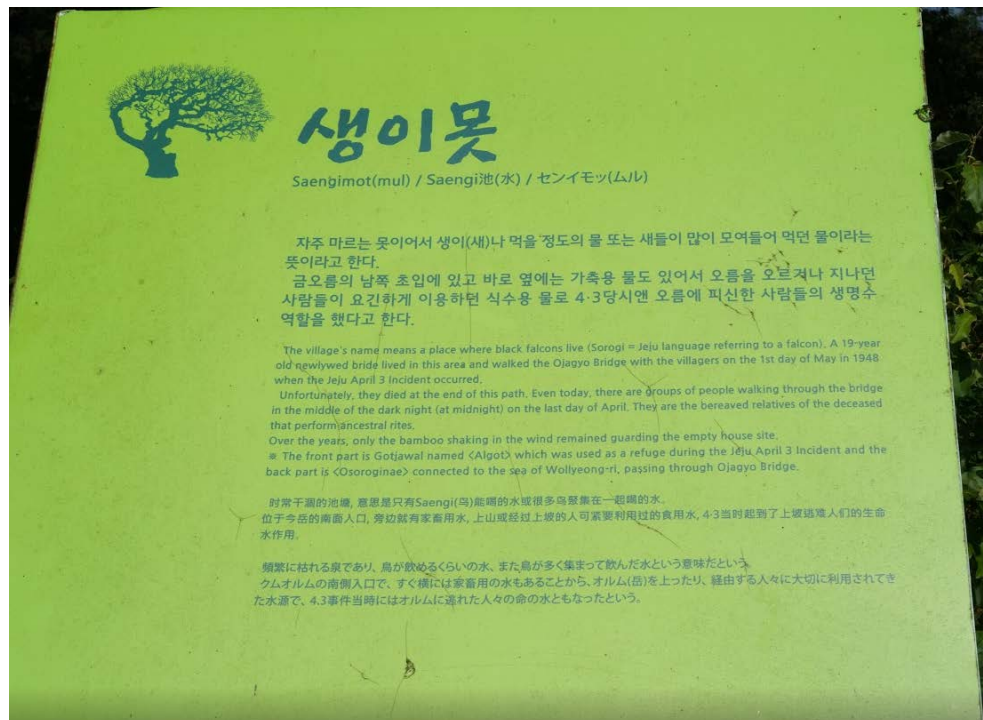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211
위치(위경도)	<p style="text-align: center;">33.351249, 126.305966</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생이못은 금오름 초입에 있는 작은 연못임. 4·3 당시 금오름 등 인근에 피신했던 주민들이 이곳에서 물을 떠다 마셨음. 인근 주민들은 오름 정상에 있는 굴에 숨었다고 함.</p> <p>한편, 금악리는 인민유격대의 세력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성했던 곳임. 인민유격대는 1948년 10월 25일 밤 금오름을 비롯해 대정면 모슬봉과 가시오름 등에서 봉화를 피워 세를 과시하는 이른바 ‘왓샤시위’를 전개했으며, 이에 토벌대는 금오름을 토벌 지역으로 선정해 초토화시킴.</p>
안내판 설명(진입로)	<p>[한글] 생이못 자주 마르는 못이어서 생이(새)나 먹을 정도의 물 또는 새들 많이 모여들어 먹던 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금오름의 남쪽 초입에 있고 바로 옆에는 가축용 물도 있어서 오름을 오르거나 지나던 사람들이 요긴하게 이용하던 식수용 물로 4·3 당시엔 오름에 피신한 사람들의 생명수 역할을 했다고 한다.</p> <p>[영문]</p>

The village's name means a place where black falcons live (Sorogi = Jeju language referring to a falcon). A 19-year old newlywed bride lived in this area and walked the Ojagy Bridge with the villagers on the 1st day of May in 1948 when the Jeju April 3 Incident occurred.

Unfortunately, they died at the end of this path. Even today, there are groups of ripple walking through the bridge in the middle of the dark night (at midnight) on the last day of April. They are the bereaved relatives of the deceased Ed that perform ancestral rites.

Over the years, only the bamboo shaking in the wind remained guarding the empty house site.

※The front part is Gotjawal names <Algot> which was used as a refuge during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back is <Osoroginae> connected to the sea of Wollyeong-ri, passing through Ojagy Bridge.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보이스 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O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O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O	
기타	『4·3은 말한다』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 유적 1 제주시 개정증보판』 등 4·3 관련 주요자료에서는 ‘생이뭇’이라는 이름의 연못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음. 이에 안내판을 기준으로 생이뭇에 대한 설명을 기술함.		

2) 문제점

- 안내판 이탈자, 관리 상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보할 안내판 관리 주체 및 연락처가 없음.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생이뫂 영문 안내판의 경우 안내판 내용이 완전히 다른 유적지(오소록이 마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 외국인들이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완전히 틀린 내용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음.

3) 개선방안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제대로 번역된 영문 내용으로 새로 안내판을 세울 필요가 있음.

기존안	수정안
<p>The village's name means a place where black falcons live (Sorogi = Jeju language referring to a falcon). A 19-year old newlywed bride lived in this area and walked the Ojagyo Bridge with the villagers on the 1st day of May in 1948 when the Jeju April 3 Incident occurred.</p> <p>Unfortunately, they died at the end of this path. Even today, there are groups of ripple walking through the bridge in the middle of the dark night (at midnight) on the last day of April. They are the bereaved relatives of the deceased Ed that perform ancestral rites.</p> <p>Over the years, only the bamboo shaking in the wind remained guarding the empty house site.</p> <p>※The front part is Gotjawal names <Algot> which was used as a refuge during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back is <Osoroginae> connected to the sea of Wollyeong-ri, passing through Ojagyo Bridge.</p>	<p>Since this pond dried up frequently, its name 'Saengimot' means a mot(pond) only for sangi(bird). It is located at the southern entrance of Geum Oreum and right next to it, there was another pond for livestock. Therefore, villagers who climbed up to Oreum used this pond to drink water. Also, during Jeju's April 3rd, this pond was a life-saving water for people who took refuge at the Oreum.</p>

오소룩이 마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445번지 일대
위치(위경도)	<p>33.345471, 126.301436</p> 
조사일	2020. 8. 19(수)
유적지 개요	<p>오소룩이 마을은 한림읍 금악리에서 웃동네와 함께 상동(上洞, 윗동네)에 속하는 마을임. 4·3 당시인 1948년 6월 7일경 경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 가해자들이 체포되기도 함. 1948년 11월 20일경 금악리가 소개된 이후 끝내 복구되지 못해 ‘잃어버린 마을’로 남게 됨.</p> <p>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면, 1948년 6월 7일 응원경찰이 포함된 저지지서 경찰이 한림읍 금악리의 오소룩이 마을을 덮쳤음. 마을주민들은 마을 보초의 신호를 듣고 피신했으나, 장애인 소년 1명과, 여든 살 노인, 임산부 등 7명은 경찰에 붙잡힘.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소년과 노인, 임산부 등 5명을 학살함.</p> <p>이 사건은 뒤늦게 알려져 미군정 방첩대(CIC)가 조사에 나섰으며, 저지지서 주임 등 경찰관 31명이 체포되기도 했음.</p>
안내판 설명(진입로)	<p>[한글] 오소룩이 동네(잃어버린 마을) <오소룩하다> <검은매 (소룩이=매의 제주어)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 함께 전해지는 동네로, 4·3이 나던 1948년 음력 5월 초하루 이곳에 살던 19세 꽃다운</p>

새색시가 만삭인 몸으로 동네삼촌들과 오자교를 걸어서 넘었건만 ...
 지금도 해마다 음력 4월 그믐날 자정이 되면 칠혹같은 어둠속에 대어섯씩 무리지어
 검은 형체들이 돌아다닌다. 걸어서 오자교를 넘었건만 끝내 길에서 죽어간 그들의
 제사를 지내고 쓸쓸이 돌아서는 유족들인 것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만이 빈 집터를 지키고 있다.
 ※앞쪽으로는 <알곶> 이라는 곳자왈로 4·3 당시 피난처럼 이용되었고 뒤쪽으로는
 <오소록이내>로 오자교를 지나 월령리 바다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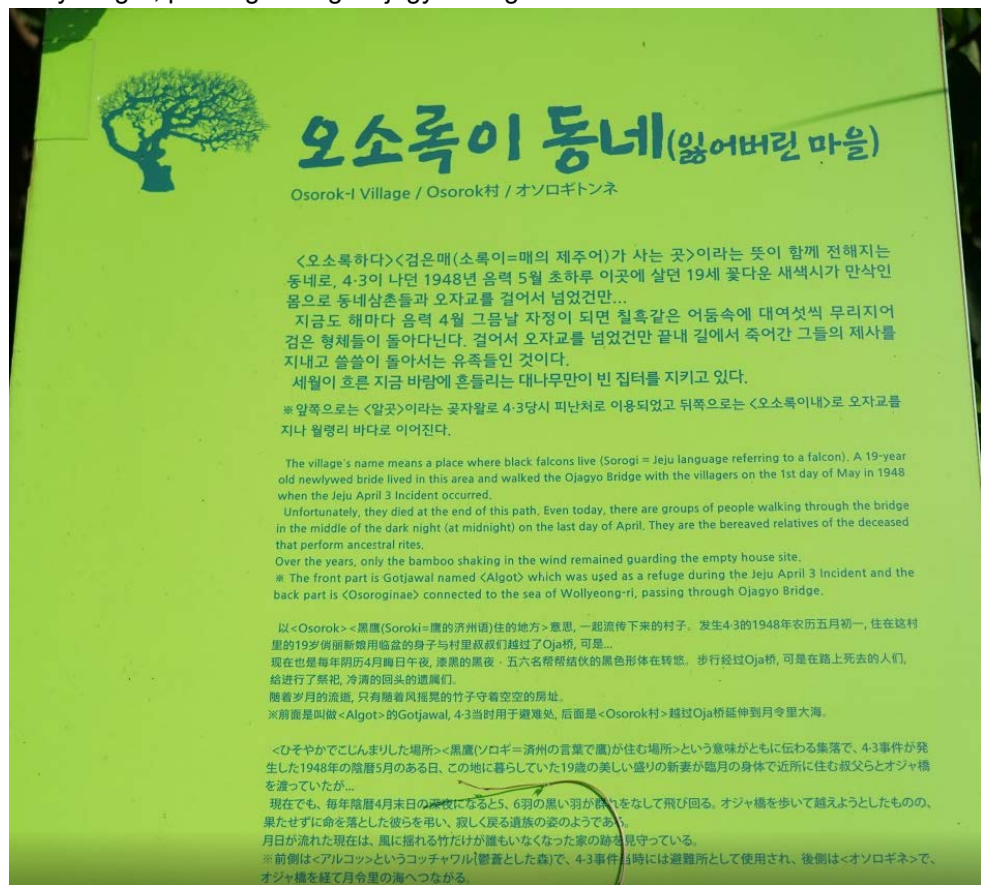
[영문]

The village's name means a place where black falcons live (Sorogi = Jeju language referring to a falcon). A 19-year old newlywed bride lived in this area and walked the Ojagyoo Bridge with the villagers on the 1st day of May in 1948 when the Jeju April 3 Incident occurred.

Unfortunately, they died at the end of this path. Even today, there are groups of people walking through the bridge in the middle of the dark night (at midnight) on the last day of April. They are the bereaved relatives of the deceased Ed that perform ancestral rites.

Over the years, only the bamboo shaking in the wind remained guarding the empty house site.

※The front part is Gotjawal names <Algot> which was used as a refuge during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back is <Osoroginae> connected to the sea of Wollyeong-ri, passing through Ojagyoo Bridge.



1) 실태조사 결과

연번	점검 사항	상태(O/X)	비고
1	유적지 안내판에 4·3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O	
2	안내판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O	
3	유적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적절한가?	O	
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표시나 보이스 코드가 있는가?	X	
5	이동약자 접근성이 용이한가?	O	
6	외국어(영어) 안내가 있는가?	O	
7	안내판 설명에 비문이 있는가? (번역 오류 등)	O	
8	안내판 설명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가?	X	
9	인권·평화·젠더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	X	
10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가?	X	
기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안내판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날인 1948년 6월 7일(음력 5월 1일) 금악리에서 주민 5명이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금악리 내 어느 동(洞)에서 학살이 이뤄졌는지는 나와있지 않음.		

2) 문제점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안내나 음성변환용코드가 부재함.
- 안내판 내용의 주어와 서술어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문장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 ‘19세 꽃다운 새색시’와 같이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성(젠더)을 부각하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방문객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안내판의 내용만으로는 4·3 당시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내용이나 보존 상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적지 관리 주체 및 연락처, 설립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코드나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함.
-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해 안내판을 보는 사람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권, 젠더 감수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해야 함.
- 이 마을에서 일어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여 안내판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해야 함. 한글 안내판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기존안	수정안
<오소록하다> <검은매 (소록이=매의 제주어)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 함께 전해지는 동네로, 4·3이 나던 1948년 음력 5월 초하루 이곳에 살던 19세 꽃다운 새색시가 만삭인 몸으로 동네삼촌들과	오소록이 마을은 제주4·3 당시 1948년 11월 20일경 제주 중산간 지역에 내려진 소개령(疏開令)에 의해 주민들이 흩어진 이후 끝내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마을은 이 안내판의 남쪽 일대이며,

<p>오자교를 걸어서 넘었건만 ... 지금도 해마다 음력 4월 그믐날 자정이 되면 칠혹같은 어둠속에 대여섯씩 무리지어 검은 형체들이 돌아다닌다. 걸어서 오자교를 넘었건만 끝내 길에서 죽어간 그들의 제사를 지내고 쓸쓸이 돌아서는 유족들인 것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만이 빈 집터를 지키고 있다. ※앞쪽으로는 <알곶> 이라는 곳자월로 4·3 당시 피난처럼 이용되었고 뒤쪽으로는 <오소록이내>로 오자교를 지나 월령리 바다로 이어진다.</p>	<p>4·3 당시에는 38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했다고 한다. 대나무가 자생하는 터가 주민들이 살았던 집이 있었던 곳이다.</p> <p>한편, (이하 4·3 당시 오소록이 마을에서 발생했던 일 추가 조사 후 기술)</p>
--	--

다시 쓰는 제주 100년의 역사

제주지역 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기획/편집	(사)제주다크투어
제작	(사)제주다크투어 아름다운재단
인쇄	세진인쇄
발행일	2021년 6월 16일
발행인	양성주
발행처	(사)제주다크투어
주소	(631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3, 2층
전화	064-805-0043





기억하고 싶은 길

제주다크투어

제주다크투어 유적지 국·영문 안내판 조사보고서 [개정판]

(사)제주다크투어 (담당 이수정 홍보기획팀장 jejudarktours@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3, 2층 | 064-805-0043 | www.jejudarktours.org

시민의 힘으로 제주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주다크투어를 응원해 주세요.

회원가입 bit.ly/JejuDarkTours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